

전략연구 2019-21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현황 및 확대 방안

정지은 · 오용준 · 최돈정 · 유무상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며,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기에, 퇴근 후 생활 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삶의 시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여가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노동시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풍요로워지려면, 현재 문화서비스 공급 영역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장훈 외, 2018).

충남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확대가 강조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및 충청남도의 「민선7기」 흐름과 목표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문화서비스 현황과 충남의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충남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의 문화서비스 수요 및 공급 여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충남도민의 문화서비스 참여 경험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및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을 통해 충남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 및 참여 경험, GIS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충남 문화서비스 종합 진단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도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서비스, 문화로 확대되는 충남’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로 구축하였다.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박물관의 공공문화서비스 확대’,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문예회관의 문화다양성 서비스 공급’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공도서관 사업은 ‘충남도서관의 생애주기별 방문객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서관 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영상홀, 미니 시어터)을 통해 필름 전용 아카이브 구축’, ‘충남 대표 권역별 특성화(디지털 도서관, 환경 도서관, 예술 도서관 등) 지정 및 운영’, ‘충남 내 도서관의 운영시간 개선 모델 구축’ 등이다.

공공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디지털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박물관의 문화유산 아카이빙 구축 및 문화서비스 제공’, ‘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문화다양성 서비스제공 확대’ 등이다.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관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클래스(Junior classes) 운영’,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연대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 투어 제공’ 등이다.

문화다양성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예회관 사업은 ‘충남 내 문예회관의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인증', '문예회관과 연계한 기업메세나 프로그램 확산', '문예회관 창작품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제공' 등이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는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방문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 실시 및 통계시스템 구축',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평가체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이다.

방문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의 방문객 이용 행태 조사 및 분석',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키즈 라운지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적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 맞춤형 운영시간 확대' 등이다.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인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인력교육 실시',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충남형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시범운영' 등이다.

셋째,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정책과제는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 '유헴공간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기반 마련' 등이다.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포털사이트 개설 및 운영', '충남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생중계 문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위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지도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이다.

유헴공간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은 '충남 내 유헴시설의 현황 및 수요 파악', '유헴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단 운영', '충남 내 유헴시설의 공간 리모델링 실시 및 모니터링 평가', '충남의 문화예술 하우스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문화서비스 정책기반 마련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관련 계획 내 문화서비스 정책 발굴',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문화서비스 내용 추가 개정',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3.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기반시설 수요 및 공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과 연구들이 주를 이룬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로, 도민의 수요조사를 다양한 기반시설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충남의 각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현황 사례 분석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속가능한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6
4. 선행연구와 차별성	7
제2장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동향	9
1.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9
1) 문화서비스의 개념	9
2) 문화서비스의 범위	11
2. 중앙정부 및 충남의 정책동향	13
1) 근거법률 : 문화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3
2) 문화체육관광부 : 2019 업무계획	14
3)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6
4) 충남 「민선 7기」의 흐름과 목표	17
3. 국내외 문화서비스 관련 사례조사	19
1) 해외 문화서비스 사례	19
2) 국내 문화서비스 사례	27
4.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34
제3장 충남 문화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과제도출	37
1. 분석의 틀	37
2.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분석	38
1) 충남의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여건	38
2) 충남의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43

3.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분석	54
1)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조사개요	54
2)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55
3)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현황	57
4)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제약	59
5)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품질	64
6) 충남 문화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견	68
7) 충남 문화서비스 이용자 구분	71
8) 충남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 결정요인	72
9)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여정 분석	73
4.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76
1) 문화서비스 분석 방법	76
2) 네트워크 분석 적용	77
3)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분석	78
5.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	110
 제4장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113
1.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추진 전략	113
2.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14
1)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114
2)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123
3)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12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1. 결론 및 정책제언	135
2. 향후 연구과제	138
 참고문헌	139
[부록1] 자문의견	143
[부록2] 전문가 세미나	147
[부록3] 충남의 공공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53

표 목차

[표 2-1] 국토계획법 제2조의 기반시설	11
[표 2-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시설	12
[표 2-3] 본 연구에서 문화서비스의 범위	12
[표 2-4] 문화기본법의 구성내용	14
[표 3-1]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단위: %)	41
[표 3-2] 충남의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수(단위: 개소)	44
[표 3-3]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누적량(단위: 개소)	45
[표 3-4]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	46
[표 3-5]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제공 프로그램	47
[표 3-6] 충남 문예회관 유료 관객률	48
[표 3-7] 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구성	55
[표 3-8] 인구통계학적 특성(단위: 명, %)	56
[표 3-9]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률 및 이용빈도(단위: 명, %)	57
[표 3-10]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단위: %, 분)	59
[표 3-11]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단위: %, 점)	59
[표 3-12] 공공 문화서비스 이미지(단위: %, 점)	60
[표 3-13] 핵심 품질(단위: %, 점)	65
[표 3-14] 상호작용 품질(단위: %, 점)	66
[표 3-15] 환경적 품질(단위: %, 점)	67
[표 3-16]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 결정요인(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72
[표 3-17] 네트워크 분석 활용 데이터	78
[표 3-18]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78
[표 3-19] 충청남도 문화기반시설별 현황	81
[표 3-20]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2
[표 3-21]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3
[표 3-22]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4
[표 3-23]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5
[표 3-24] 1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6

[표 3-25] 1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7
[표 3-26] 1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8
[표 3-27] 1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89
[표 3-28] 2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0
[표 3-29] 2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1
[표 3-30] 2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2
[표 3-31] 2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3
[표 3-32] 3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4
[표 3-33] 3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5
[표 3-34] 3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6
[표 3-35] 3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7
[표 3-36] 4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8
[표 3-37] 4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99
[표 3-38] 4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0
[표 3-39] 4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1
[표 3-40] 5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2
[표 3-41] 5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3
[표 3-42] 5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4
[표 3-43] 5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5
[표 3-44] 6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6
[표 3-45] 6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7
[표 3-46] 6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8
[표 3-47] 6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9

그림 목차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4
[그림 1-2]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의 개념	10
[그림 2-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의 비전과 전략	15
[그림 2-3]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 목표, 중점추진과제	17
[그림 2-4] 「민선 7기」의 비전과 5대 목표	18
[그림 2-5] 덴마크 Dok11 도서관 전경	21
[그림 2-6] 덴마크 야외민속박물관 프로그램	23
[그림 2-7] 판압베 미술관 프로그램	25
[그림 2-8]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공방	27
[그림 2-9] 다문화꾸러미 프로그램	28
[그림 2-10]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와 수유실	30
[그림 2-11] 전주 시민놀이터 프로그램	31
[그림 2-12] 금산지구별책마을 작은도서관 전경	33
[그림 3-1] 분석의 틀	37
[그림 3-2] 충남의 인구 변화 추이	39
[그림 3-3] 충남의 연도별 1인 가구 규모	39
[그림 3-4] 충남의 이용한 여가공간 (개별) 상위 10개	42
[그림 3-5] 충남의 가구소득(경상소득)	42
[그림 3-6] 충남의 여가비 지출 현황	43
[그림 3-7]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누적량	45
[그림 3-8] 충남의 공공문화여가시설 충분도	48
[그림 3-9]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49
[그림 3-10]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50
[그림 3-11]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시간대(단위: %)	50
[그림 3-12] 충남의 문화예술행사 보완점	51
[그림 3-13]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선택기준	51

[그림 3-14]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52
[그림 3-15]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1순위)	53
[그림 3-16]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1순위)	54
[그림 3-17]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률 및 이용 빈도	57
[그림 3-18] 문화서비스시설 방문 목적	58
[그림 3-19] 공공 문화서비스 관심도	60
[그림 3-20]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	61
[그림 3-21] 문화서비스 비용부담	61
[그림 3-22] 문화서비스 이용 역량	62
[그림 3-23] 문화서비스 이용 기타 여건(신체적 제약 등)	62
[그림 3-24] 문화서비스 정보 획득의 용이성	63
[그림 3-25] 문화서비스 시설 수의 적정성 인식	63
[그림 3-26] 문화서비스 시설의 접근 용이성	64
[그림 3-27] 문화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68
[그림 3-28] 공공 문화서비스 인지(단위 : %)	68
[그림 3-29]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단위 : %)	69
[그림 3-30] 문화서비스 확충 필요성	69
[그림 3-31] 문화서비스 우선지원 대상(단위: %)	70
[그림 3-32] 문화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단위 : 중복 %)	71
[그림 3-33] 문화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이용자 구분	71
[그림 3-34] 문화서비스 참여제약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74
[그림 3-35] 문화서비스 참여품질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75
[그림 3-36] 문화서비스 참여여정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76
[그림 3-37] 네트워크 분석 분류	77
[그림 3-38] 분석의 흐름	78
[그림 3-39]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분포 현황	79
[그림 3-40]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2
[그림 3-41]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3
[그림 3-42]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4
[그림 3-43]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5

[그림 3-44] 1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6
[그림 3-45] 1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7
[그림 3-46] 1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8
[그림 3-47] 1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9
[그림 3-48] 2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0
[그림 3-49] 2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1
[그림 3-50] 2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2
[그림 3-51] 2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3
[그림 3-52] 3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4
[그림 3-53] 3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5
[그림 3-54] 3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6
[그림 3-55] 3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7
[그림 3-56] 4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8
[그림 3-57] 4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9
[그림 3-58] 4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0
[그림 3-59] 4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1
[그림 3-60] 5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2
[그림 3-61] 5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3
[그림 3-62] 5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4
[그림 3-63] 5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5
[그림 3-64] 6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6
[그림 3-65] 6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7
[그림 3-66] 6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8
[그림 3-67] 6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9
[그림 4-1]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113
[그림 4-2]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지	115
[그림 4-3]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시네라와 미니시어터	116
[그림 4-4] museum4punkt0 프로그램	119
[그림 4-5]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21
[그림 4-6]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사례	123

[그림 4-7] 2017~2018년 문화기반시설 총람	125
[그림 4-8]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	127
[그림 4-9] 찾아가는 서비스 점점인력교육	129
[그림 4-10] Kultura.RF 홈페이지	131
[그림 4-1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경	13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도민의 여가 시간 확대에 대한 문화여가 관심 증대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에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며,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청년층에서 선호하는 신조어로 소확행(51.8%), 율로(18.2%) 등이 꼽혔다(동양일보, 2019.01.27.).

2018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의하면,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86.6%로 나타났고, 국민의 삶에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한 비율은 89.1%로 드러났다. 특히 여가활동에 대해 2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모두 평균 5점(7점 만점) 이상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18a).

최근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여가 환경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구의 비율이 2040년에는 32%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인구의 여가활동 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장훈 외, 2018; 통계청, 2016).

(2)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의 확대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확장되면서, 미래 변화 및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사람, 국민, 다양, 자율, 자치, 창의, 포용 등 가치 중심의 새로운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다(김혜안·김연진 외, 2018).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48조원을 투자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문화여가 및 복지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품격을 더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다(머니투데이, 2019.04.22.).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기에, 퇴근 후 생활 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삶의 시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여가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장훈 외, 2018).

(3) 충남의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안 도출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담보해 있는 부분은 정부 및 지자체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화여가 참여 제약이었던 시간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도 일정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미 시행된 상태이다. 향후 노동시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풍요로워지려면 현재 문화서비스 공급 영역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배제되는 도민 없이 모두가 여가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문화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장훈 외, 2018).

따라서 충남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문화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서비스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을 담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과 수요 여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도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및 충청남도의 「민선7기」 흐름과 목표 등을 분석하여, 향후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정책 실행을 위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서비스 현황과 충남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문화서비스 수요 및 공급 여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충남도민의 문화서비스 참여 경험 분석과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을 통해 충남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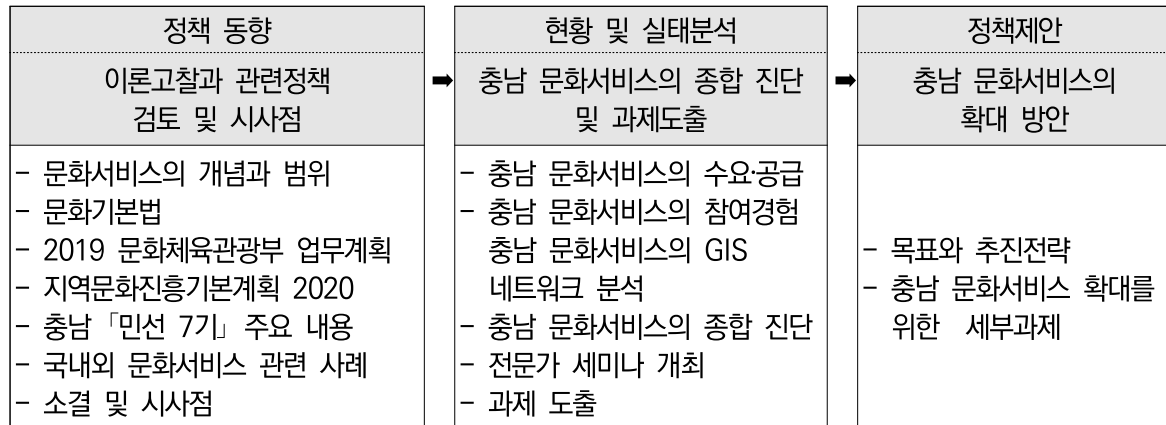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이며, 연구대상은 문화서비스 참여 경험이 있는 충남 도민으로 설정하여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계자료 분석은 최근 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중앙정부 정책 동향(관련 법률 및 2019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충남 「민선7기」 주요 내용, 국내외 문화서비스 관련 사례조사,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현황분석,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 GIS 네트워크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 및 과제 도출 등으로 하였다.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 및 참여경험, GIS 네트워크 분석, ③ 전문가 세미나 개최, ④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을 통한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문헌고찰을 통해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충남 「민선 7기」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중앙 정부 단위에서 수행한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충남 여건에 맞는 문화 서비스 현황 및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공급 및 참여경험, GIS 네트워크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수행된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 등 선행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특히 충남문화서비스의 참여경험 분석을 위한 의견조사 항목으로 ① 일반현황(개인특성, 가구특성) ② 참여현황, ③ 참여제약(욕구인식, 의사결정, 정보탐색, 접근), ④ 참여품질(핵심품질,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⑤ 서비스만족, ⑥ 정책 수요 등으로 설정하였다.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화시설 서비스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를 도출하였다.

(3)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의 일환으로 최근 문화관광 각 분야에서 이슈를 논의하는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2019년 10월 18일에 개최하였다. 충남연구원과 충남도의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는 ‘지역의 문화서비스 개선 방향’과 ‘최근 관광환경과 충남관광의 과제’에 대한 발제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세미나에는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지역의 문화서비스 개선 방향’ 관련 발제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전략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4)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을 통한 확대 방안

정책 동향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공급 및 참여경험, GIS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 등을 통해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위한 목표와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흐름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중앙정부 정책 연구, ② 지자체 관련 연구, ③ 기타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 활동조사」 등이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국민들의 여가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국민여가 활동조사」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연구는 2018년도에 수행되었으며, 조사 항목으로 일반적 속성, 여가활동 참여 실태, 평일 및 휴일 여가 활동, 여가 공간, 다양한 여가 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여가 향유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의 문화서비스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보다 많은 수요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향 설정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된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2018)」 등이 있다.

(2) 지자체 관련 연구

최근 지자체에서도 문화 향유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충남에서 「2018 충청남도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공간이용 실태와 문화관련 활동 실태(동호회, 자원봉사), 충청남도 문화이미지, 시·군별 문화 환경 만족도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 관련 충청남도의 연구로 2016년 실시된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에서는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을 공원시설, 교통시설, 보건 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설정하고, 생활인프라에 대한 도민수요와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의 인구 당 문화시설 수는 인접한 대전광역시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시설에 대한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서천군과 금산군의 문화시설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반면 천안시로부터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량이 지리적 연담화 및 편중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시·군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기타 문화서비스 관련 연구

기타 생활인프라 공급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실시되었다.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는 초기 연구인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며, 7개 생활 인프라에 대하여 시설별로 공급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광역시·도별 공급수준을 측정하였다.

(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폭 넓은 조사 연구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관점의 문화적 서비스 공급 및 수요 분석을 위한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시된 2018년도 「문화향유 실태조사」, 「국민여가 활동조사」 및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서비스 공급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민선 7기」 도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충남 도민의 공공 문화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지기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제2장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동향

1.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 문화서비스의 개념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유형의 물리적인 제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편익이나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정지은, 2015). 따라서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은 물리적인 제품과 연관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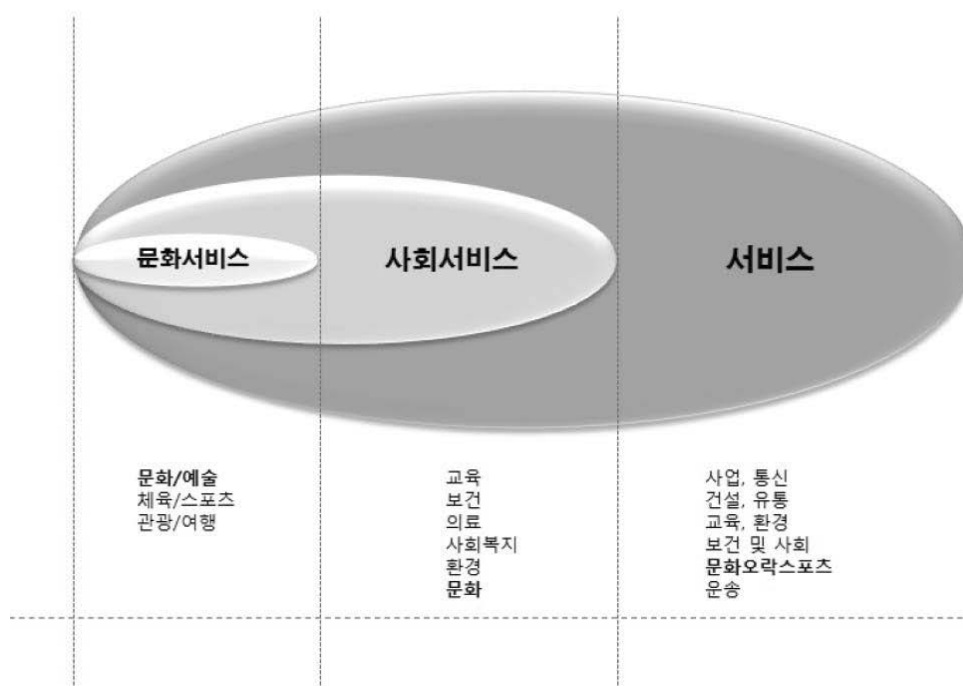
선행연구(정지은, 2015)에서는 서비스의 운영 특성을 ‘서비스 프로세스의 소비자 참여’,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 ‘소멸성의 상품’, ‘아이디어 개념인 무형적 특성’, ‘소비자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인 이질적인 특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객이 프로세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자 자신이 서비스 자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서비스는 재고를 보유할 수 없기에, 서비스의 수요예측과 제공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고객이 참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종업원의 능력,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충족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는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품질의 개념을 문화서비스에 적용하면, 문화기반시설 고객에게는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종사자에게는 문화기반시설의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이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WTO/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 따른 분류 목록에서는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금융, 환경, 보건 및 사회, 문화·오락, 스포츠, 운송 등 11개 부분을 서비스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장훈 외, 2018). 특히 선행연구(노기성, 2011)에서는 문화서비스와 연계되는 사회서비스가 체육, 오락, 환경 분야, 돌봄서비스(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서비스의 개념은 콘텐츠 측면에서 문화·예술, 체육·스포츠, 여행·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적 측면에서는 보편적 대상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장훈 외, 2018). 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의 개념은 모든 서비스 영역 중 사회의 안정망 혹은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인 사회서비스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내에서 문화서비스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2-1] 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의 개념



자료 : 장훈 외(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받는 고객(보편적 대상·취약계층 대상)에게 전달되는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전달체계(프로그램, 시설, 인력 등)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문화서비스의 범위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기반시설로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표 2-1] 국토계획법 제2조의 기반시설

구 분	세부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자료 : 오용준 외(2016),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문화서비스는 다양한 지역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종합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시설

구 분	세부시설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복지회관, 청소년활동시설
종합시설	공원시설과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그 밖의 문화시설	구분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자료 :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을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이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토대로,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는 시설 중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에서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참여경험을 검토하여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2-3] 본 연구에서 문화서비스의 범위

문화서비스 콘텐츠	문화서비스 공급주체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문화서비스 분석 영역
		시설	인력	
문화·예술 콘텐츠	공공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공급
		그 외	종사자	
	민간	민간문화시설	종사자	수요(참여경험)

자료 : 본 연구에서의 문화서비스 범위는 파란색으로 표시함

2. 중앙정부 및 충남의 정책동향

1) 근거법률 : 문화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문화기본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법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기본이념 :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명시한다.

- 제4조 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강조한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한다.

-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표 2-4] 문화기본법의 구성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2조	문화행사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2) 문화체육관광부 : 2019 업무계획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로 ‘평화’, ‘포용’, ‘공정’, ‘혁신’ 등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계획에서는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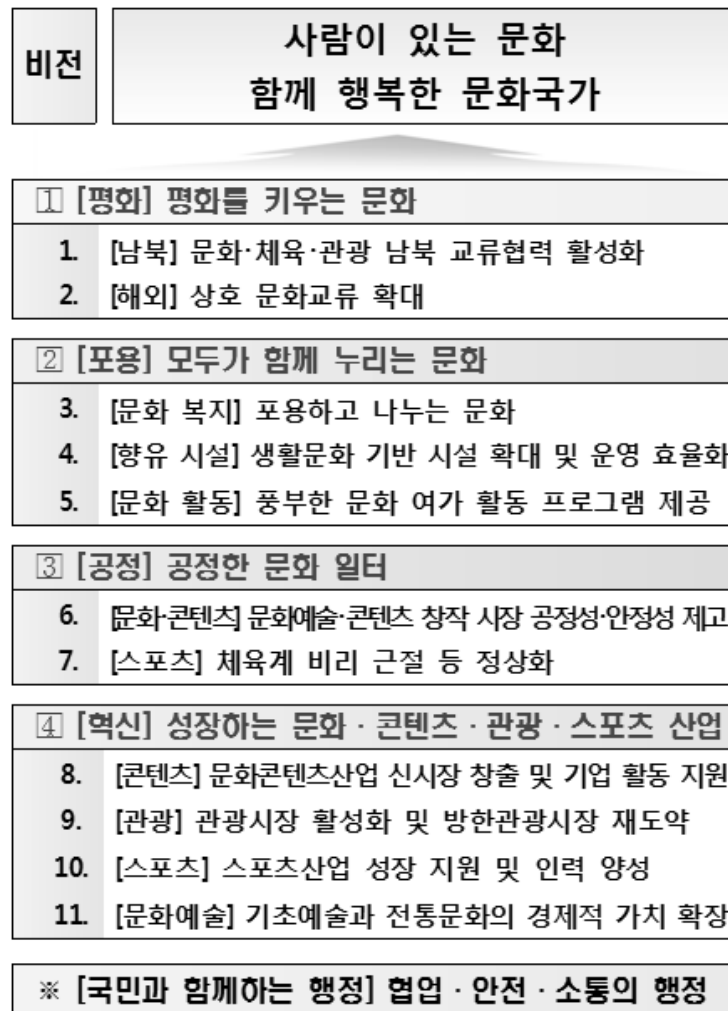
정책추진을 위해 4대 목표인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과 11개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취약계층),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 향유 여건 조성(장애인), 생활 속 기본 문화시설 대폭 확충(생활문화시설SOC), 복합화·내실화로 국민 이용 편의 향상(시설 운영 효율화), 전문 문화 분야의 특화된 시설 건립(특화 시설), 여가를 자유롭게 누리는

사회분위기 조성(여건 조성), 생활 속 문화예술체육 활동 촉진(문화·체육 활동), 읽고 생각하는 인문의 가치 확산(인문독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지역 문화향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화기반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의 체계성,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만큼 충남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2-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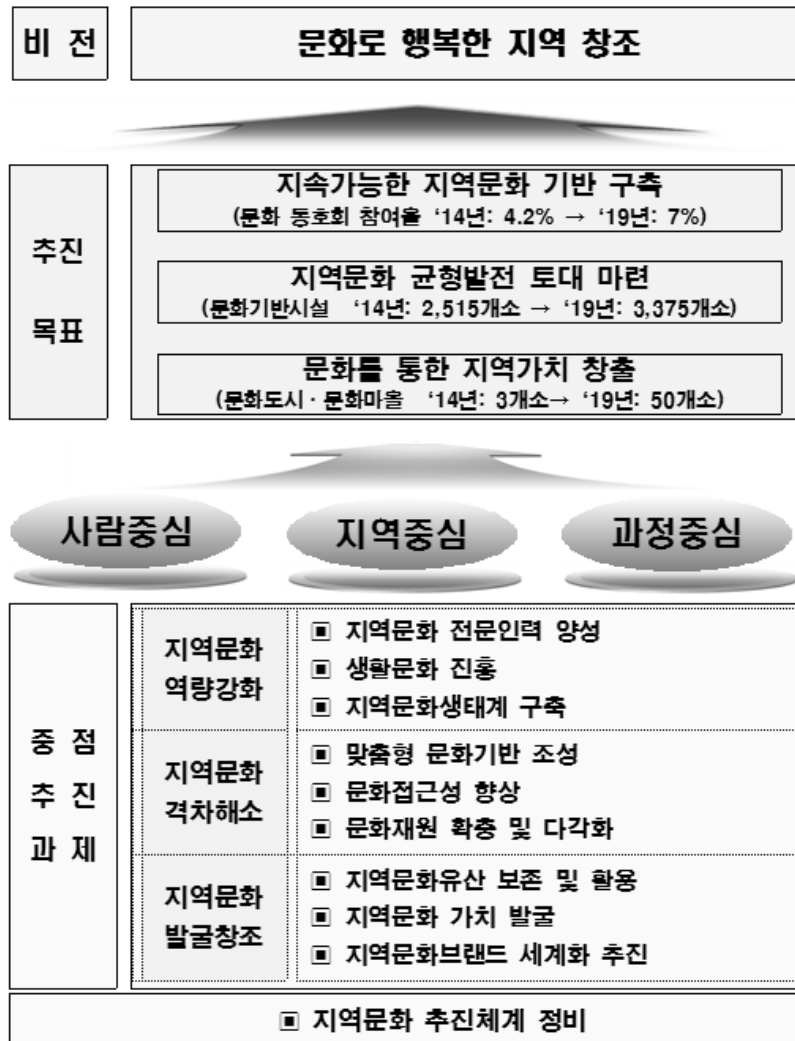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3)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2015년~2019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기초역량 부족’, ‘지역 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 ‘특화된 지역문화자원 발굴 미흡’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를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로 설정하여,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문화서비스와 관련 내용으로,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2-3]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4) 충남 「민선 7기」의 흐름과 목표

「민선7기」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의 5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며, 2019년 예산규모는 총 7조 2,646억 원으로 편성(본예산 기준)하였다.

[그림 2-4] 「민선 7기」의 비전과 5대 목표



2019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문화와 체육, 관광이 도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 연계되도록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 운영 방향을 ‘도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 지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가치 제고를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및 마케팅 전개’로 구성하였다. 2019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공약)’, ‘풍요로운 도민 삶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충남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확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 향상
 - 도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
- (충청남도(2019),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충남 정책동향과 연관된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현실과 충남도민의 문화서비스 기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3. 국내외 문화서비스 관련 사례조사

1) 해외 문화서비스 사례

(1) 덴마크 Dokk1 도서관¹⁾

① 개요

덴마크 오르후스(Aarhus)에 위치한 ‘Dokk1’도서관은 대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1) “아르떼365(2018.01.08.). 도서관, 문화예술작품이 되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도서관”과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zoe87/220845199237>)”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중 아이들이 매우 많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뛰어놀면서 문화예술 영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덴마크 ‘Dokk1’ 도서관은 거대한 놀이터가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사례이다.

② 사업내용

한국의 공공도서관 내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의 공간이 좁아서 유모차 접근이 어렵다. 하지만 덴마크 ‘Dokk1’ 도서관은 유모차를 끌고 다닐 만큼 통로가 넓고 편리하고, 어린 연령대의 유아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이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으며,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 공간도 따로 구축되어 있다.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상당히 많으며, 도서관 건물 안팎으로 아이들이 즐길만한 놀이기구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독서에 집중하는 사이, 아이들도 지루해 하지 않고 놀 수 있다. ‘Gaming Street’에는 다수의 게임시설이 있으며, ‘The Box’는 열람실 맞은편 공간이지만 마음껏 떠들어도 되도록 방음장치가 되어있다. 4~8세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공간인 ‘Children’s Lab’에서는 아이들이 단어를 가지고 놀고, 이미지를 만들고, 게임을 하거나, 오픈 워크숍이나 계획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Dokk1’ 도서관에서는 놀이를 학습이나 사회적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동급수준의 문화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많은 가족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어린이들의 학습과 경험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어린이도서관과는 달리 이곳은 보호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변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 ‘Family lounge’에서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서 게임을 하고, 보드 게임을 하며, 소리 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어른이거나 어린이 상관없이 함께 놀고 차 한 잔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도서관이 어린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거대하고 독특한 놀이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Dokk1’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건물의 1층에 경전차가 서는 트램이 설치되어 있다. 도서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도 따로 구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최첨단 자동화 주차장이 만들어져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용자는 입구에서 차를 주차시킨 후 티켓을 발급받아가면 주차 빌딩 안에서 차가 자동으로 주차되는 시스템이다. 비슷한 주차타워 시스템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Dokk1은 유럽 최대 규모이며 완전한 자동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okk1’ 도서관의 특이점은 시민 서비스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준다. 건강보험, 여권 취득, 운전면허, 주택 구입 혜택, 결혼신고, 양육 혜택, 그리고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안내도 받을 수 있다. CPR넘버(Civil Registration Number)라고 하는 덴마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지난 통계에 따르면 ‘Dokk1’을 찾는 10%의 이용자가 시민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림 2-5] 덴마크 Dokk1 도서관 전경



자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zoe87/220845199237>.

(2) 덴마크 야외민속박물관 ‘기억의 집’²⁾

① 개요

덴마크의 오르후스에 있는 민속촌 ‘올드 타운’은 16세기~ 20세기까지 덴마크 마을과 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 중 하나이다. 이 박물관에는 ‘기억의 집’이라는 특별한 전시가 있다. 1950년대를 재현한 아파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다른 민속촌의 전시와 다를 것이 없지만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노년층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② 사업내용

계단을 올라 아파트의 문 앞에 도달하여, 방문객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그때서야 아파트 안에서 1950년대 옷을 입은 여성이 반갑게 손님을 맞이한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직 손님 맞을 준비에 바빠서 그랬다며 안으로 안내한다. 전시 관람은 이렇게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1950년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극 형태로 진행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프로그램 산파인 헤닝 린드버그 박사에 의하면,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치매 환자들이 자동차로 민속촌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분 이상은 피곤해서 어려울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대성공을 이루었고, 3시간도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2012년에는 이 프로그램만을 위한 전용 전시인 ‘기억의 집’을 개관하였다.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하였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고 한다. 이 ‘회고 절정’ 이론을 기반으로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노년층이 젊은 시절을 보낸 1950년대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 ‘기억의 집’이다. 집안의 벽지, 침실에 놓여 있는 전화번호부, 의상, 부엌에 놓인 찻잔과 그릇, 커피와 다과 그리고 유행음악 등 세심한 부분까지 당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다감각적 체험을 통해 어느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과 만나게 되면서

2) “아르페365(2018.08.07.). 박물관에서 나를 만나다 치매 노인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활기를 되찾게 된다.

현재 ‘기억의 집’에서는 매일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번은 인근의 요양원 등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한 번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끝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오르후스 시에서 간호조무사 그리고 헬스 케어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오르후스대학 심리학과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치매 노인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그림 2-6] 덴마크 야외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자료 : 아르떼365(2018.08.07.). <http://arte365.kr/?p=60546>.

(3) 네델란드 아인트호벤 판압베 미술관³⁾

① 개요

참신하고 독창적인 전시 공간과 디자인 감각을 드러내는 판압베 미술관의 진정한 매력은 모든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다. 현대와 현재를 아우르는 예술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전시작품이 담긴 판압베 미술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지만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까지 포용하며 나가는 것을 표방한다.

② 사업내용

판압베 미술관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접근성에 최상의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어린이들을

3) “브런치(2016.04.20.). 장애인을 배려한 접근성이 좋은 판압베 미술관”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위한 웰컴 박스(Welcome box)에는 가위, 풀, 색상지, 색연필, 사인펜 등의 미술도구와 간단한 접기 재료 등이 있으며 관람 안내지와 작품이해를 돕는 활동지(Worksheet)가 들어있다. 박스 안의 안내대로 만들거나 미술관 이해를 돕는 활동지를 완성하여 관람 후에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아이들에게 멋진 기념품을 선물로 준다. 또한 전시실 안에 체스판이 마련되어 있고, 거꾸로 매달아 높은 자동차 안에서 편히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다.

판압배 미술관에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치도 있다. 휠체어를 타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곳곳에 있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병이나 장애 때문에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은 가정이나 속한 곳에서 로봇이 대신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작품들을 보여주고, 큐레이터의 설명을 생중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미술관 투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 투어시간이 있다.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마다 마련되어 있는 이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미술관 관람을 위한 보조기구들을 작동한다. 물론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같이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으며, 미술관 투어를 진행하는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작품에 손을 대면 미리 제작된 모작 작품을 만지고 냄새를 맡거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점자 시스템이 작동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투어시간은 매주 첫째 주 일요일 2시에 이루어지며 이때는 수화 통역이 제공된다.

[그림 2-7] 판압베 미술관 프로그램



자료 : 브런치. <https://brunch.co.kr/@neddaland/68>.

(4)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⁴⁾

① 개요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야마토방직’이라는 민간 기업이 세운 방직공장이 있던 곳을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가나자와 시가 사들여 1996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지 연구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사용 가능한 공방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한때 여공들의 일터로 많은 기억들을 간직한 방직공장 건물을 그대로 남기기로 결정했고, 유휴공간의 재사용 목적은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정으로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예술촌이 탄생하였다.

② 사업내용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총 네 개의 공방과 오픈스페이스, ‘마을 산의 집’이 있고,

4) “예술경영웹진(2014.10.30.). 연중무휴 24시간 예술을 창조하는 곳 [해외동향]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야마토 광장’에는 ‘퍼포밍 스퀘어’가 있다. ‘퍼포밍 스퀘어’는 대연습실과 소연습실 두개가 있어, 연극음악무용 등 개인부터 대규모 그룹 공연 팀까지 연습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랜드 피아노, 발레 바, 각종 무대 및 음향 장비 등이 준비되어 있다. 공방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멀티 공방, 드라마 공방, 뮤직 공방, 아트 공방으로 나뉜다. 먼저 멀티 공방에서는 연극과 음악 등의 연습이 이루어지거나 미술품도 전시할 수 있다. 드라마 공방은 연극 공연을 할 수 있으며 객석을 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뮤직 공방에는 발표회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중앙 스튜디오와 다섯 개의 작은 스튜디오가 있다. 아트공방은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장르나 작가의 연령을 묻지 않고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전시를 할 수 있다. 그 외 구성 되어있는 오픈 스페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며, 옛 농가를 변형시킨 ‘마을 산의 집’은 일본 전통 가옥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공간으로 예술 창작 활동과 전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공방에는 디렉터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시민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4년 10월에는 퍼포밍 스퀘어에서 제42회 교카 문학상이 개최되어 무료로 관람객들을 맞이했고, 뮤직공방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뮤직공방과 자주 트레이닝 음향 강좌 2014’라는 프로그램으로 5,000엔의 수강료를 받고 음향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에서 기획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 밖에도 공연과 강연, 전시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예술촌과 함께 ‘가나자와 직인 대학교’라는 교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자와가 자랑하던 전통 공예 9개의 전문 본과를 만들어 금속공예, 정원 조성, 기와, 다다미, 표구, 창호 공예, 미장이, 목공, 석공예를 가르치는 곳이다.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다. 전공자뿐 아니라 어린이 과정도 마련되어 있어, 마을의 장인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그림 2-8]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공방



자료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 <https://www.artvillage.gr.jp/>.

2) 국내 문화서비스 사례

(1)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⁵⁾

①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Culture Discovery Box)’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문화,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앞으로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길러주고, 실물자료와 오감체험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다문화 체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타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자료를 하나의 전시 상자로 구성하여 제작하고, 박물관 자체 교육 및 각 학교, 박물관, 다문화 관련 기관 등 원하는 기관에 다문화꾸러미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②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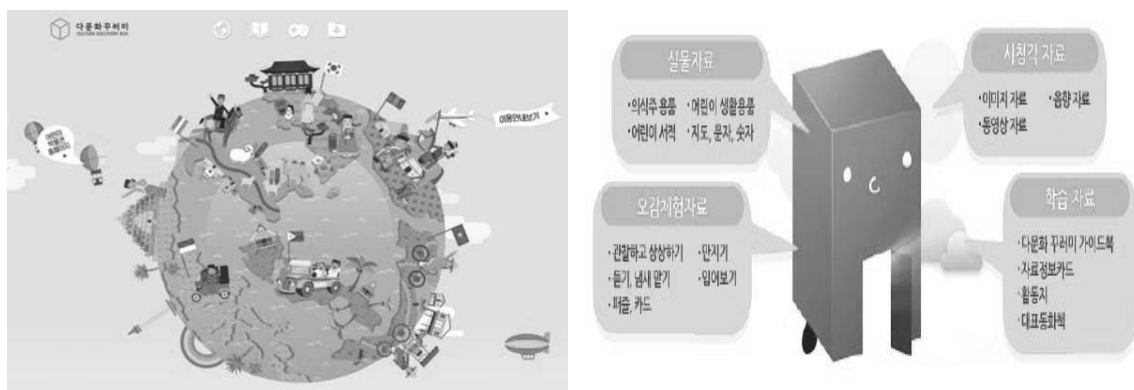
다문화꾸러미는 문화다양성 체험을 통해 공존을 배우는 움직이는 박물관이다. 다문화 꾸러미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5) “조아영(2019).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연구 :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한다. 본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차 년도인 2010년에는 베트남 꾸러미와 몽골 꾸러미, 2011년도에는 필리핀 꾸러미가 개발되었으며, 다수의 외국인과 결혼이주자의 출신지를 우선 선정하였다. 2012년도에는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대한민국 꾸러미를 개발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축적된 민속, 생활사 연구 및 전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 자료들로 전시상자를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꾸러미,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꾸러미, 2015년에는 중국 꾸러미를 개발하였다. 각 꾸러미는 해당 국가의 화폐, 의복, 엽서, 지도, 서적, 교재, 교육활동지, 동화책과 시청각자료로 구성되어, 타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꾸러미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언어, 자연환경, 의식주와 생활, 명절과 신앙, 놀이와 악기 등을 오감 체험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한국 문화와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9] 다문화꾸러미 프로그램



자료 : 다문화꾸러미 홈페이지. <https://www.artvillage.gr.jp/>.

(2) 예술의 전당 ‘롯데백화점 키즈 라운지’⁶⁾

① 개요

예술의전당은 1996년 개관 때부터 문화시설 내 보육 공간으로 ‘어린이 나라’를 운영해왔다. 2010년 롯데 기업의 후원을 통해 ‘키즈 라운지’로 이름을 바꿔 더욱 전문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때문에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는 일을 방지하여,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공연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즈 라운지’는 ‘서예관’에서 ‘오페라극장’으로 확장 이동하며 더 많은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② 사업내용

키즈 라운지 내에는 전문교사 3명이 상주하며, 교사와 함께 놀이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테마존, 도서존, 시청각존, 병원놀이존, 수면실이 갖춰져 있고 간식이용도 가능하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장난감을 구비하여 가지고 놀 수 있으며, 동화책 읽기, 인형극, 미술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알록달록 파스텔톤 동화 속 어린이나라’라는 문구로 안내되는 만큼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생긴 ‘키즈카페’와 유사한 시설로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떨어지는 시간에 대해 두려움을 주지 않고,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여 아이에게도 하나의 좋은 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공연시작 30분 전부터 관람객이 아이 모두를 데려갈 때까지 운영한다. 이용 가능 연령은 3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님은 입장 불가능하며 사진촬영도 금지되어 있다. 이용방법은 따로 예약 시스템 필요 없이 당일 관람하는 공연 티켓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연 시작 30분전에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의 공연 관람객만 이용 가능하며, 전시 관람객이나 방문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http://www.sac.or.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그림 2-10]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와 수유실



자료 :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http://www.sac.or.kr/>.

(3) 전주 시민놀이터⁷⁾

① 개요

2013년 3월 30일에 개관한 전주시민놀이터는 말 그대로 전주 시민의, 전주 시민에 의한, 전주 시민을 위한 놀이터이다. ‘생활예술의 거점 공간’인 전주 시민 놀이터는 낮 이든 밤이든 시민이 원할 때, 미술 음악 모든 분야를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개방을 통해 자율 이용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전주시민놀이터를 만든 추진단은 전주 시민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과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② 사업내용

전주 시민놀이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주시 내 3,000여 개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파악하고,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본래 학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세분화하는 형태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놀이터’라 불리는 1층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마주치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떠들 공간’이다. 전주시민놀이터에서 가장 큰 공간이기에 다양한 발표회와 행사가 열린다. ‘배려공간’이라는 이름의 장애인을 위한 연습실도 갖추고 있는데, 이 공간은 가끔 갤러리로 변신하기도 한다.

‘소리놀이터’라 부르는 2층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음악 연습실

7) “예술경영웹진(2014.10.30.). 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는 시민들 [이.상.공간] 전주동문예술거리 전주시민놀이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이 7개가 있다. 전수 조사에서 전주시 내 3,000여 개의 동아리 중 60% 이상이 음악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이다. 만약 피아노나 드럼처럼 가지고 다니기 힘든 대형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면, 특정 연습실에 악기를 가져다 놓고 장기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자신이 연습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시민이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창작놀이터’라 불리는 3층에는 마루가 깔린 다목적 연습장 ‘모듬 공간’과 크고 작은 세미나실 4개가 자리하고 있다. ‘모듬 공간’에서는 주로 춤이나 모임이 이루어지며 세미나실은 사진작가 혹은 미술작가나 동아리에게 인기가 있다.

좋은 복지를 원한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혜택에 대한 대가로 시민들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상근 직원이 없는 밤 시간대에는 대관 신청자가 직접 문을 열고 닫으며 소등까지 책임진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주시민놀이터에는 복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용자가 문단속이나 소등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향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주시민놀이터 내 15개 공간을 이용하려면 연회비 5,000~10,000원, 3시간 기준 대관료 6,000원~36,000원만 내면 된다. 연습실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예약을 1주일에 2일로 제한하고, 예약은 한 달 전에 받고 있다.

[그림 2-11] 전주 시민놀이터 프로그램



자료 : 예술경영웹진(2014.10.30.). 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는 시민들 [이.상.공간] 전주동문예술거리 전주시민놀이터.

(4) 충남 금산 지구별 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⁸⁾

① 개요

금산 지구별 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은 0세부터 100세까지 3대가 함께 책을 읽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마을이다.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그림책을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점과 갤러리, 북스테이 등을 결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은 자연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림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② 사업내용

우리나라 최초 그림책 마을에 위치한 금산 지구별 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취향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에 따라 낙점반 도서관, 행복한도서관, 그림책 버스, 서유당과 명상정원, 책 읽는 메타길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낙점반도서관은 유석중의 시에 이영경 작가가 그린 ‘낙 점 반’에서 따온 이름으로, 무엇인가에 훌쩍 빠져 고개를 드니 낙 점 반(네 시 반) 이라는 재미있는 스토리처럼 그림책과 함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지향한다.

낙점반 도서관을 지나 지하 1층으로 가면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깔의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행복한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온 아이들은 휴대폰과 컴퓨터는 잠시 내려놓고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스레 그림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법 같은 공간이다. 책을 읽다가 지치면 도서관 앞 숲에 위치한 그림책 버스로 향할 수 있다. 그림책 버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버스를 노란 빛깔을 칠해 개조한 것으로 아이들은 작지만 큰 책 버스를 타고 우주로, 세계로 꿈을 키우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 전북 고창군 도안면에 있는 110년 된 한옥을 그대로

8)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옹겨 조성한 ‘서유당’이다. 고즈넉한 한옥 마루에 앉아 그림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고요히 생각에 잠겨보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서유당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네 개의 방은 북스테이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책마을을 잠깐 둘러보고 가기 아쉽다면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원 없이 책도 읽을 수 있는 금산 지구별 그림책마을은 엄마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충남의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림 2-12] 금산지구별책마을 작은도서관 전경



자료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main/index>.

4.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2018년 7월 이후로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강조되면서 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펼쳐졌다. 늘어난 여가 시간과 취미 시간에 발맞춰 LG아트센터와 예술의 전당에서는 공연 시간을 8시에서 7시 30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많은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았거나, 이를 위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운영 시간이 확립되지 않은 분위기다. 또한 이를 위해 운영 시간을 저녁 또는 밤으로 옮기고 확대하였을 때, 문화기반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들의 저녁의 삶, 워라밸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충남 「민선7기」 중요 내용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저출산과 고령사회이다. 국내외 미술관과 도서관에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를 거쳐 재취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사례로 종로에 위치한 탑골미술관의 ‘시니어도슨트’ 교육을 들 수 있다. 충남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재취업뿐만 아니라 충남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박물관에서 ‘식물 심기 프로그램’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일상에 무기력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노인 인구와 치매 인구를 박물관으로 유입하거나, 치매 노인들이 연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치료에 도움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남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문화예술 대책 마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즐길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나, 아이들을 두고 어머니가 즐길 수 있는 즉 기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시간, 운영 방안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국내 문화서비스 사례에서 살펴본 예술의전당의 ‘키즈 라운지’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교사들이 상주하여 전문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등 어린 자녀들 때문에 보고 싶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가는 공공도서관도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장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시설과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을 통한 브랜드 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충남의 많은 문화기반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 맞춤형 문화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하고, 공공의 성격을 가진 문화기반시설이 고급스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향상과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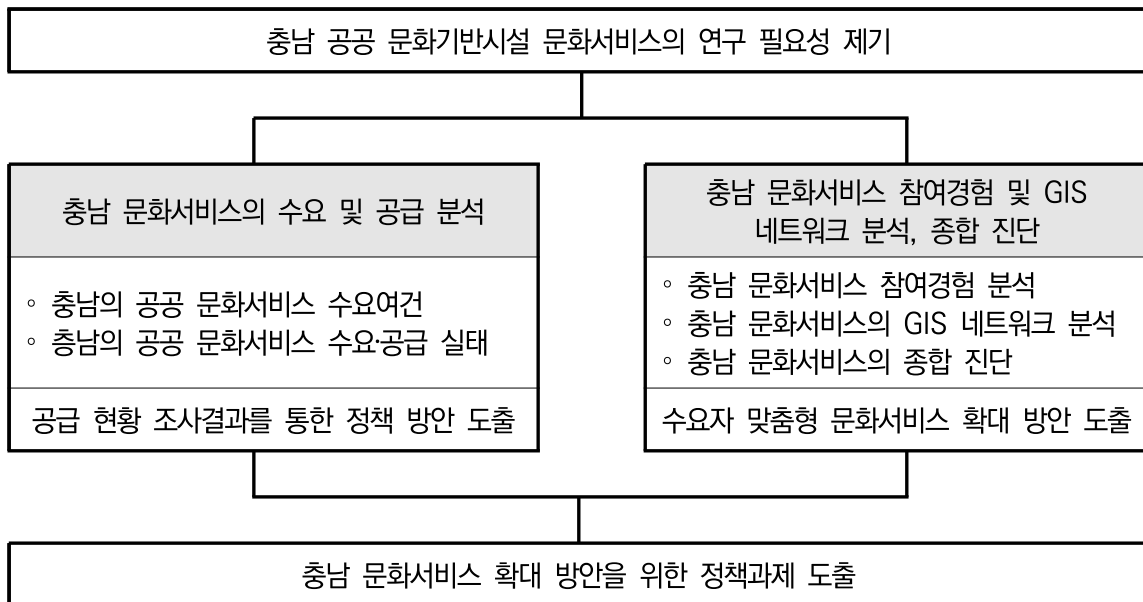
제3장 충남 문화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문화서비스 관련 제도 및 추진정책, 국내외 문화서비스 사례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시하는 3장의 연구 틀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틀은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 등을 통해 충남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하였다.

[그림 3-1] 분석의 틀



2.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분석⁹⁾

1) 충남의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여건

(1) 충남의 인구·가구 구조

①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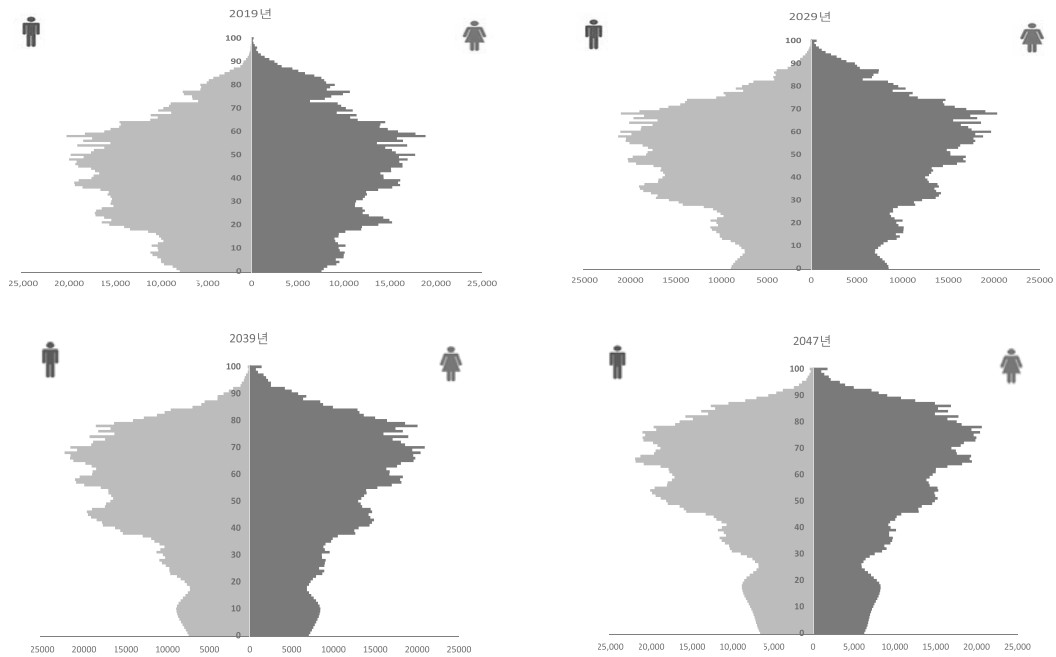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소득, 시간 등은 문화서비스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묶이는 요인들은 개인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문화서비스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여가시간은 모든 수요의 토대가 되어 개인적으로 시간의 많고 적음은 문화서비스 참여 확률과 연결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화서비스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민간을 포함한 공급이 풍부한 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서비스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가지는 구조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보다 확장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수요 여건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는 수요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 된다. 인구구조, 가구구조, 1인 가구의 비율,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 등은 기존의 개인적인 수요 여건과는 다른 도전과제를 던지게 된다. 따라서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계층의 변화, 수요계층의 요구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국내 인구변화 양상은 향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연결되는데, 충남도는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서비스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문화서비스의 미래 방향 무엇인지, 둘째는 고령인구에 한 문화서비스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장훈 외(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그림 3-2] 충남의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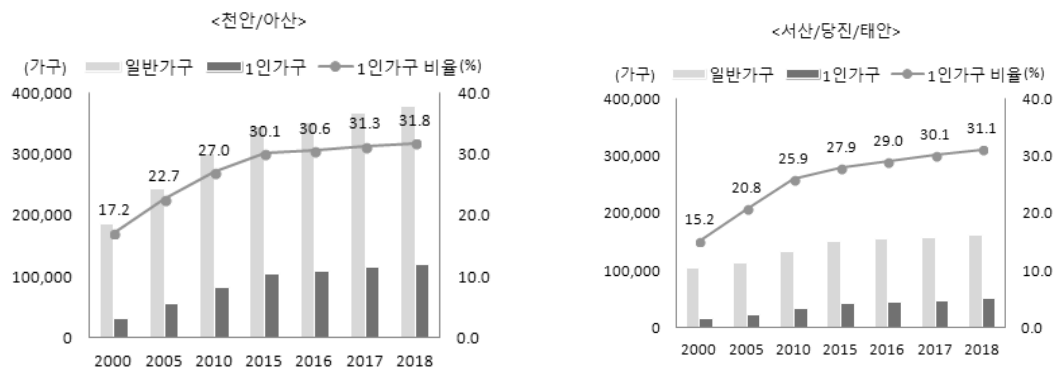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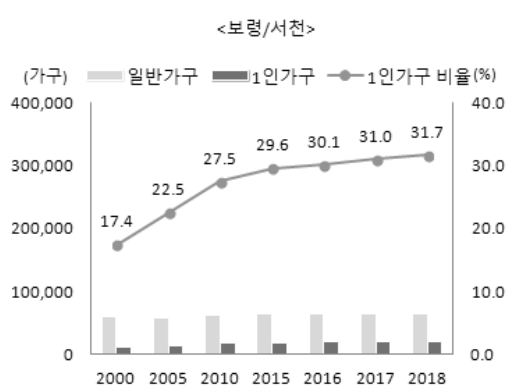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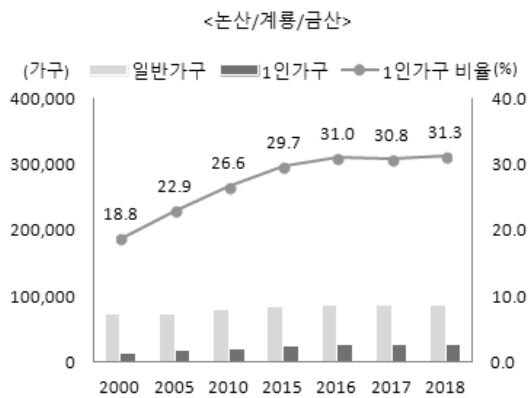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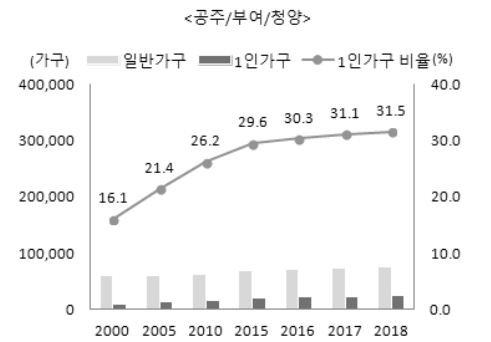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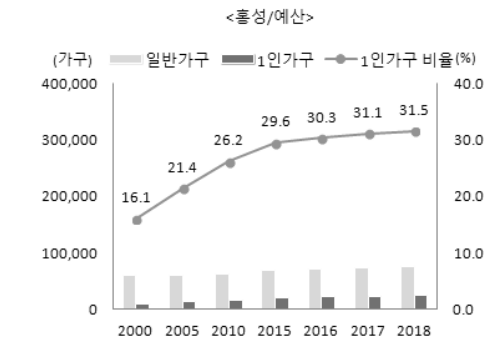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9). 장래추계인구 2017~2047년.

② 충남의 가구구조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구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구 등 가구 환경으로 인해 또 다른 문화서비스 욕구,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8%로, 현재 가장 흔한 가구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충남의 연도별 1인 가구 규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2) 수요욕구 구조

① 문화서비스 필요도

다양한 서비스 선택지에서 상대적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서비스의 상대적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에서 다양한 기본 복지서비스 중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문화서비스의 필요도가 4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도뿐 아니라 실제 이용률에서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외하면 문화생활 참여와 향유,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서비스’ 이용률이 8.3%로 상담, 재활, 성인 돌봄, 아동 돌봄, 교육, 주거, 환경서비스 등 기본적인 욕구들과 관련된 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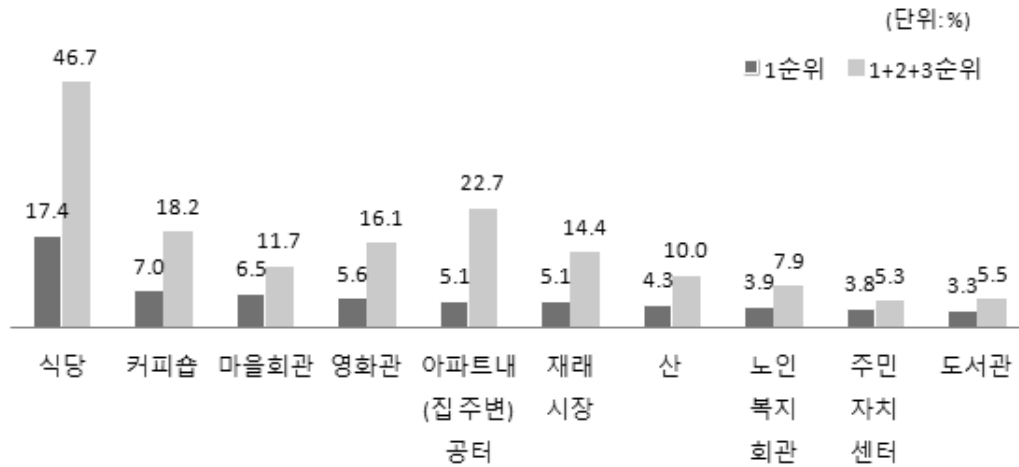
서비스 유형	서비스 필요도1)	서비스 이용률2)
상담서비스	30.2	5.6
재활서비스	26.2	4.2
성인돌봄서비스	34.0	5.5
아동돌봄서비스	22.7	6.7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52.8	11.3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34.9	5.4
고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38.1	9.5
주거서비스	25.7	2.8
문화서비스	40.5	8.3
환경서비스	31.9	4.0

주 : 1) 각 영역별 필요성을 의미함 2) 각 영역별 이용률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② 충남의 여가문화서비스 필요도

최근 소확행 트렌드 이전부터 생활권 중심의 소소한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충남도민이 집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은 식당(17.4%), 커피숍(7.0%), 마을회관(6.5%), 영화관(5.6%), 집주변공터(5.1%)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공급은 생활권으로부터 유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생활권 공간중심으로 문화서비스가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림 3-4] 충남의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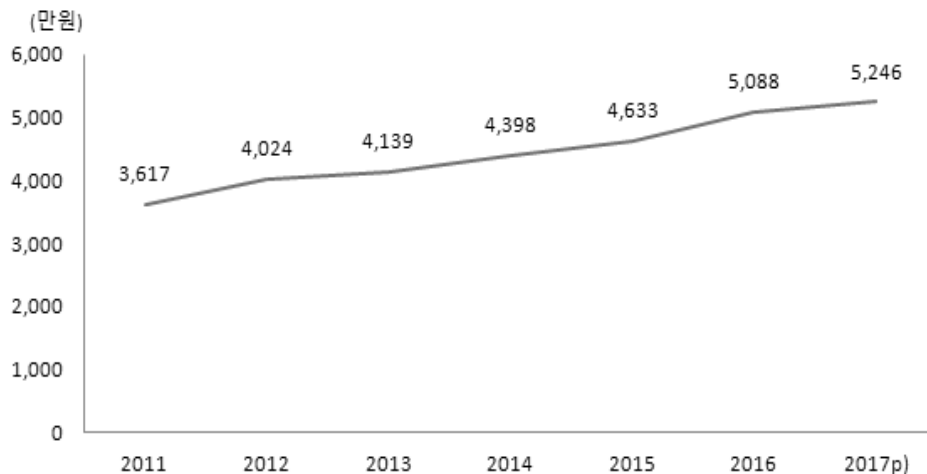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3) 경제 구조

① 충남의 가구소득

충남의 가구소득(경상소득)은 2011년 361만원에서 2017년 524만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2775달러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3-5] 충남의 가구소득(경상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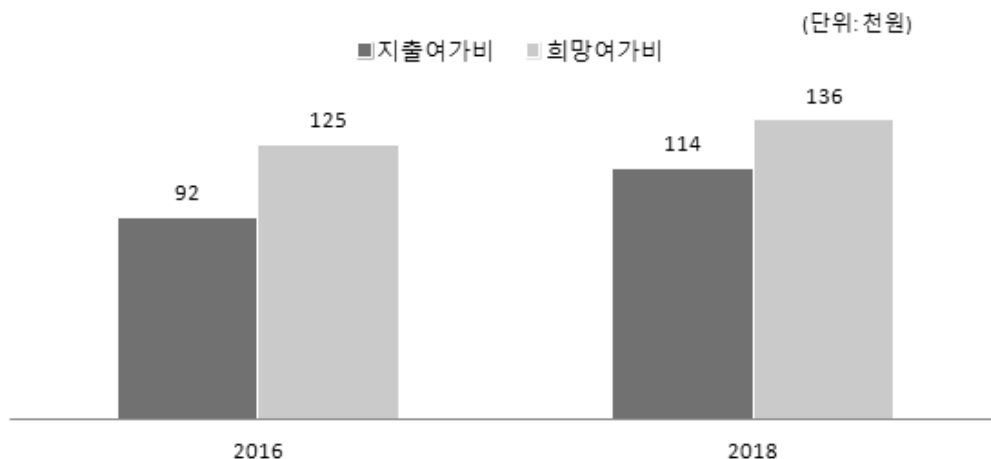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② 충남의 문화여가비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여가비의 가계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민의 여가비 지출현황은 2016년 9만 2천원에서 2018년에는 11만 4천원으로 약 123%로 증가하였고, 희망 여가비 대비 지출여가비의 격차는 2016년 3만 3천원에서 2018년 2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6] 충남의 여가비 지출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 충남의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1)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

①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은 총 160개소이다. 이중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이 각각 59개소, 52개소로 가장 많고, 문예회관(18개소)과 지방문화원(16개소) 순으로 많다.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천안(27개소)이고, 다음으로 공주와 아산(각각 17개소), 당진, 금산, 예산(각각 12개소), 보령(11개소) 순으로 많다. 반면 보유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계룡(4개소), 서천과 청양(각각 5개소)이다.

[표 3-2] 충남의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수(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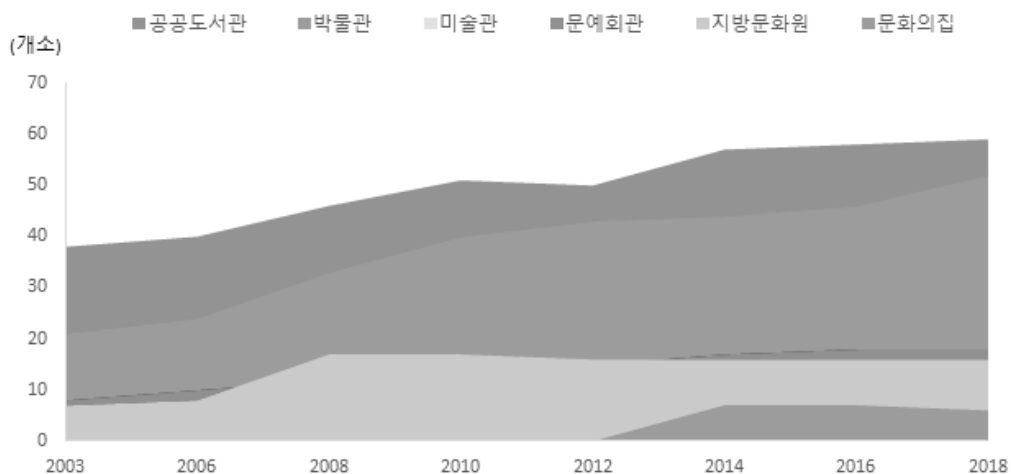
시·군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충남	160	59	40	19	52	31	17	4	9	2	7	-	18	16	6
지자체 평균	10.7	3.9	2.7	1.3	3.5	2.1	1.1	0.3	0.6	0.1	0.5	-	1.2	1.0	0.4
천안시	27	10	7	3	9	5	3	1	2	1	1	-	3	3	-
공주시	17	4	2	2	9	4	3	2	1	-	1	-	1	1	1
보령시	11	5	3	2	2	2	-	-	1	-	1	-	1	1	1
아산시	17	7	6	1	7	3	3	1	1	-	1	-	1	1	-
서산시	7	5	3	2	-	-	-	-	-	-	-	-	1	1	-
논산시	7	3	2	1	1	1	-	-	1	-	1	-	1	1	-
계룡시	4	2	2	-	-	-	-	-	-	-	-	-	1	-	1
당진시	12	4	3	1	4	3	1	-	1	-	1	-	1	1	1
금산군	12	5	4	1	3	2	1	-	-	-	-	-	1	1	2
부여군	8	2	1	1	4	4	-	-	-	-	-	-	1	1	-
서천군	5	2	1	1	1	1	-	-	-	-	-	-	1	1	-
청양군	5	2	1	1	1	1	-	-	-	-	-	-	1	1	-
홍성군	8	2	1	1	3	2	1	-	1	1	-	-	1	1	-
예산군	12	3	2	1	5	1	4	-	1	-	1	-	2	1	-
태안군	8	3	2	1	3	2	1	-	-	-	-	-	1	1	-

② 충남의 총 문화기반시설 누적량

2018년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누적량은 160개소이다. 이는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시작된 2003년 77개소 대비 107%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문화기반시설 중 시설의 하드웨어적 고유성이 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의 누적 공급량은 138개소, 2003년

70개소 대비 99% 증가하였다. 문화기반시설별로는 도서관 59개소, 박물관 52개소, 미술관 9개소, 문예회관 18개소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중 시설의 하드웨어적 고유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문화원(16개소), 문화의 집(6개소)의 누적 공급량은 22개소로, 2003년 7개소 대비 약 300% 증가하였다.

[그림 3-7]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누적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3-3]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누적량(단위: 개소)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국립도서관	-	-	-	-	-	-	-	-
공공도서관	38	40	46	51	50	57	58	59
박물관	21	24	33	40	43	44	46	52
미술관	3	4	5	6	8	8	9	9
문예회관	8	10	12	15	15	17	18	18
지방문화원	7	8	17	17	16	16	16	16
문화의집	0	0	0	0	0	7	7	6
계	77	86	113	129	132	149	154	16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③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 현황

시간가용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별로 운영 현황을 구분하였다. 박물관의 연간 개관일수는 국립 310.2일, 공립 317.6일, 사립 275.2일, 대학 252.5일이고, 운영시간은 국립 9시간, 공립 8시간, 사립과 대학은 각각 7시간이다. 미술관의 연간 개관일수는 공립 257.5일, 사립 326.5일이다. 문화의 집은 평일에는 10.8시간 운영, 주말에는 12시간 운영하는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예회관 18개소의 총 공연일수는 1,551일이고 평균 공연일수는 86.2일이다. 또한 14개의 전시장에서의 총 전시일수는 1,362일이고, 평균 전시일수는 97.3일이다.

[표 3-4]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

구분		연개관일수 (일)	개관시간	폐관시간	운영시간 (시간)	비고
박물관 (52개소)	국립	310.2	-	-	9	
	공립	317.6	-	-	8	
	사립	275.2	-	-	7	
	대학	252.5	-	-	7	
미술관 (9개소)	공립	257.5	-	-	-	
	사립	326.5	-	-	-	
문화의 집 (6개소)	평일	-	9:20 (평균)	19:50 (평균)	10.8	공휴일 휴관
	주말	-	9:20 (평균)	21:00 (평균)	12	일요일 휴관
문예회관 (18개소)	총 공연일수	공연장수	평균 공연일수	총 전시일수	전시장수	평균 전시일수
	1,551	18	86.2	1,362	14	97.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④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제공 프로그램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의 성격에 상관없이 체험 프로그램이나 강좌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핵심콘텐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도 많은 기획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총 3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중 정기 체험 프로그램이 199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미술관의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기획·특별전이 연 78회, 강좌프로그램이 총 78개 운영되었다.

[표 3-5]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제공 프로그램

구분		기획/특별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총계 (총)	강좌 프로그램 (총)	체험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총)
					정기 프로그램	비정기 프로그램	
박물관 (52개소)	국립	연 10회	80	29	26	23	2
	공립	연 20회	31	71	55	30	8
	사립	연 40회	215	23	115	76	8
	대학	연 2회	8	2	3	1	2
	총계	연 72회	334	125	199	130	20
미술관 (9개소)	공립	7	-	29	-	-	-
	사립	71	-	49	-	-	-
	총계	78	-	78	-	-	-
문화의 집 (6개소)	프로그램 총 수	프로그램				동아리현황	
		상설프로그램		비상설프로그램		동아리수	총회원수
		프로그램수	이용자수	프로그램수	이용자수		
	137	88	46,180	49	12,560	47	9,06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격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가격이 일률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다. 다만 충남 문예회관 이용자수와 유료 관객 수 조사 결과로 추론해보면, 유료 관객률은 25.6%다.

[표 3-6] 충남 문예회관 유료 관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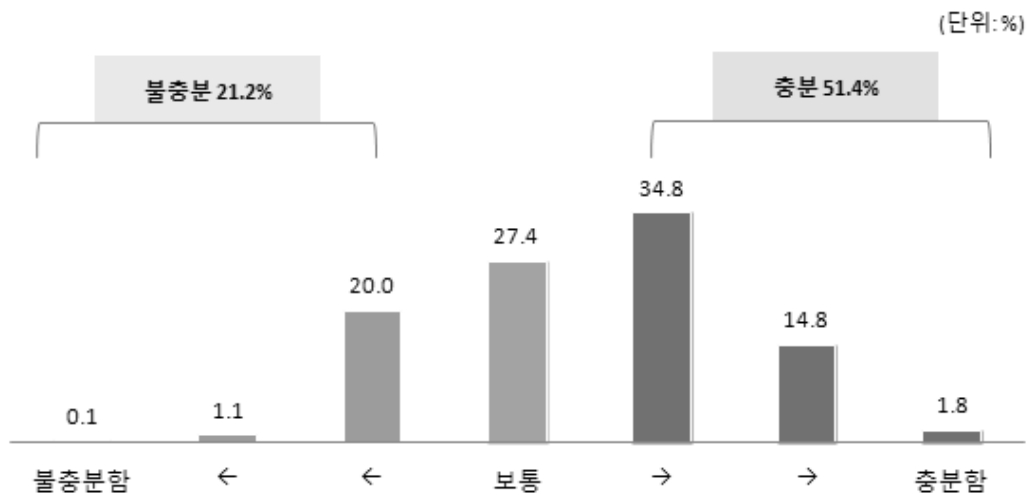
문예회관 수	총 이용자 수	유료관객 수	유료 관객률
18개소	1,110,465명	283,687명	25.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⑥ 충남의 공공문화여가시설 충분도

2018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충남도민들은 현재 문화시설 공급에 대해 충분하다는 51.4%이고, 불충분하다는 21.2%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문화기반시설의 불충분한 공급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충남의 공공문화여가시설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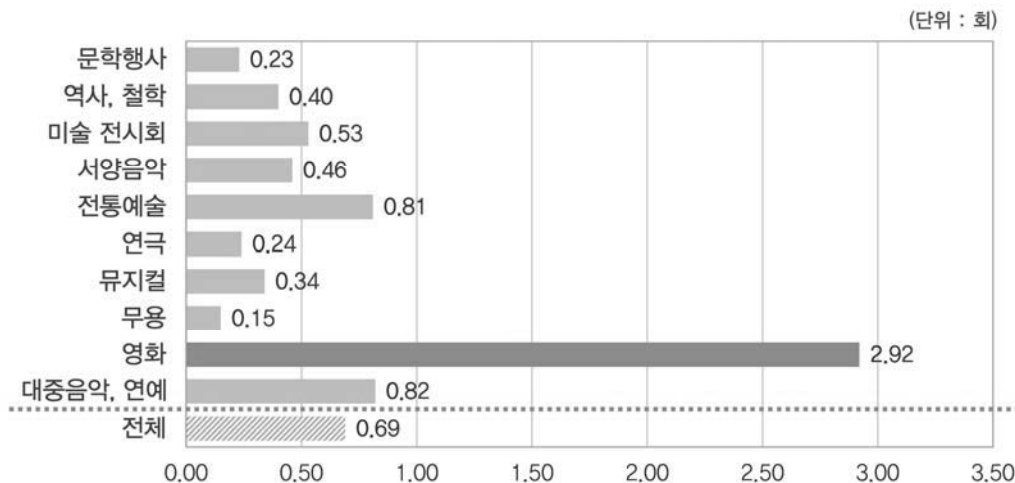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 충남 문화서비스 이용실태¹⁰⁾

①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충남도민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0.69회로, 도민 1인당 연간 1회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르별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영화’가 2.92회로 가장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화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연간관람횟수가 1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다음으로 관람횟수가 높게 나타난 장르는 ‘대중음악, 연예’ 0.82회, ‘전통예술’ 0.81회, ‘미술전시회’ 0.53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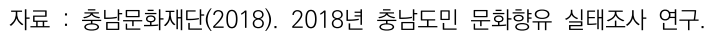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②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는 평점 5.96점으로 ‘만족’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장르별 만족도는 “대중음악, 연예”가 6.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 6.13점, “전통예술” 5.98점, “문학행사” 5.89점의 순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장르는 “연극” 5.70점, “문학행사”와 “미술전시회”가 5.7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박철희 외(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단위 : 점)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시간을 주간 단위로 보면 ‘주말’ 69.0%, ‘주중’ 31.0%로 나타났으며, 시간 단위로는 ‘주말’의 ‘낮’ 시간(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 donut chart illustrating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across three categories: Weekday Nighttime (9.2%), Weekday Evening (21.8%), and Weekend Daytime (52.2%). The chart is divided into three segments of varying shades of gray, with the largest segment representing Weekend Daytime.

Category	Percentage
주중 낮 시간 (Weekday Nighttime)	9.2
주중 저녁 시간 (Weekday Evening)	21.8
주말 낮 시간 (Weekend Daytime)	52.2

50 _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현황 및 확대 방안

④ 충남의 문화예술행사 보완

충남의 문화예술행사 우선 보완점으로는 ‘관람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22.1%,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20.9%,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19.2%,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충남의 문화예술행사 보완점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⑤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선택기준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선택기준으로는 ‘관람 비용 적절성’ 22.4%, ‘문화 예술행사 내용 및 수준’ 20.6%, ‘참가자 유명도’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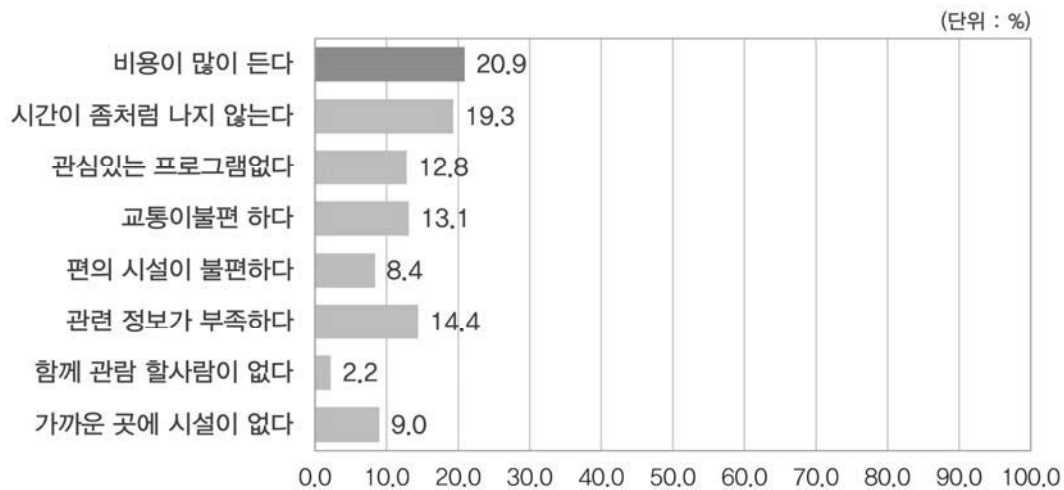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⑥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충남 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음’ 19.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4.4%의 순으로 드러났다.

[그림 3-14]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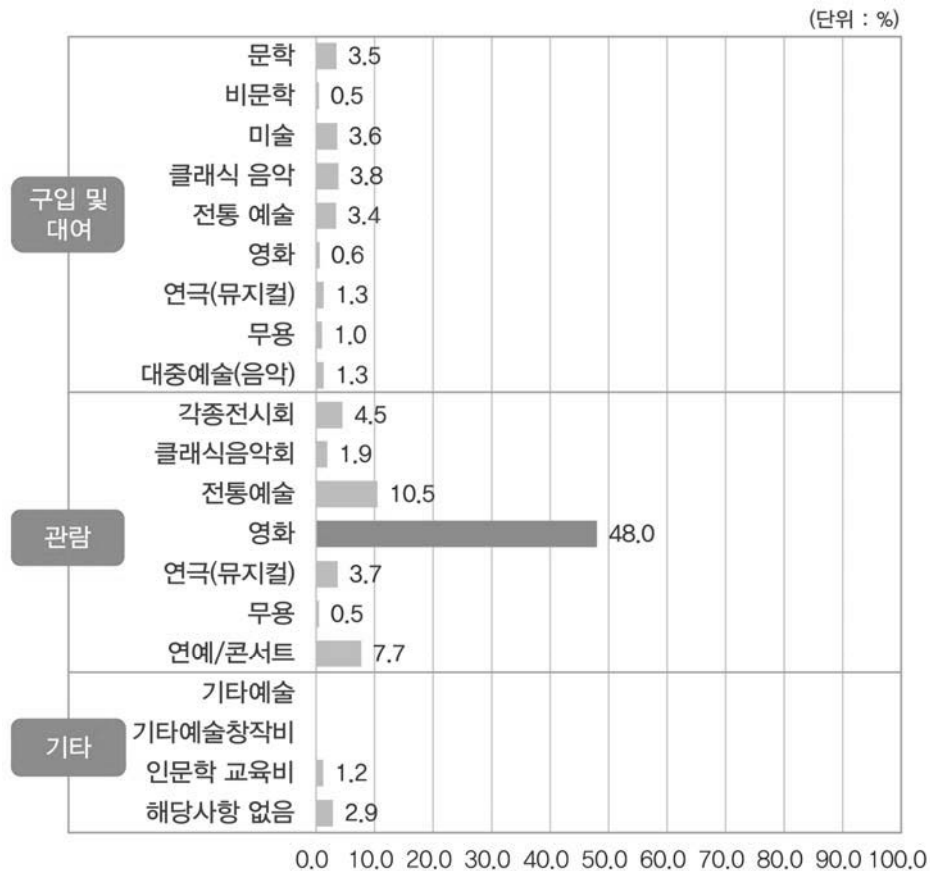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⑦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

충남도민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관람’의 비중이 높고, ‘구입 및 대여’, ‘기타’ 순으로 드러났으며, 문화예술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관람(48.0%)’, ‘전통예술(10.5%)’, ‘연예/콘서트(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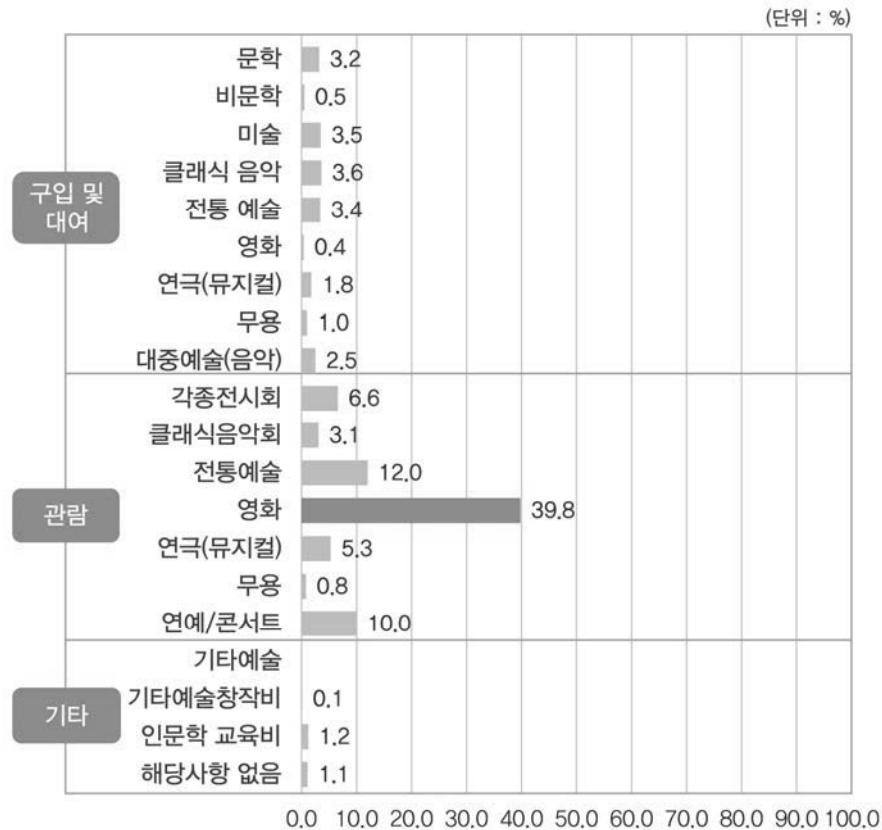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⑧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충남도민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향후 가장 많이 지출을 늘리고 싶은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지출과 동일하게 ‘관람’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구입 및 대여’, ‘기타’ 순으로 지출을 늘리기를 희망하였다.

문화예술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관람(39.8%)’, ‘전통예술(12.0%)’, ‘연예/콘서트(10.0%)’ 순으로 나타나 현재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16]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련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1순위)



자료 : 충남문화재단(2018). 2018년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3.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분석

1)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조사개요

본 조사는 충남 도민이 문화서비스 참여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남도서관, 국립공주박물관,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방문객을 각각 50명씩으로 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7] 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현황	개인특성	- 인구통계학적변수(연령, 성별, 직업, 소득 등) - 거주지역
	가구특성	- 가구유형(돌봄대상, 생애주기) - 맞벌이 여부
참여현황		- 문화서비스시설 이용여부 - 이동수단 - 이동소요시간 - 방문빈도
참여제약	욕구인식	- 문화서비스 욕구 -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의사결정	- 향유 여건(시간, 비용, 역량)
	정보탐색	- 정보획득의 용이성
	접근	- 시설 충분성 - 접근 용이성
참여품질	핵심품질	- 핵심 서비스 품질(수준, 충분, 맞춤) - 서비스 시간 가용성 - 서비스 유용성
	상호작용품질	- 서비스 평판 - 서비스 이용 편의성 - 서비스 유연성 - 서비스 형평성 - 서비스 인력 전문성
	환경 품질	- 서비스 공간 쾌적성 - 연계 서비스 가용성(동반, 주차, 휴게, 식음료 등)
서비스만족		- 서비스 만족
정책수요		- 문화서비스 제공방식 - 문화서비스 지불의사 - 문화서비스 확대 동의 - 문화서비스 우선 대상

2)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용시설은 총 4곳(201건)으로 충남 도서관 50명(24.9%), 국립공주박물관 51명(25.4%),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50명(24.9%),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50명(24.9%)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20명(59.7%)으로 남성 81명(40.3%)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40대 81명(40.3%), 30대 73명(36.3%), 20대 19명(9.5%), 10대 13명(6.5%), 50대 11명(5.5%), 60대 4명(2.0%) 순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은 유 집단이 159명(79.1%)으로 경제활동 무 집단 42명(20.9%)보다 많았다. 가구 구성원 중 영유아(만 5세 이하)가 있는 경우가 32명(15.9%), 노인(만65세 이상)이 있는 경우가 30명(14.9%), 아동(만 6세~만 17세 이하)이 있는 경우가 115명(57.2%),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7명(3.5%)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구·통계학적 특성(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중
전체			201	100.0
이용시설	충남도서관		50	24.9
	국립공주박물관		51	25.4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50	24.9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50	24.9
성별	남성		81	40.3
	여성		120	59.7
연령	10대		13	6.5
	20대		19	9.5
	30대		73	36.3
	40대		81	40.3
	50대		11	5.5
	60대		4	2.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	22.4
	300만원~500만원 미만		69	34.3
	500만원~700만원 미만		61	30.3
	700만원 이상		26	12.9
경제활동	경제활동 유		159	79.1
	경제활동 무		42	20.9
가구 구성원	영유아	있음	32	15.9
		없음	169	84.1
	노인	있음	30	14.9
		없음	171	85.1
	아동	있음	115	57.2
		없음	86	42.8
	등록 장애인	있음	7	3.5
		없음	194	96.5

3)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현황

(1) 문화서비스 시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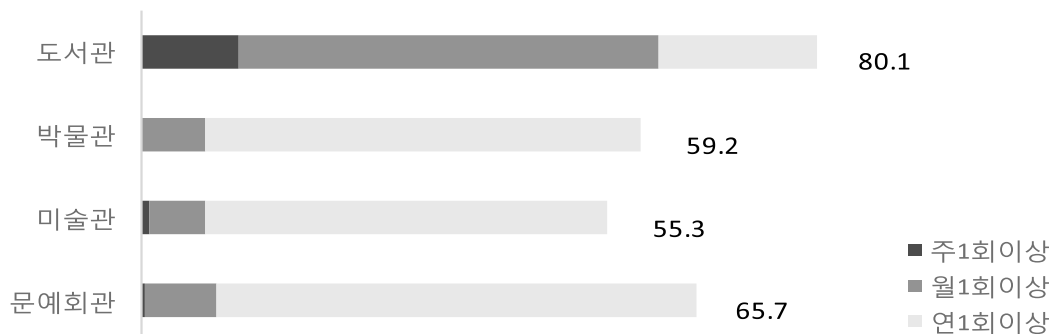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문화서비스 이용현황은 4개 종류의 공공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9]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률 및 이용빈도(단위: 명, %)

구분	이용경험 유				이용경험 무	
	계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방문유무(총계)						
도서관	161	(80.1)	23	100	38	40 (19.9)
박물관	119	(59.2)	-	15	104	82 (40.8)
미술관	111	(55.2)	2	13	96	90 (44.8)
문예회관	132	(65.7)	1	17	114	69 (34.3)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도서관이 80.1%로 가장 높았고 문예회관(65.7%), 박물관(59.2%), 미술관(5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시설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도서관은 주 1회 이상(11.4%), 월 1회 이상(49.7%)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연 1회 이상 이용 빈도가 있는 시설 중에는 문예회관(56.7%), 박물관(5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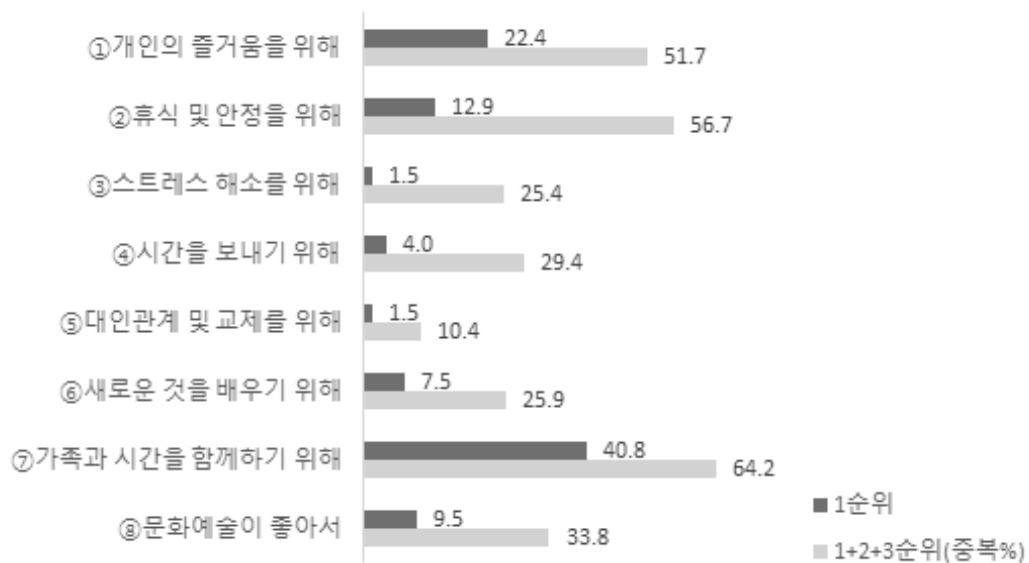
[그림 3-17]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률 및 이용 빈도



(2) 문화서비스 시설 이용 목적

문화서비스시설 방문 목적은 1순위 기준으로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가 40.8%로 가장 높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22.4%)’, ‘휴식 및 안정을 위해(12.9%)’, ‘문화예술이 좋아서(9.5%)’ 등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고, ‘휴식 및 안정을 위해(56.7%)’,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5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문화서비스시설 방문 목적



(3) 문화서비스 이동 수단 및 소요 시간

문화서비스 시설 접근에 이용하는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알아본 결과, 시설 접근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된 문화서비스 시설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1.3분으로 나타났고, 도서관(17.7분)의 이동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단위: %, 분)

구분	사례수	이동수단					이동소요시간 (편도)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버스, 전철 등)	기관차량 (셔틀)	자전거/ 오토바이	
도서관	161	14.3	77.0	7.5	-	1.2	17.7
박물관	119	3.4	79.0	16.8	0.8	-	55.5
미술관	111	0.9	80.2	13.5	5.4	-	49.9
문예회관	132	4.5	76.5	18.9	-	-	42.4

4)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제약

(1) 욕구인식 단계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는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점 이상이었고, 긍정 응답(조금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문화여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6%, 지속적으로 문화여가생활을 하고 싶다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3.6%, 여건이 허락하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항목이 81.6%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82.2%의 사람들이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여가가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다 (①+②+③)	보통 (④)	그렇다 (⑤+⑥+⑦)	7점 평균	100점 평균
내 삶에 문화여가생활은 필요하다	8.0	10.4	81.6	6.0	85.4
나는 지속적으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고 싶다	5.5	10.9	83.6	6.1	86.9
여건이 허락하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싶다	12.9	5.5	81.6	6.2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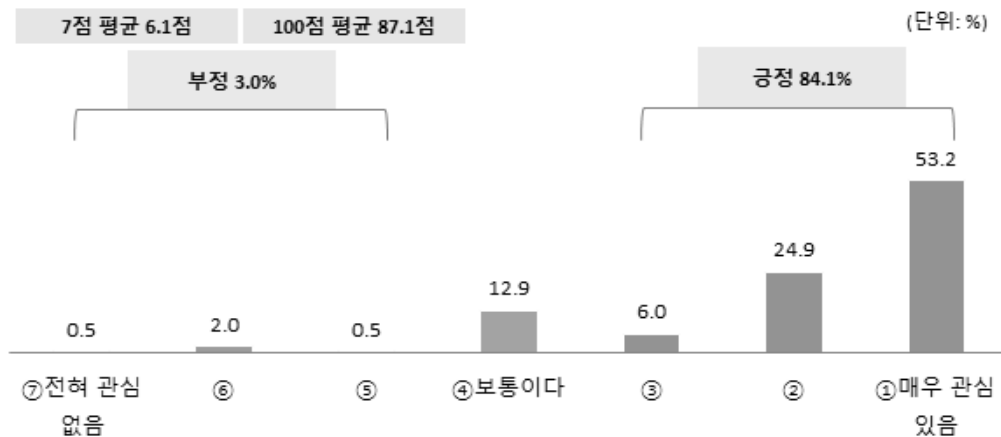
(2) 의사결정 단계

① 공공문화서비스 프로그램 관심도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과 비슷하게 공공 문화서비스에 대한 관심도(87.1점)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보통 미만의 관심도를 보인 사람은 전체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보통 초과 관심도를 보인 응답은 84.1%로 나타났다.

[그림 3-19] 공공 문화서비스 관심도



② 공공문화서비스 이미지

직관적으로 느끼는 공공 문화서비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 대비 과반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도움이 되는(70.1%)’과 ‘깨끗한’, ‘편안한(각 67.2%)’이었고, 부정 평가 항목 중에서 높은 수준의 부정 인식이 나타난 항목은 ‘멀리 있는(13.9%)’, ‘진부한(11.9%)’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2] 공공 문화서비스 이미지(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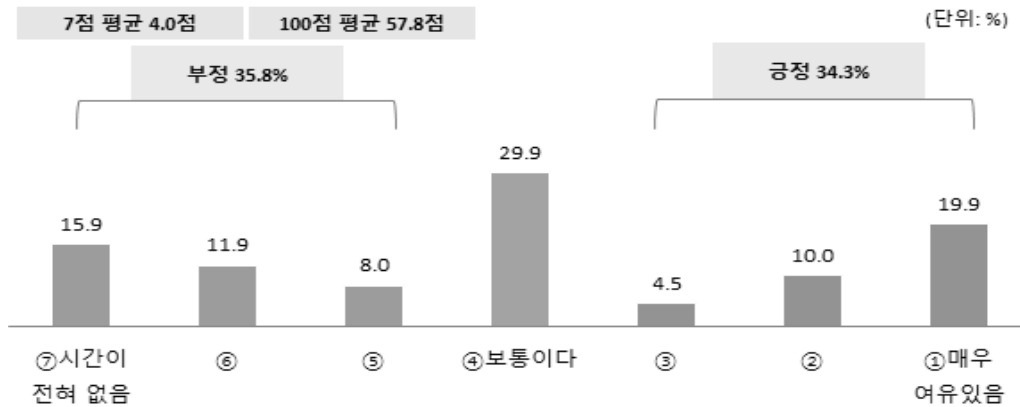
긍정평가		부정평가		보통
유쾌한	60.7	불쾌한	3.0	36.3
친숙한	59.7	어색한	5.5	34.8
혁신적인	46.8	진부한	11.9	41.3
민감한	44.8	둔감한	7.0	48.3
깨끗한	67.2	불결한	5.0	27.9
편안한	67.2	불편한	5.5	27.4
도움이 되는	70.1	도움이 안 되는	6.5	23.4
공정한	61.7	불공정한	6.0	32.3
가까운	56.7	멀리있는	13.9	29.4
열려있는	61.2	닫혀있는	9.0	29.9
품질좋은	63.7	품질나쁜	7.5	28.9

(3) 문화서비스 향유 여건

① 시간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 부족(35.8%)’이 ‘시간 여유(34.3%)’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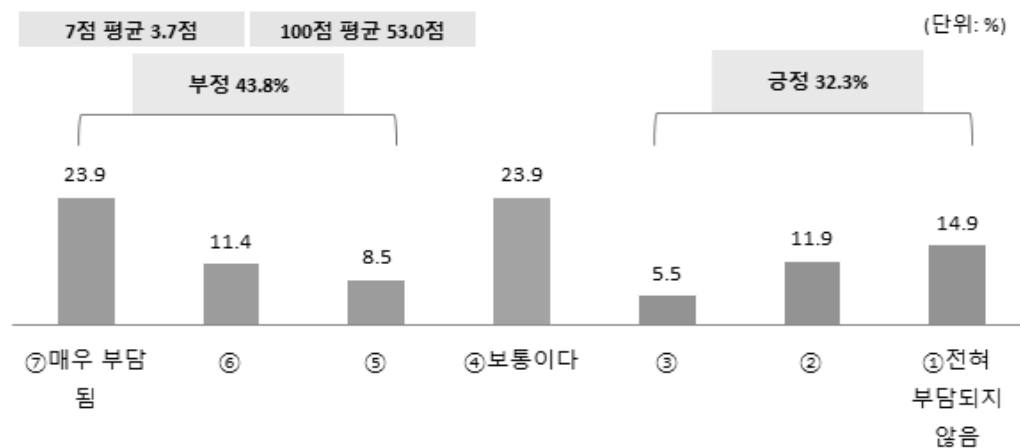
[그림 3-20]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



② 비용

문화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부담됨(43.8%)’이 ‘부담되지 않음(32.3%)’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역량, 기타여건 등을 포함한 개인적 여건 측면에서 가장 큰 제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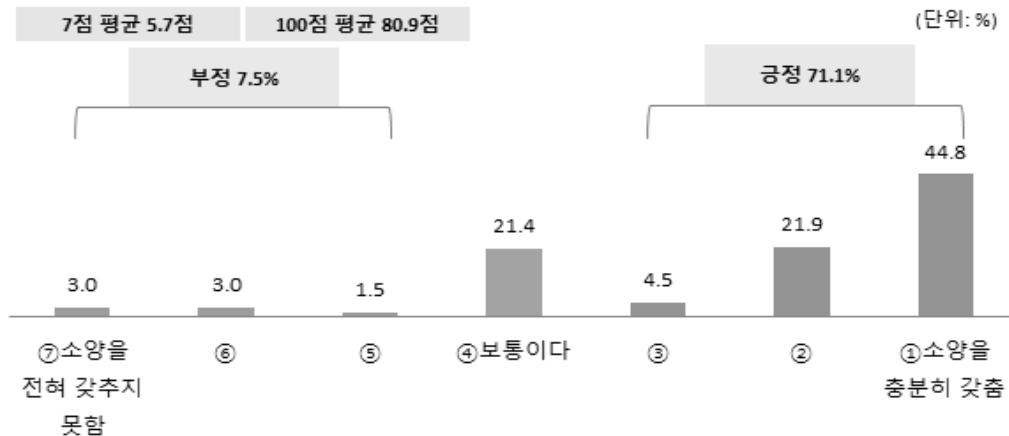
[그림 3-21] 문화서비스 비용부담



③ 역량

문화서비스 이용 역량에 대해서는 ‘역량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1%로, ‘역량 부족(7.5%)’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향유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인데, 도민 스스로 문화적 역량을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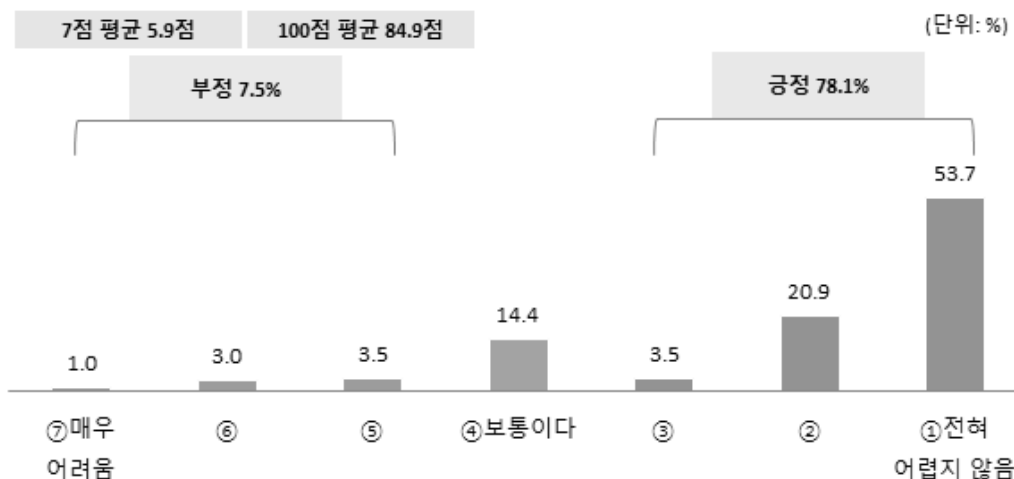
[그림 3-22] 문화서비스 이용 역량



④ 기타 여건(신체적 여건 등)

신체적 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른 문화서비스 시설 이용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78.1%, ‘어렵다’는 응답이 7.5%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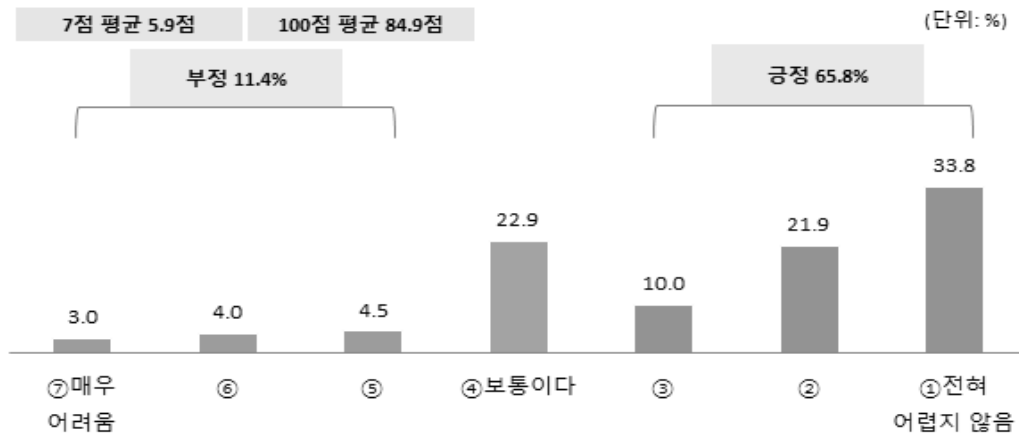
[그림 3-23] 문화서비스 이용 기타 여건(신체적 제약 등)



(4) 정보탐색 단계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획득의 용이성에 대해 살펴보면, ‘용이함(65.8%)’이 ‘용이하지 않음(11.4%)’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문화서비스 정보 획득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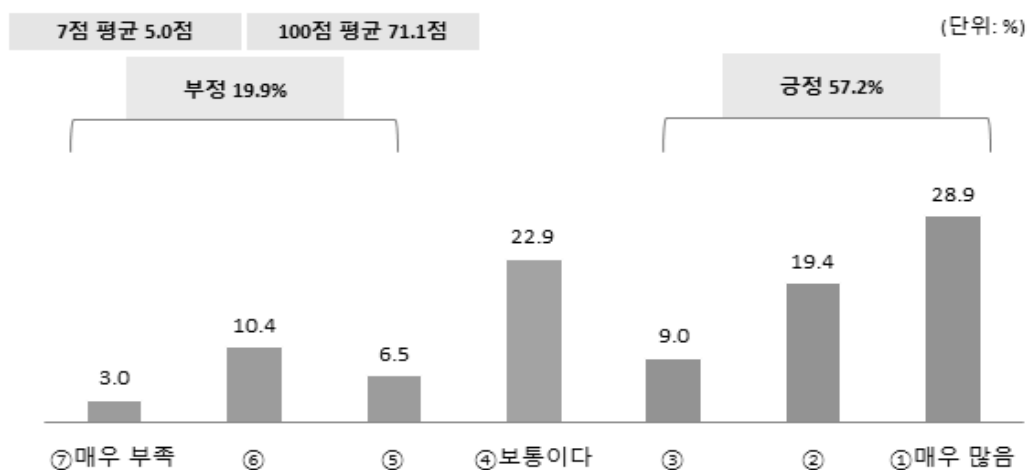


(5) 서비스접근 단계

① 시설의 충분성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변 문화서비스 시설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부족(많은 편+매우 많음)하다는 응답이 57.2%로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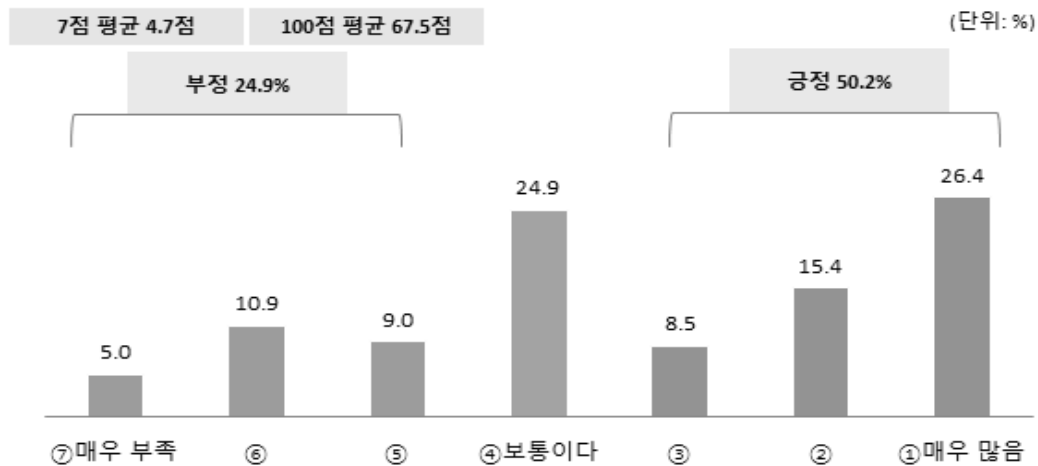
[그림 3-25] 문화서비스 시설 수의 적정성 인식



② 접근의 용이성

문화서비스 시설의 접근 용이성에 대해 살펴보면, 용이하다(50.2%)가 용의하지 않다(24.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문화서비스 시설의 접근 용이성



5)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품질

(1) 핵심 품질

① 서비스 프로그램 수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 중 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해 만족도는 35.3%로 나타났으며, 반면 불만족 비율은 다른 서비스 품질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서비스 충분도, 취향 일치도, 시간일치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만큼 문화서비스를 제공(30.8%)받고 있으며, 취향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29.9%)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32.8%)받을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3개의 문항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높아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서비스 유익성

서비스의 유익성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56.2%)하고 있었는데, 공익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사람(61.7%)이 공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핵심 품질(단위: %, 점)

구분	문항	그렇지 않다 (①+②+③)	보통 (④)	그렇다 (⑤+⑥+⑦)	7점 평균
수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2.4	52.2	35.3	4.4
충분	원하는 만큼(횟수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3.4	45.8	30.8	4.1
취향일치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콘텐츠)을 제공하고 있다	21.4	48.8	29.9	4.1
시간일치	원하는 시간에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6.4	40.8	32.8	4.1
유익성	제공받은 문화서비스는 나에게 유익하다	10.0	33.8	56.2	4.9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8.5	29.9	61.7	5.0

(2) 상호작용 품질

① 서비스 평판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상호작용 결과이기도 하고, 서비스 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평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다(59.7%)’는 인식이 과반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서비스 이용 편의성

서비스 이용 방법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 비율이 52.2%로 부정응답 비율 9.5%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③ 서비스 유연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성은 만족도

(43.3%)가 높았으나, 불만족한 사람들도 많은 영역이었다. 서비스 유연성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15.4%로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중 불만족 수준 1순위 영역이었다. 공공 영역의 대부분의 경우 규정에 입각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④ 서비스 공정성

서비스 공정성의 문제는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하는지 여부에서는 만족도(47.8%)는 높고 불만족도(8.0%)가 낮았지만,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만족도(39.3%)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도는 12.4%로 상호작용 품질 중 불만족 수준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참여과정에 안에 있는 사람에 공정성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문화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측면에서 공정성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⑤ 서비스 인력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 인력의 상호작용 친절도와 전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서비스 인력의 친절도(50.7%)와 전문성(45.8%)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4] 상호작용 품질(단위: %, 점)

구분	문항	그렇지 않다 (①+②+③)	보통 (④)	그렇다 (⑤+⑥+⑦)	7점 평균
평판	주변의 평판이 좋다	6.0	34.3	59.7	5.0
이용편의성	이용방법(과정)이 편리하다	9.5	38.3	52.2	4.7
유연성	이용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15.4	41.3	43.3	4.4
공정성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8.0	44.3	47.8	4.7
	모두(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에게 서비스(시설)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4	48.3	39.3	4.4
인력	직원들은 친절하다	12.4	36.8	50.7	4.7
	직원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1.9	42.3	45.8	4.6

(3) 환경적 품질

① 접근 편의성

단순한 물리적 거리와 구분되는 서비스 접근 편의성은 입지와 주차시설로 나누어 보았는데, 대중교통 등 교통을 고려한 입지(44.8%), 자가용 이용의 편리성(48.8%) 영역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② 공간 쾌적성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 공간의 쾌적성은 6.0% 정도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59.2%로 과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

③ 부가 서비스 가용성

부가 편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휴식 공간의 충분성(7.5%)은 불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식음료 공간(10.9%), 자녀동반 편리성(12.9%) 등 복합 욕구(욕구+욕구)와 관련된 영역의 불만족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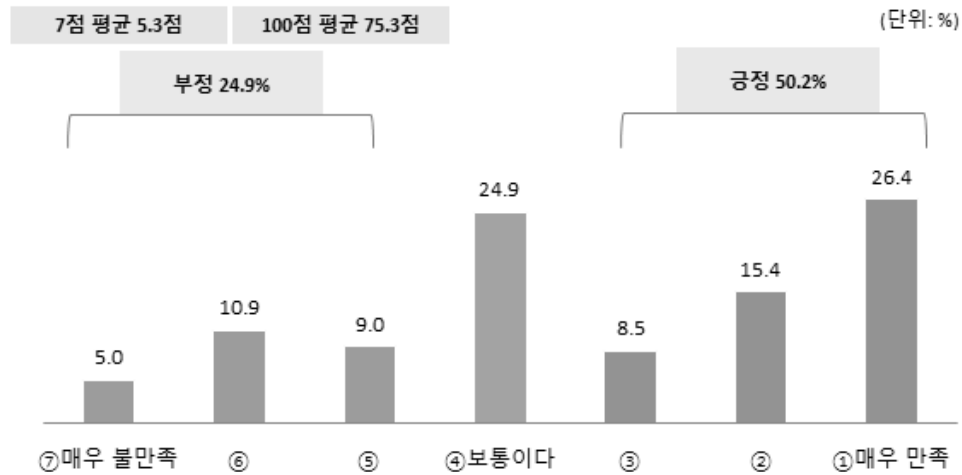
[표 3-15] 환경적 품질(단위: %, 점)

구분	문항	그렇지 않다 (①+②+③)	보통 (④)	그렇다 (⑤+⑥+⑦)	7점 평균
접근 편의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15.4	39.8	44.8	4.5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다	11.9	39.3	48.8	4.8
쾌적성	시설(공간)은 쾌적하게 여유 있다	6.0	34.8	59.2	5.1
부가 서비스 가용성	편안하고, 휴게 및 휴식 공간이 충분하다	7.5	41.3	51.2	4.8
	식음료 공간(매점, 카페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	10.9	46.3	42.8	4.5
	자녀를 동반하기에 적절하다(모유시설, 어린이 공간 등)	12.9	36.8	50.2	4.6

④ 서비스 전반적 만족

핵심품질, 상호작용 품질, 환경 품질 전반을 고려하고, 세 가지 품질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을 고려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50.2%로 과반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문화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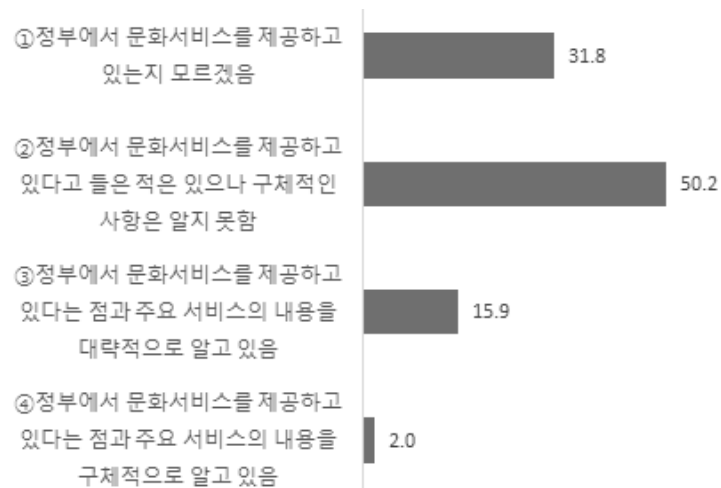


6) 충남 문화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견

(1) 문화서비스 인지

공공 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은,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31.8%,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은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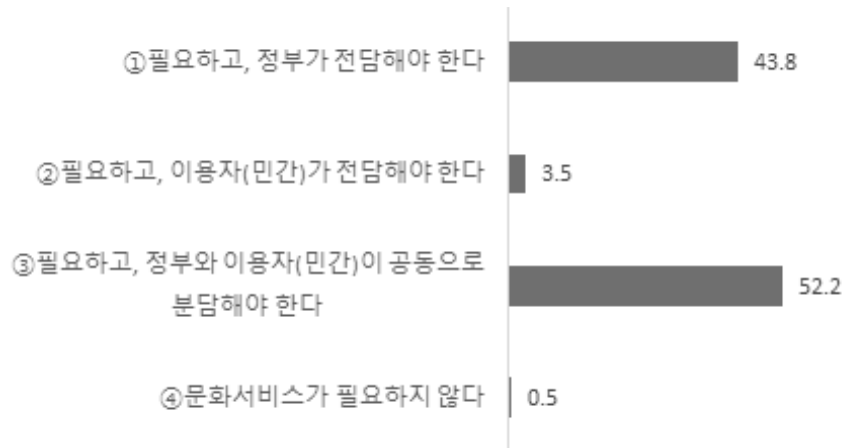
[그림 3-28] 공공 문화서비스 인지(단위 : %)



(2)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가 전담(43.8%)’, ‘민간이 전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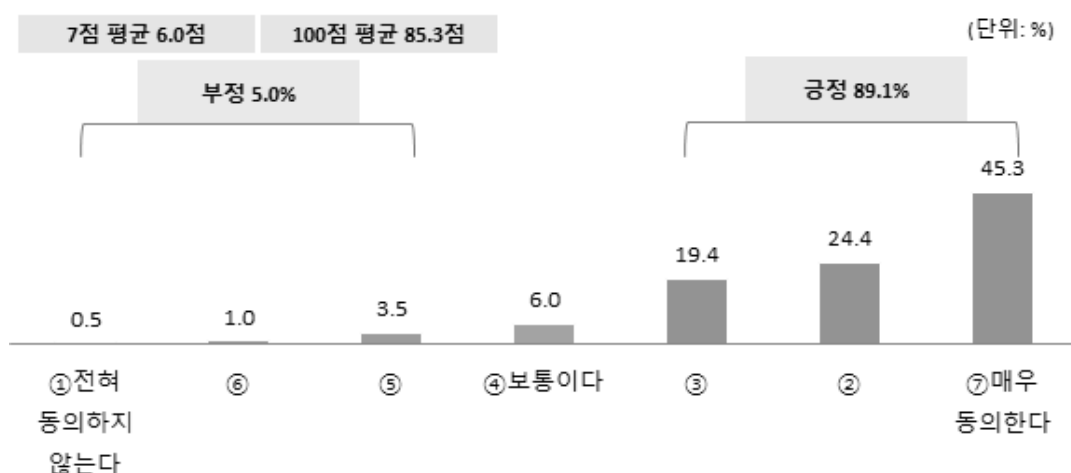
[그림 3-29]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단위 : %)



(3) 공공 문화서비스 확대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으로 문화서비스를 확충해야한다는 응답은 89.1%로, 확충이 불필요하다(5.0%)는 응답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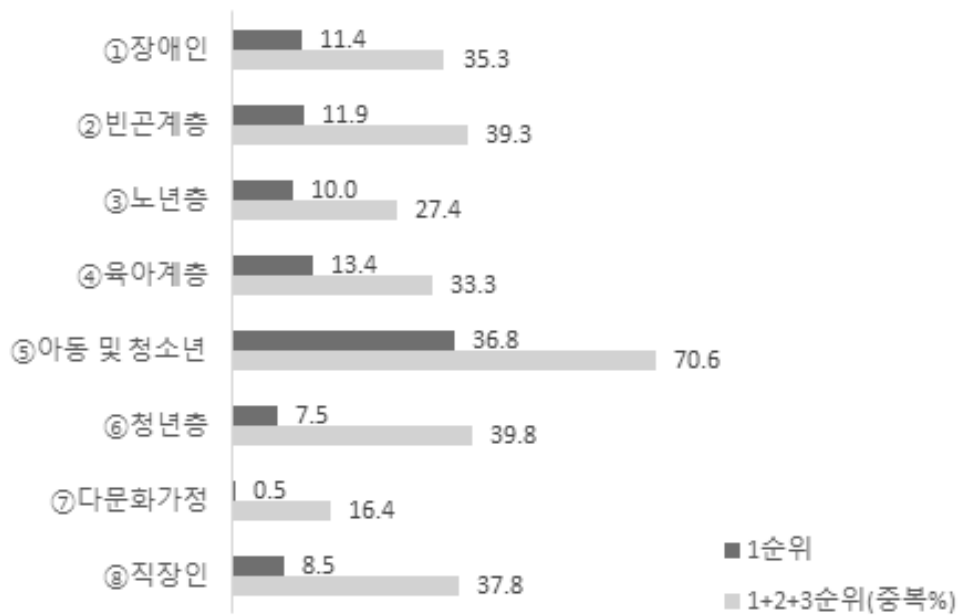
[그림 3-30] 문화서비스 확충 필요성



(4) 문화서비스 우선지원 대상

문화서비스 우선 지원 필요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 응답 기준, 아동 및 청소년(26.8%)이 가장 높았으며, 육아계층(13.4%), 빈곤계층(11.9%), 장애인(11.4%), 노년층(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응답은 아동 및 청소년(70.6%)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39.8%), 빈곤계층(39.3%), 직장인(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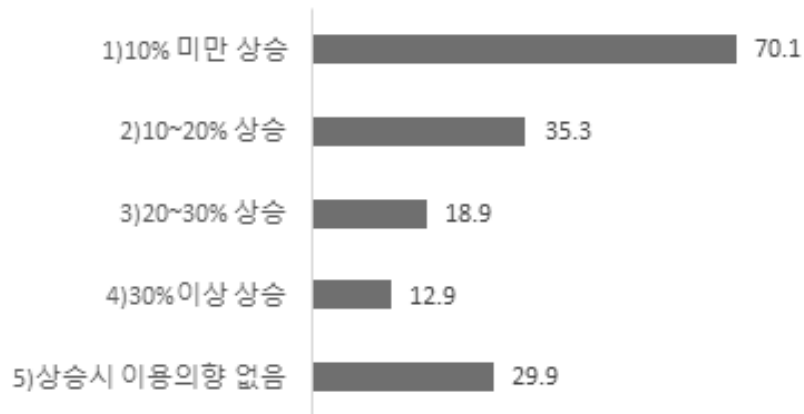
[그림 3-31] 문화서비스 우선지원 대상(단위: %)



(5) 문화서비스 비용 지출 의향

문화서비스 비용 상승할 경우 이용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10%미만 상승의 경우 이용의향이 과반 이상인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이상 상승할 경우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35.3% 수준으로 나타났고, 비용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9.9%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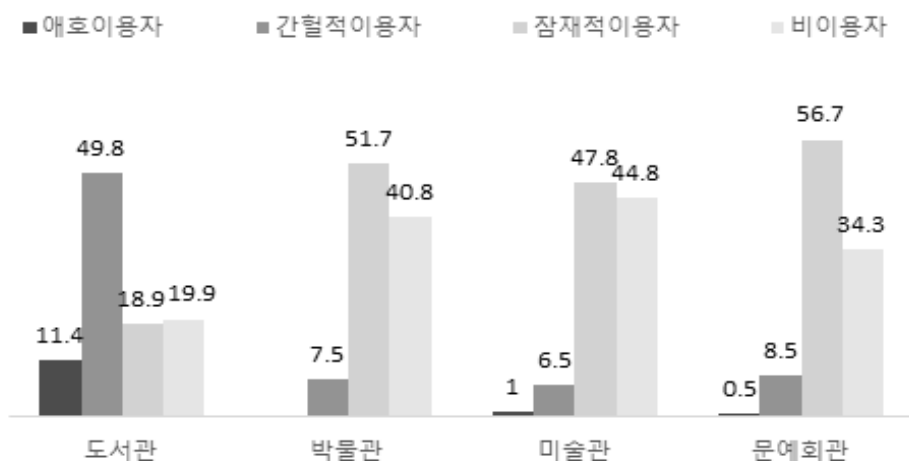
[그림 3-32] 문화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단위 : 중복 %)



7) 충남 문화서비스 이용자 구분

문화서비스 이용 빈도(현황)에 따른 이용자를 구분할 경우, 도서관은 한 달에 1~3회 방문자인 ‘간헐적 이용자(occasional audience)’가 49.8%로 높게 나타났고, 몇 달에 1회 정도 방문하는 ‘잠재적 이용자(potential audience)’가 높게 나타난 곳은 박물관(51.7%), 미술관(47.8%), 문예회관(56.7%)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1~3회 문화서비스 시설을 방문한다고 하여 간헐적 이용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간헐적 이용자로 구분하였다. 잠재적 이용자 역시 용어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이용자라는 의미에서 ‘잠재적 이용자’로 구분하였다.

[그림 3-33] 문화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이용자 구분



8) 충남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 결정요인

(1) 분석 방법

문화서비스의 시설별 참여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최근 1년 내 이용 여부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소득, 개인경제활동여부)과 가구 구성원의 특성(영유아, 노인, 아동, 등록장애인)을 고려하였다.

(2) 분석 결과

각 요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이용 여부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영유아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가구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은 이용 여부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경우 개인적 특성과 가구구성원 특성 중 이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 결정요인(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개인적 특성	성별(여성=1)	-.013	-.016	.071	.071	.063	.851	.060	.062
	연령	-.096**	-.245	.036	.075	.036	.917	.000	.001
	가구 월평균소득	.000	-.002	.002	.011	.000	.019	.010	.047
	경제활동 (소득없음=1)	-.058	-.059	.113	.093	.037	.377	-.081	-.069
가구 구성원 특성	영유아(없음=1)	-.083	-.076	.029	.021	.129	1.305	.101	.078
	노인(없음=1)	.088	.079	-.051	-.037	.097	.943	-.011	-.008
	아동(없음=1)	-.218***	-.270	-.021	-.021	-.113	-1.382	-.057	-.059
	등록장애인(없음=1)	-.294	-.135	.029	.011	-.041	-.208	.256	.099
Durbin-Watson ¹⁾		1.577		1.616		1.961		1.837	
상수		1.517***		.389		.280		.275	
R ²		.125		.019		.043		.031	

주 : 0부터 4까지의 값이며 2에 가까우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 VIF 확인으로 모든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함

9)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여정 분석

(1) 분석 방향

문화서비스의 제약 요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 여정 프레임을 통해 참여 전 과정(참여 제약, 참여 품질)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여 여정 분석에서는 해당 단계(문항)의 부정적 의견 비율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적 의견은 7점 척도에서 보통(4점)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서비스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에서 서비스 이용의 시계열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pain point)이 주요한 개입 지점인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을 개선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지점을 없애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면, 모든 이에게 물리적 편리함을 줄 수 있다는 가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여정 중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보다 영역을 개선이 시급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고,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보다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정비율과 긍정비율의 차이가 적은 지점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부정비율과 긍정비율의 차이가 적은 영역은 부정비율의 평균보다 높은 부정 비율이 나타난 지점과 긍정비율의 평균보다 낮은 긍정 비율이 나타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참여 여정 중 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긍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정 영역이 이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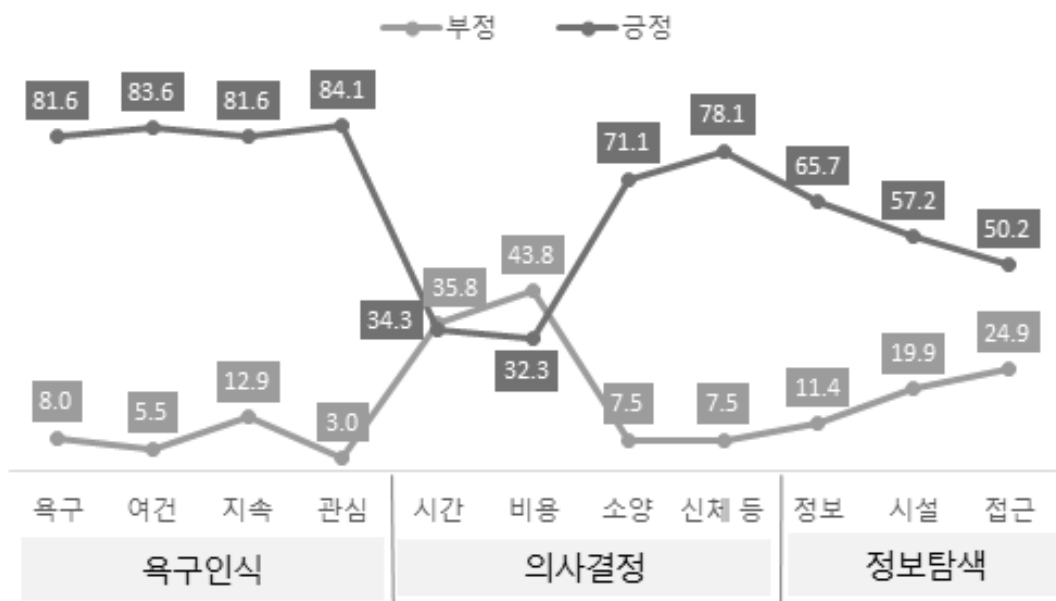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① 참여 제약

전체 이용자의 참여 제약 분석은 서비스 품질을 제외하고 서비스 참여에 도달하는데 시계열성이 있는 욕구인식, 의사결정, 정보탐색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서비스 참여 제약을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 단계에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문화서비스 비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화서비스 참여 제약 중 개인 요인으로 주장되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 관심, 역량 영역은 참여 제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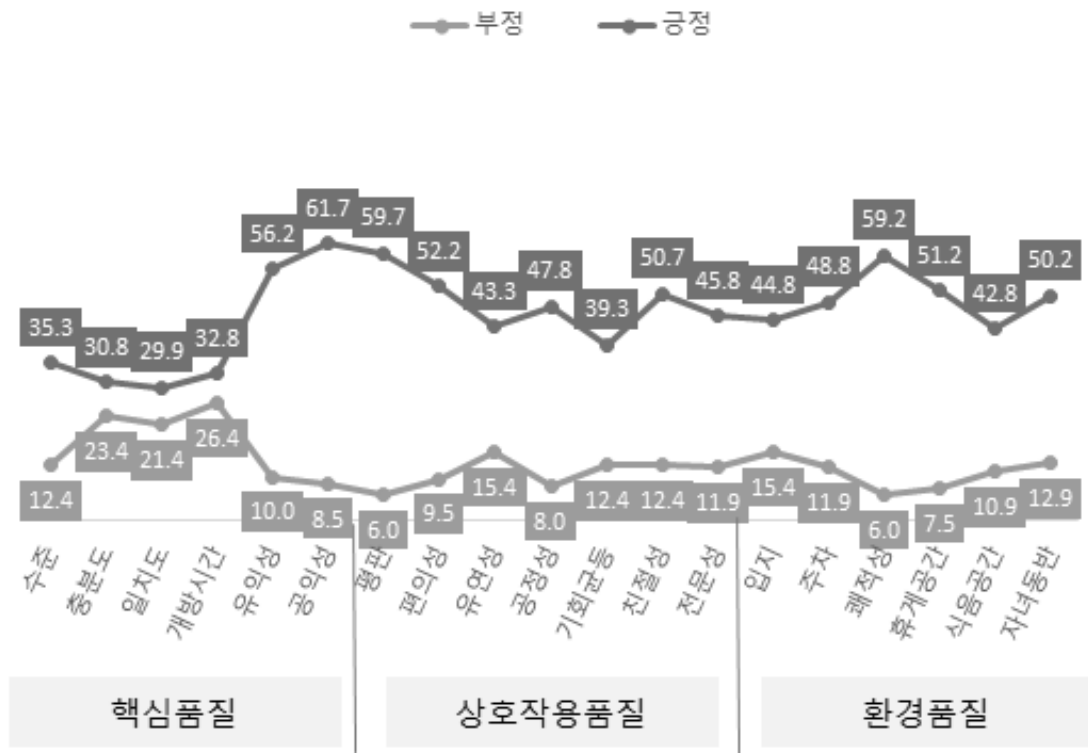
[그림 3-34] 문화서비스 참여제약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② 참여 품질

참여 품질은 문화서비스에 참여하여 인지할 수 있는 핵심 품질(수준, 충분도, 일치도, 개방시간, 유익성, 공익성), 상호작용 품질(평판, 편의성, 유연성, 공정성, 기회균등, 친절성, 전문성), 환경 품질(입지, 주차, 쾌적성, 휴게공간, 식음료 공간, 자녀동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핵심 품질 영역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분도, 개방시간, 일치도의 문제가 가장 부정 비율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품질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유연성, 서비스 기회균등 영역이 부정 비율이 높고, 긍정 비율이 낮았다. 환경 품질에서는 입지와 자녀동반, 주차 공간의 부정 비율이 높고, 긍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쾌적성 등 주요 환경 품질은 상대적으로 긍정 비율이 높고, 부정 비율이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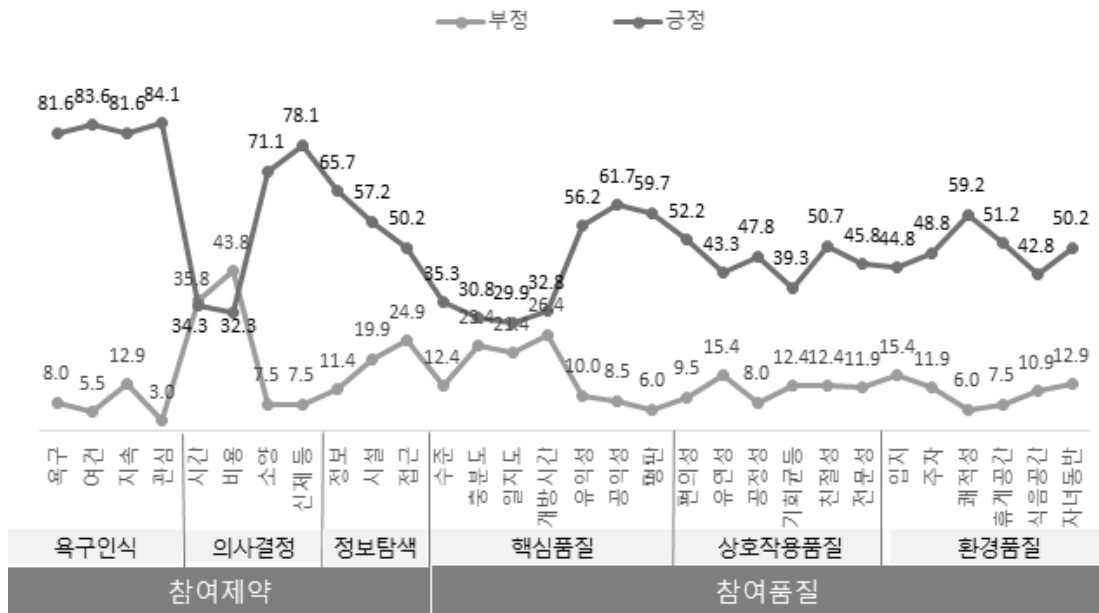
[그림 3-35] 문화서비스 참여품질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③ 참여 여정 분석

참여 제약과 참여 품질 전체를 포괄한 문화서비스 참여 여정을 살펴보면, 참여 이전과 참여의 단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이전의 단계가 참여의 단계보다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여의 이전 심리적인 수준에서 제약이 많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참여 경험에 기반을 둔 참여 품질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경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작용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36] 문화서비스 참여여정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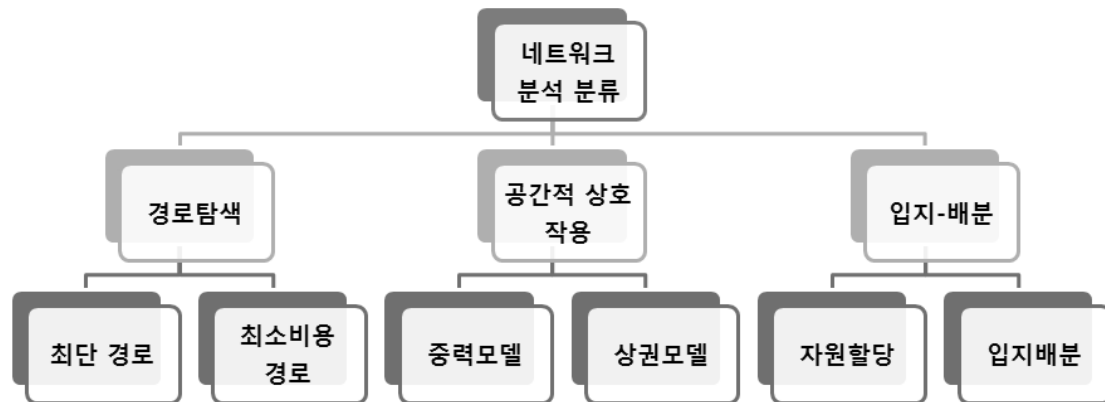


4.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1) 문화서비스 분석 방법

네트워크 분석이란 서로 연관된 일련의 선형에 대한 분석으로, 고속도로·철도와 같은 교통망, 하천이나 상·하수도 같은 관망의 연결성과 경로를 분석하는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김영표 외, 2004).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단경로 혹은 최소비용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경로탐색(Path Finding), 지역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네트워크상에서 분석하는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각종 시설물의 입지와 배분을 해결하는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탐색(Path Finding)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문화서비스에 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37] 네트워크 분석 분류



자료 : 전병태 외(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 방안 연구.

2) 네트워크 분석 적용

본 연구에서는 도로망, 문화기반시설, 격자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로망 데이터는 연구원에서 자체 구축한 정밀 네트워크 도로망 데이터,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8년 기준)’ 중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으로 설정하였고, 격자 인구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500×500 격자 총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초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을 기준으로, 도서관 10분,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20분 내에 접근가능 지역 수준과 접근 가능인구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문화서비스는 주소기반의 원데이터에 지오코딩(Geocoding)을 활용하여 공간적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실태파악과 함께 문화서비스 사각지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충청남도의 문화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 선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7] 네트워크 분석 활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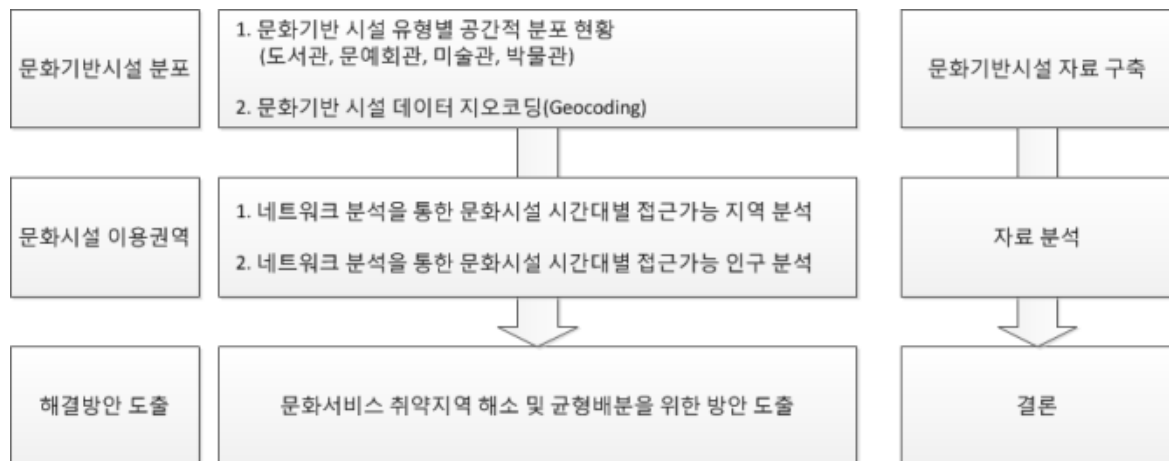
원데이터	활용데이터	출처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네트워크 도로망	충남연구원 자체 구축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체육관광부
500×500 격자 데이터	500×500 총인구 격자	국토지리정보원

[표 3-18]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지역거점 (차량)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 도립, 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분~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	10분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molit.go.kr>.

[그림 3-38] 분석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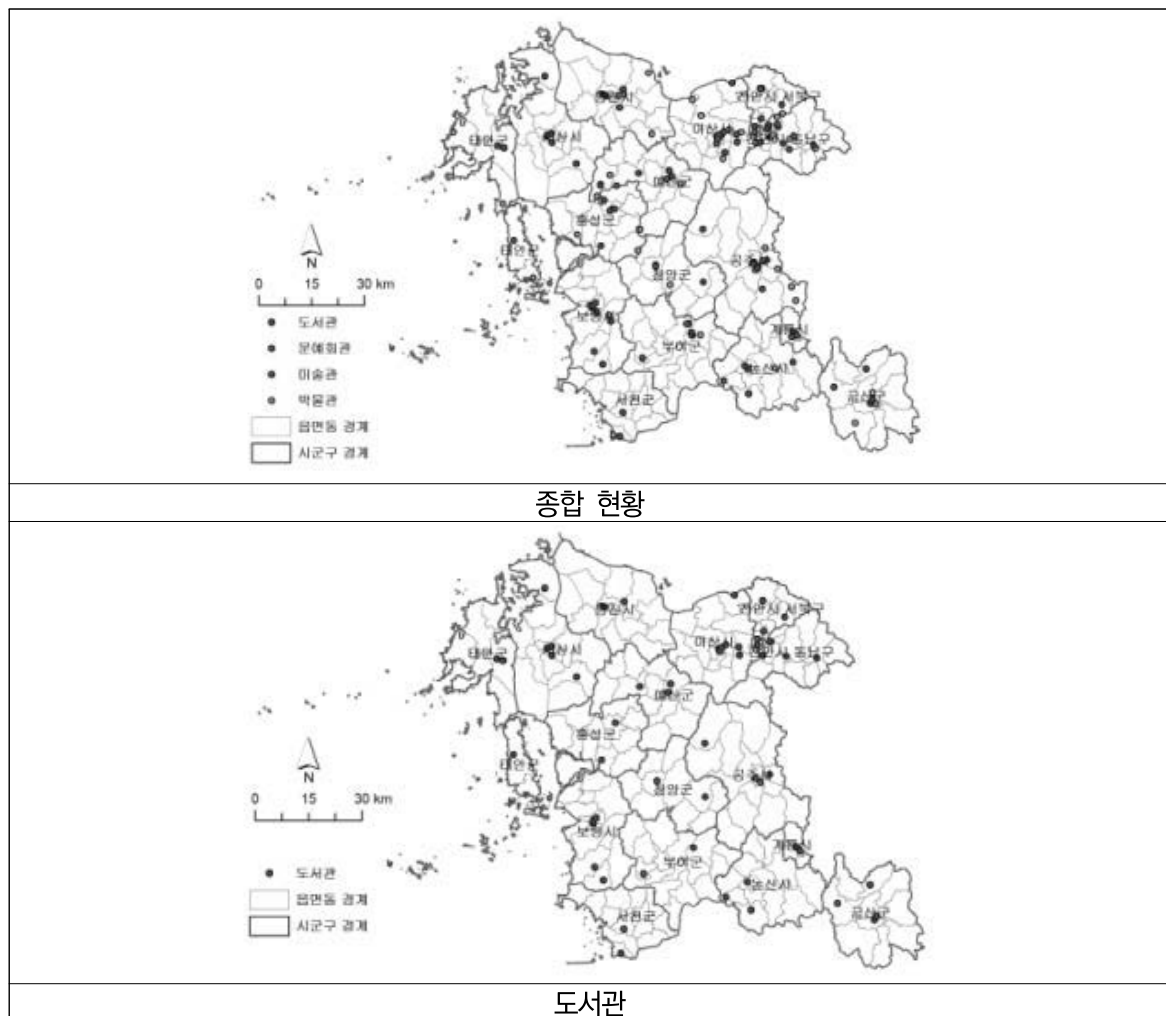


3)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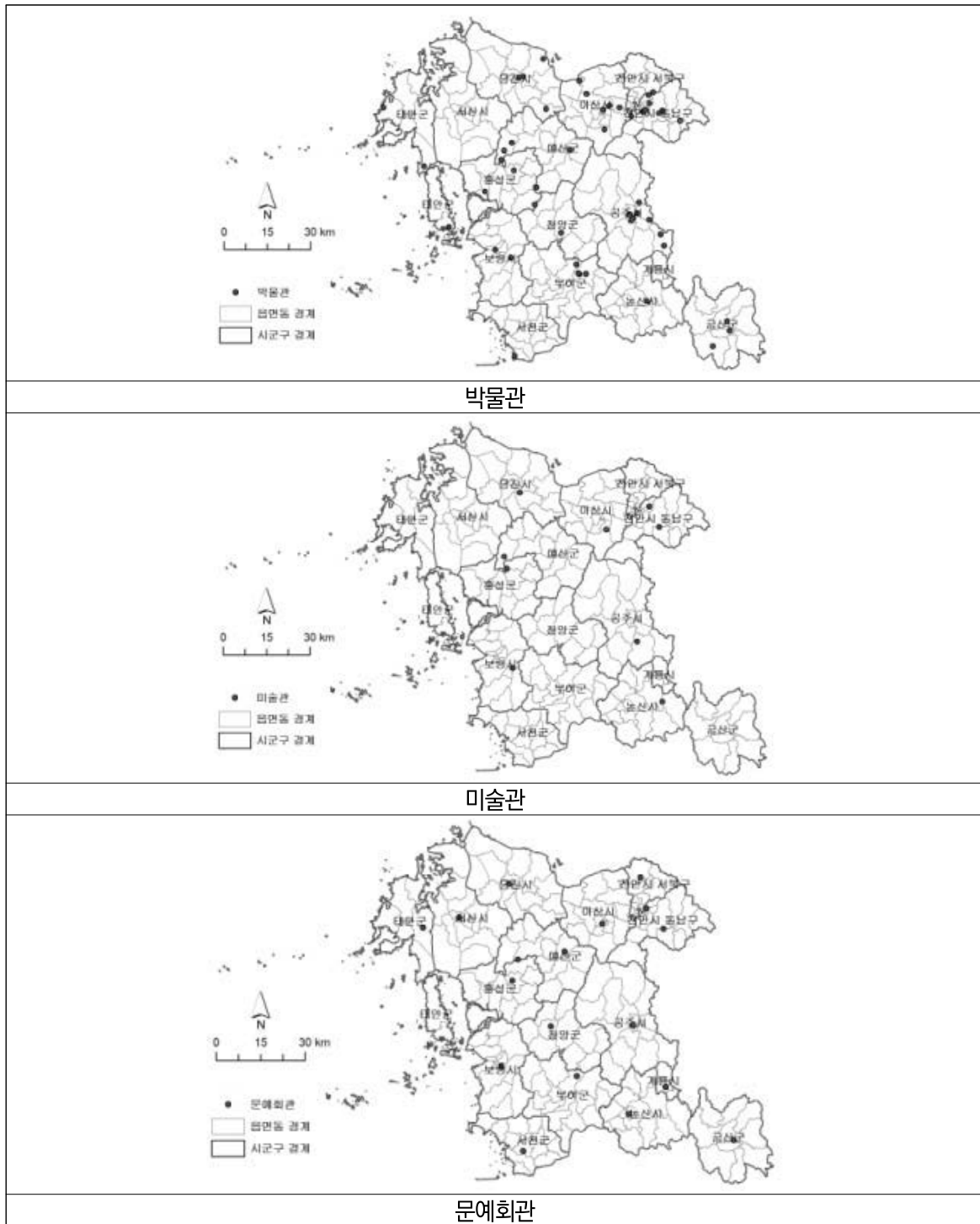
(1) 충청남도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8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문화기반시설은 총 138개소가 분포¹¹⁾하고 있으며,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이 59개소, 박물관 52개소, 미술관 9개소, 문예회관 18개소가 존재한다.

[그림 3-39]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분포 현황



11) 본 연구에서의 문화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2018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중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으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도서관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천안시 10개소(16.95%), 아산시 7개소(11.86%), 금산군, 보령시, 서산시 4개소(8.47%)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이 가장 적은 시·군은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으로 각 2개소(3.39%)씩 존재하였다.

박물관이 가장 많은 시군은 공주시와 천안시 9개소(17.31%), 아산시 7개소(13.46%), 예산군 5개소(13.46%)로, 서산시와 계룡시는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미술관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천안시 2개소(22.22%)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은 각 1개소(11.11%)가 존재하였다. 또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은 미술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천안시 3개소(16.67%), 예산군 2개소(11.11%)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와 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문예회관이 각 1개소(5.56%)씩 존재한다.

시군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천안시가 138개 문화기반시설 중 24개소(17.39%)로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부여군과 홍성군은 138개 문화기반시설 중 7개소(5.07%)로 가장 적은 문화기반시설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표 3-19] 충청남도 문화기반시설별 현황

시군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계룡시	2	3.39	1	5.56	0	0.00	0	0.00
공주시	4	6.78	1	5.56	1	11.11	9	17.31
금산군	5	8.47	1	5.56	0	0.00	3	5.77
논산시	3	5.08	1	5.56	1	11.11	1	1.92
당진시	4	6.78	1	5.56	1	11.11	4	7.69
보령시	5	8.47	1	5.56	1	11.11	2	3.85
부여군	2	3.39	1	5.56	0	0.00	4	7.69
서산시	5	8.47	1	5.56	0	0.00	0	0.00
서천군	2	3.39	1	5.56	0	0.00	1	1.92
아산시	7	11.86	1	5.56	1	11.11	7	13.46
예산군	3	5.08	2	11.11	1	11.11	5	9.62
천안시	10	16.95	3	16.67	2	22.22	9	17.31
청양군	2	3.39	1	5.56	0	0.00	1	1.92
태안군	3	5.08	1	5.56	0	0.00	3	5.77
홍성군	2	3.39	1	5.56	1	11.11	3	5.77
총계	59	100	18	100	9	100	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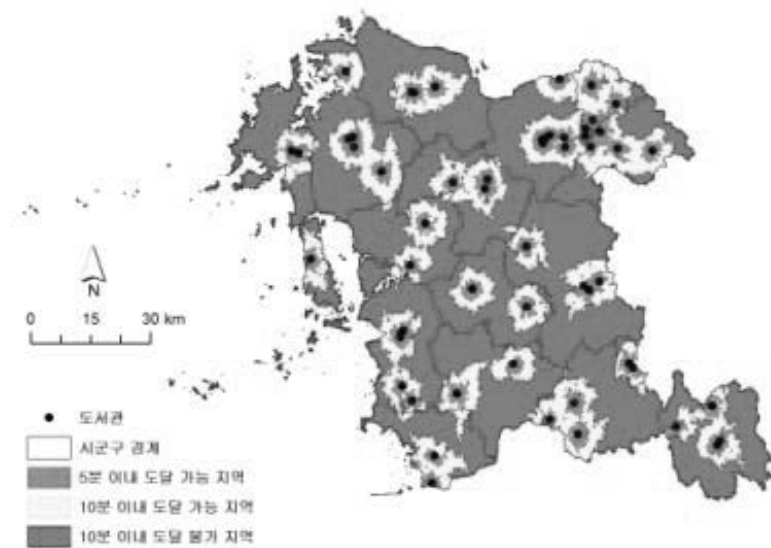
(2) 충청남도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278,774.11ha로 전체 충청남도 면적의 33.76%를 차지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697,452명으로 전체 충청남도 인구의 80.83%로 나타났다.

[표 3-20]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충청남도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2,099,946	825,710.969	1,697,452	80.83	278,774.11	33.76%

[그림 3-40]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3) 충청남도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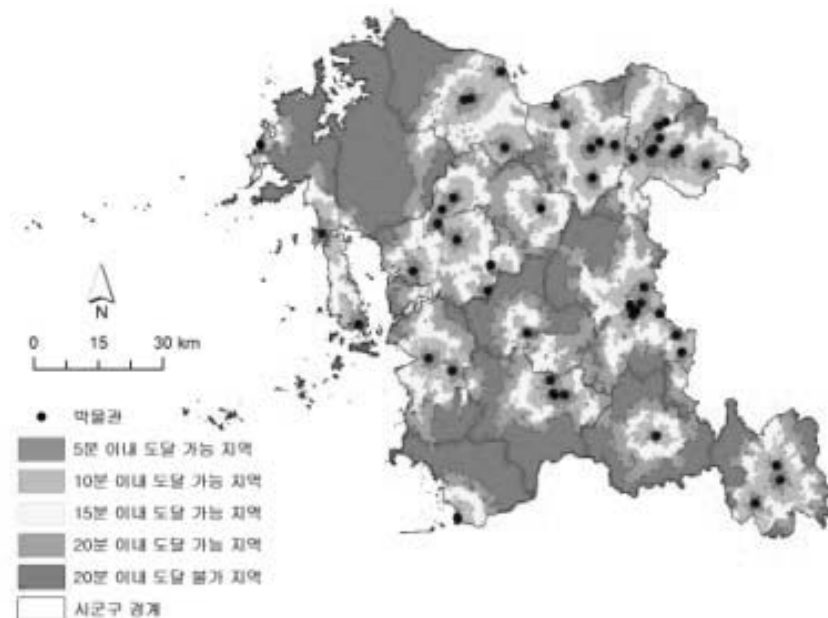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17,623.427ha로 전체 충청남도 면적의 62.68%를 차지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770,563명으로 전체 충청남도 인구의 84.31%로 나타났다.

[표 3-21]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충청남도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099,946	825,710.969	1,770,563	84.31	517,623.427	62.68

[그림 3-41]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4) 충청남도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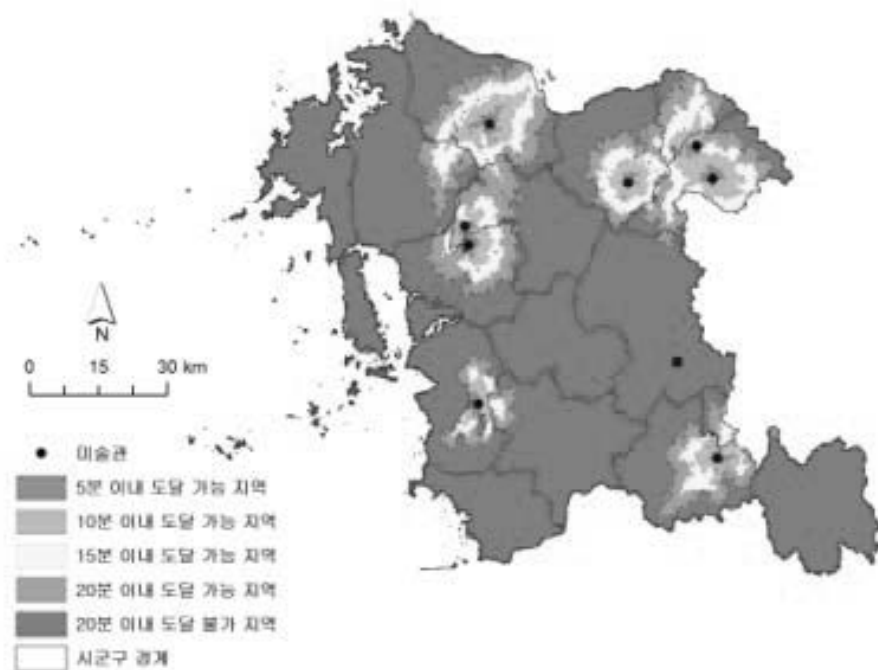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200,087.022ha로 전체 충청남도 면적의 24.23%를 차지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232,775명으로 전체 충청남도 인구의 58.70%로 나타났다.

[표 3-22]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충청남도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099,946	825,710.969	1,232,775	58.70	200,087.022	24.23

[그림 3-42]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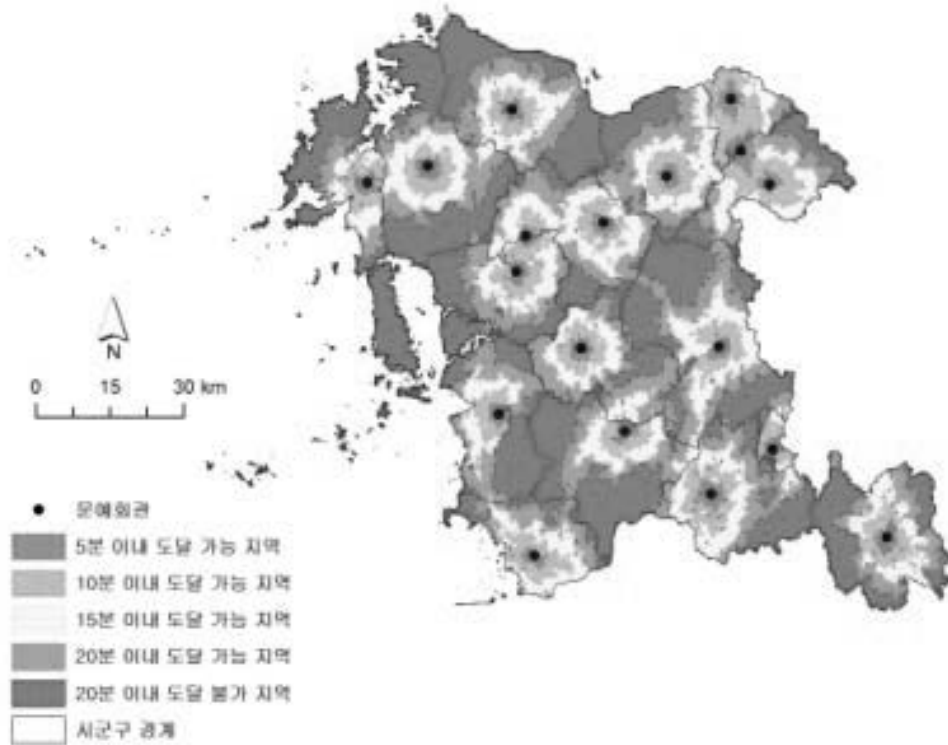
(5) 충청남도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03,801.307ha로 전체 충청남도 면적의 61.01%를 차지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901,245명으로 전체 충청남도 인구의 90.63%로 나타났다.

[표 3-23]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충청남도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2,099,946	825,710.969	1,901,245	90.53	503,801.307	61.01

[그림 3-43]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6) 1생활권(천안시,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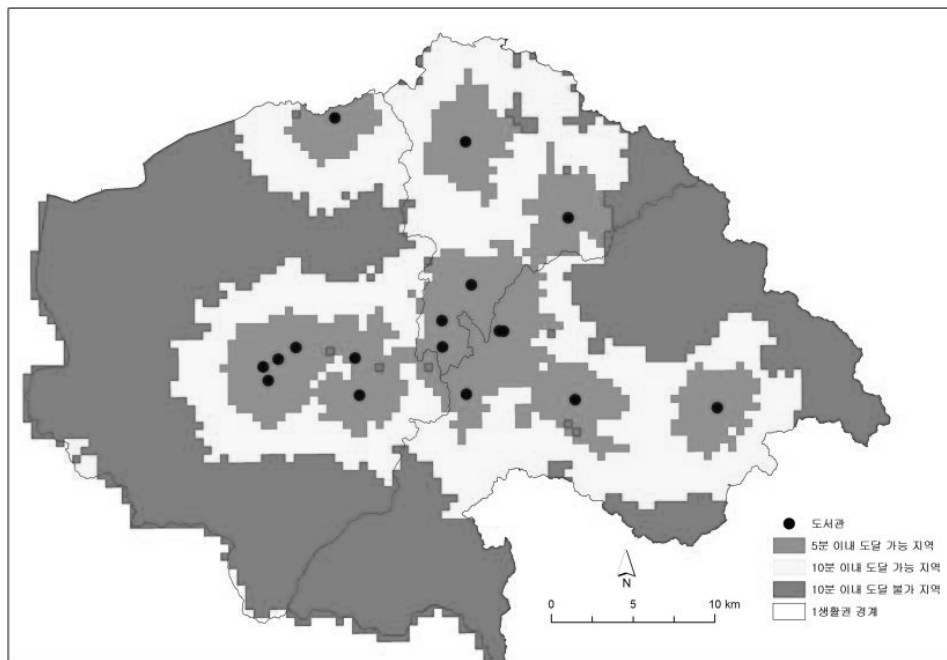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1생활권(천안시, 아산시)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60,868.610ha로 전체 1생활권 면적의 50.98%를 차지한다. 또한 1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909,953명으로 1생활권 인구의 94.94%로 나타났다.

[표 3-24] 1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1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958,438	119,393.728	909,953	94.94	60,868.610	50.98

[그림 3-44] 1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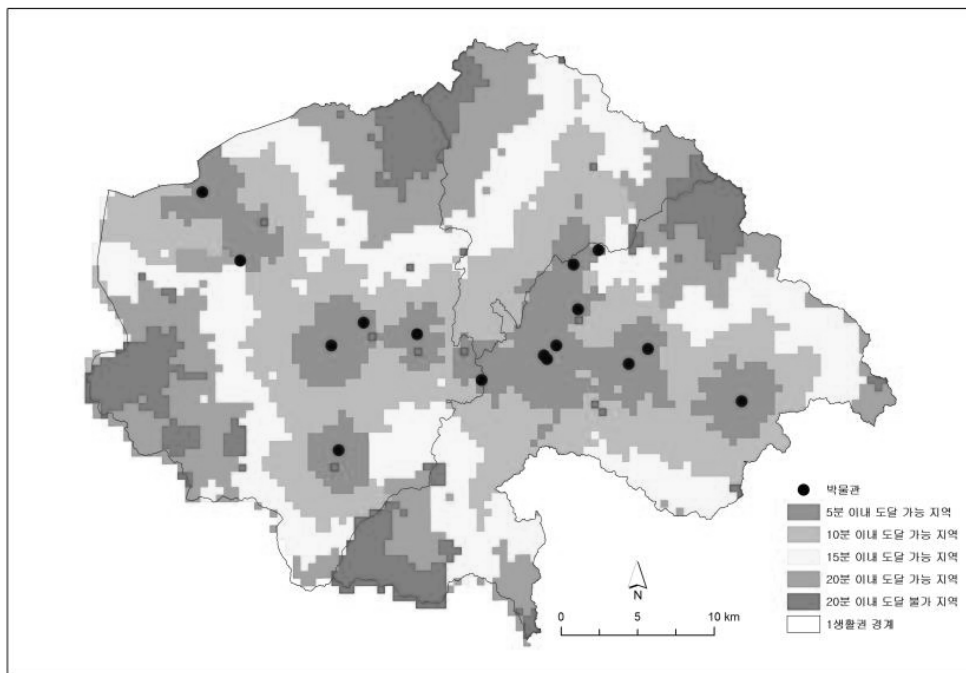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1생활권(천안시, 아산시)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106,772.792ha로 전체 1생활권 면적의 89.43%를 차지한다. 또한 1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934,198명으로 1생활권 인구의 97.47%로 나타났다.

[표 3-25] 1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1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958,438	119,393.728	934,198	97.47	106,772.792	89.43

[그림 3-45] 1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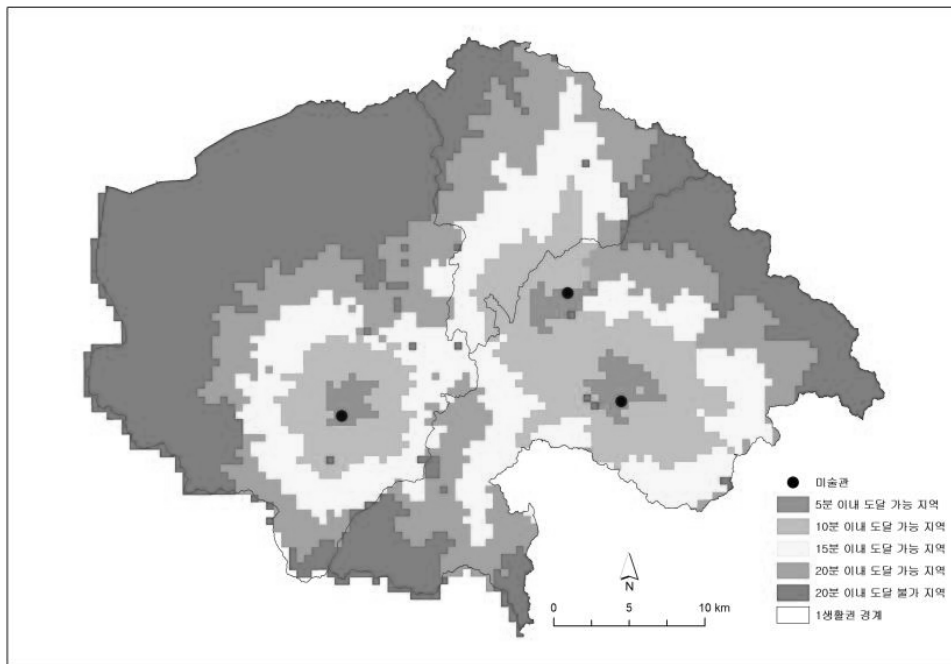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1생활권(천안시, 아산시)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72,066.728ha로 전체 1생활권 면적의 60.36%를 차지한다. 또한 1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899,434명으로 1생활권 인구의 93.84%로 나타났다.

[표 3-26] 1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1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958,438	119,393.728	899,434	93.84	72,066.728	60.36

[그림 3-46] 1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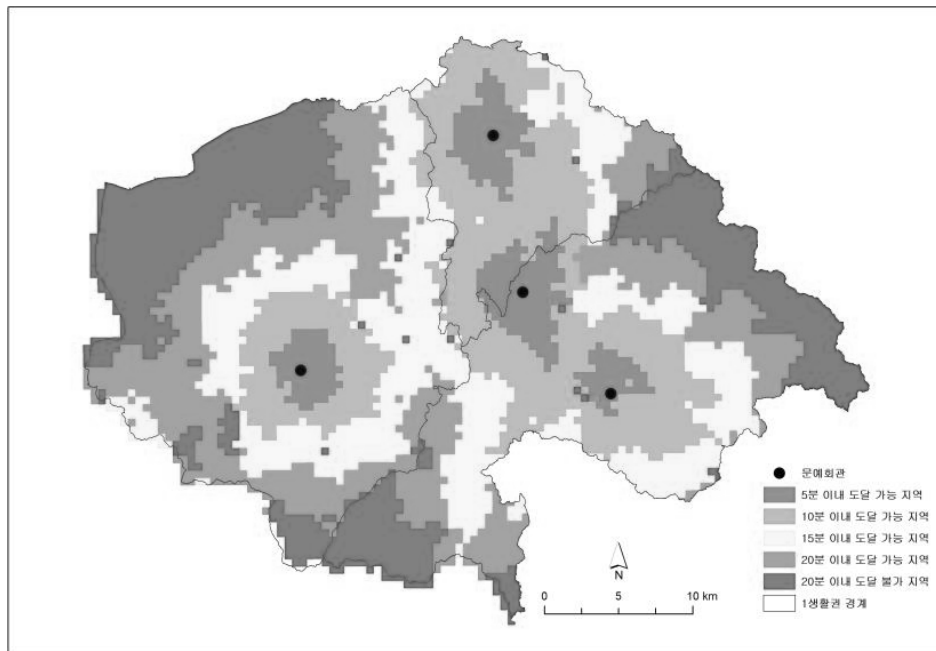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1생활권(천안시, 아산시)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91,829.587ha로 전체 1생활권 면적의 89.43%를 차지한다. 또한 1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937,362명으로 1생활권 인구의 97.80%로 나타났다.

[표 3-27] 1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1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958,438	119,393.728	937,362	97.80	91,829.587	89.43

[그림 3-47] 1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7) 2생활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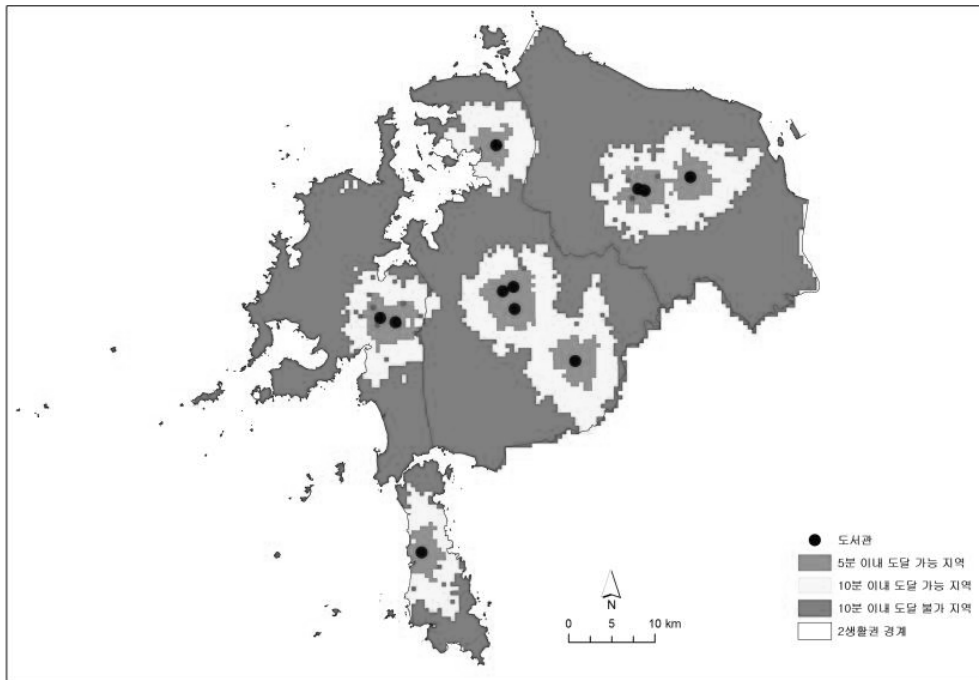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생활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9,506.798ha로 전체 2생활권 면적의 29.75%를 차지한다. 또한 2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269,833명으로 2생활권 인구의 67.67%로 나타났다.

[표 3-28] 2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2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398,741	200,016.271	269,833	67.67	59,506.798	29.75

[그림 3-48] 2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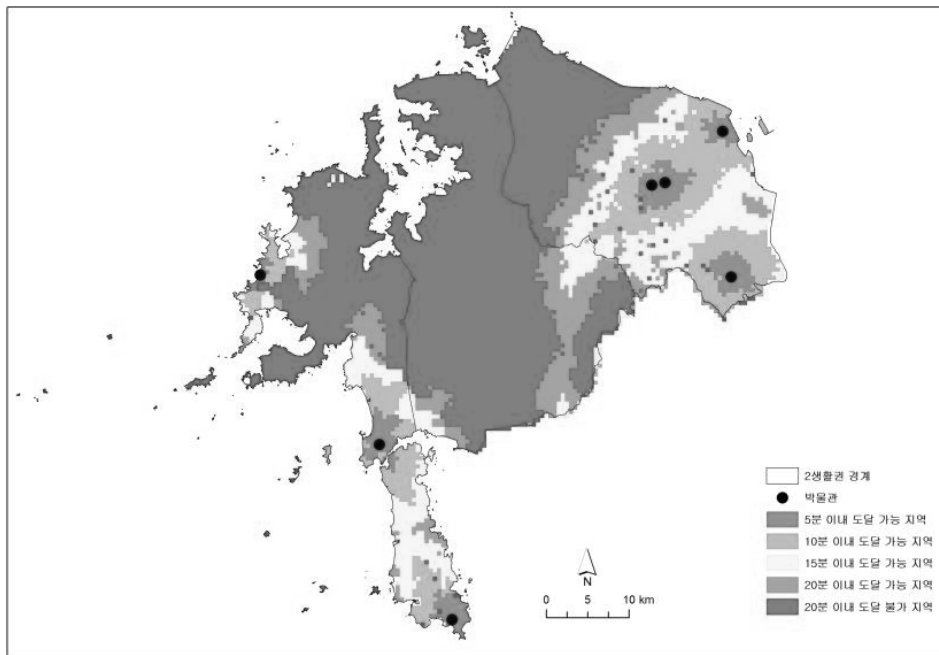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생활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88,350.554ha로 전체 2생활권 면적의 44.17%를 차지한다. 또한 2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202,984명으로 2생활권 인구의 50.91%로 나타났다.

[표 3-29] 2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2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398,741	200,016.271	202,984	50.91	88,350.554	44.17

[그림 3-49] 2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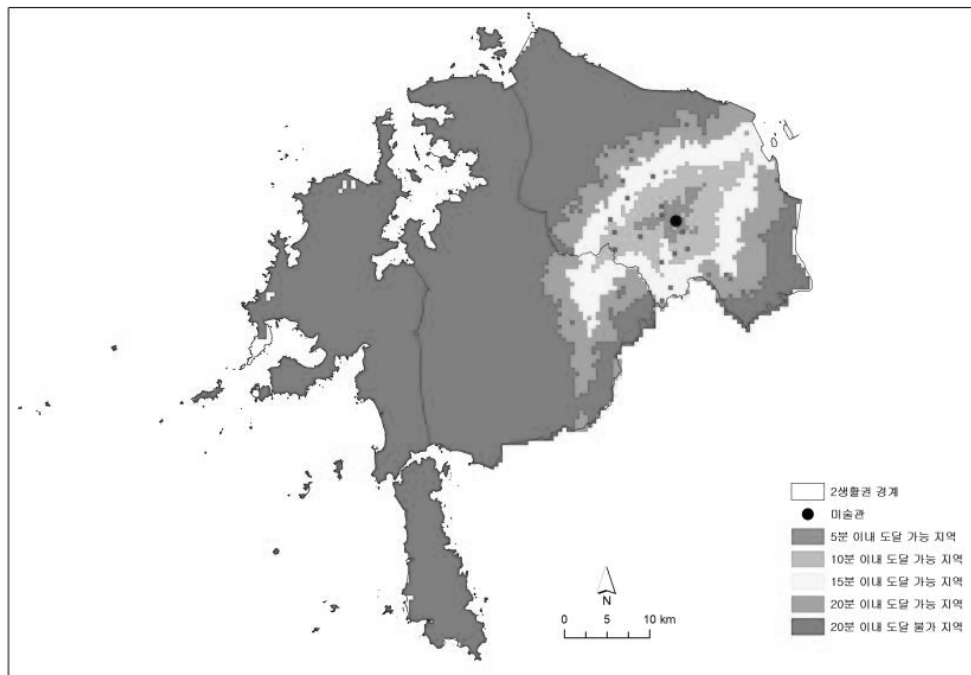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생활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0,722.580ha로 전체 2생활권 면적의 25.36%를 차지한다. 또한 2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58,911명으로 2생활권 인구의 39.85%로 나타났다.

[표 3-30] 2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2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398,741	200,016.271	158,911	39.85	50,722.580	25.36

[그림 3-50] 2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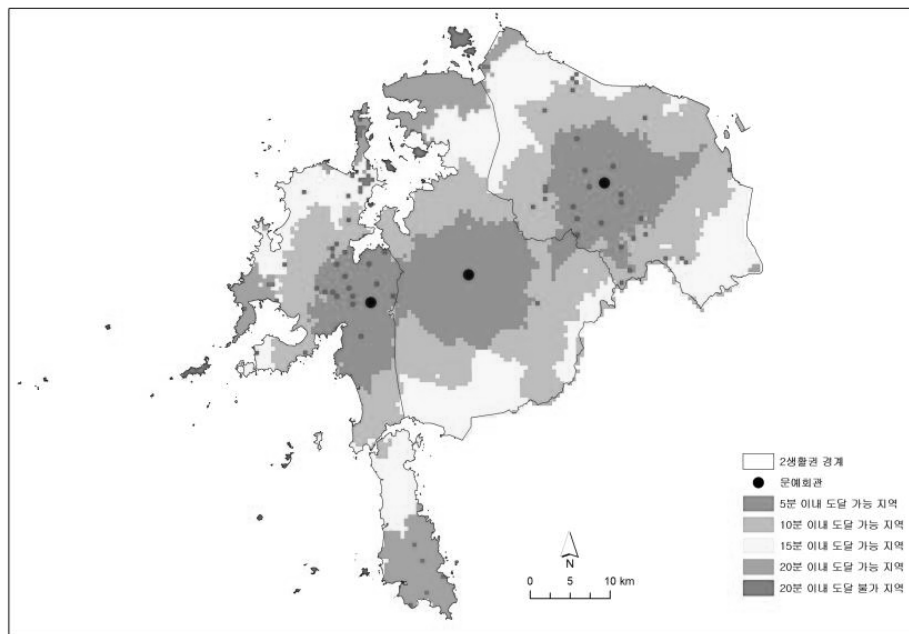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생활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94,516.200 ha로 전체 2생활권 면적의 47.25%를 차지한다. 또한 2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315,776명으로 2생활권 인구의 79.19%로 나타났다.

[표 3-31] 2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2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398,741	200,016.271	315,776	79.19	94,516.200	47.25

[그림 3-51] 2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8) 3생활권(홍성군, 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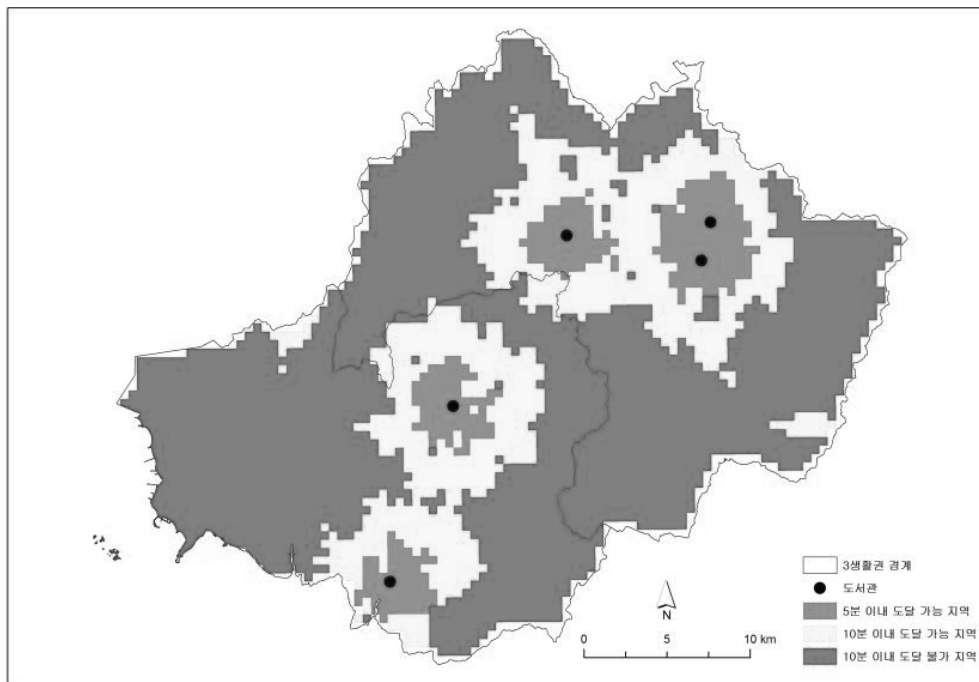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3생활권(홍성군, 예산군)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31,914.452ha로 전체 3생활권 면적의 33.97%를 차지한다. 또한 3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11,945명으로 3생활권 인구의 63.37%로 나타났다.

[표 3-32] 3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3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176,661	93949.727	111,945	63.37	31,914.452	33.97

[그림 3-52] 3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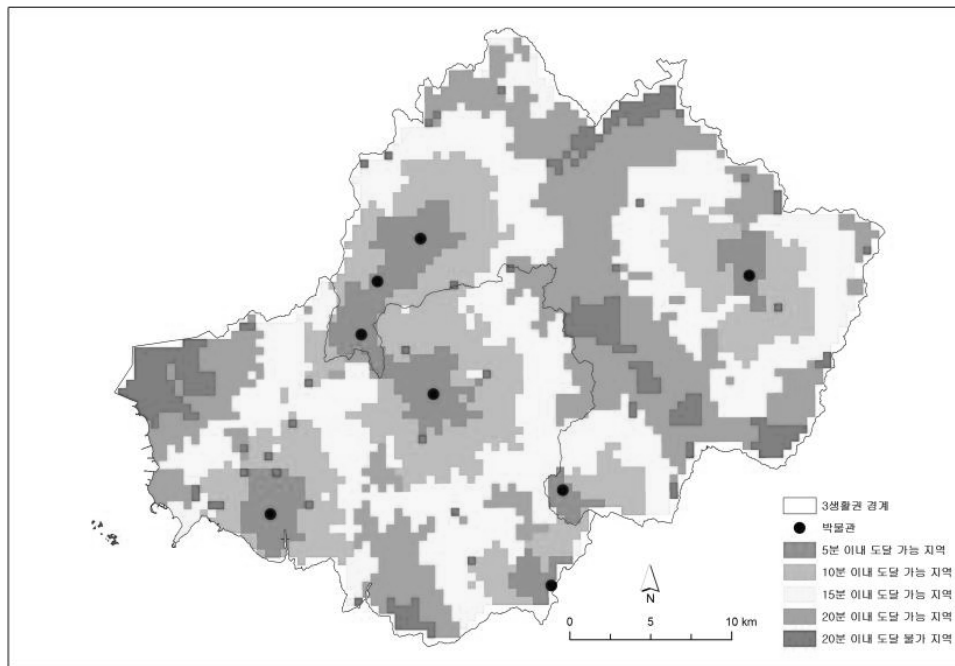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3생활권(홍성군, 예산군)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89,607.531ha로 전체 3생활권 면적의 93.25%를 차지한다. 또한 3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74,039명으로 3생활권 인구의 98.52%로 나타났다.

[표 3-33] 3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3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76,661	93949.727	174,039	98.52	89,607.531	93.25

[그림 3-53] 3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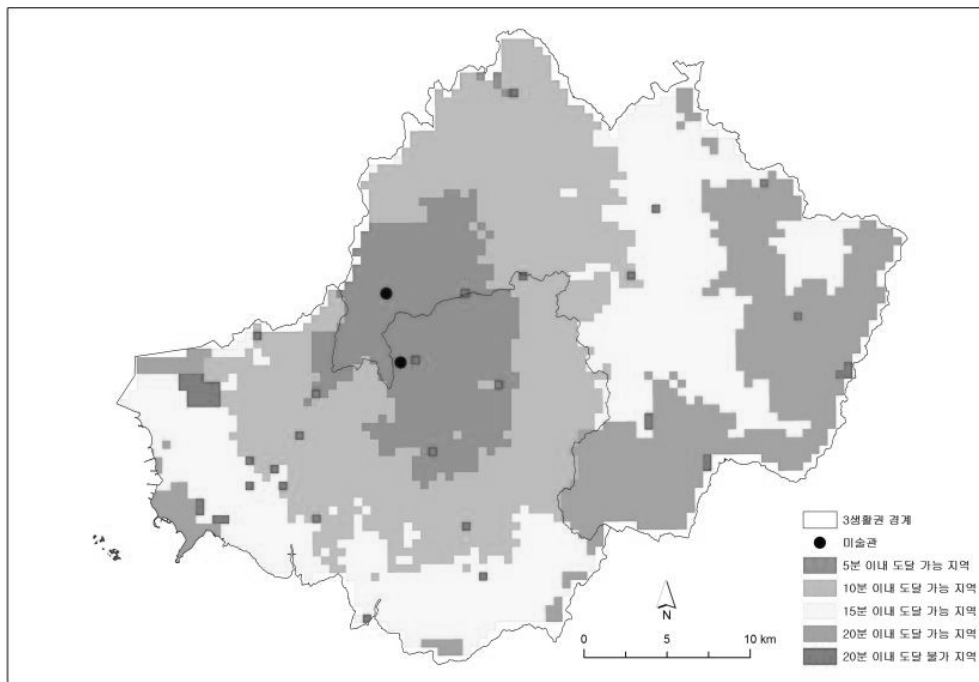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3생활권(홍성군, 예산군)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34,750.000ha로 전체 3생활권 면적의 36.99%를 차지한다. 또한 3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98,052명으로 3생활권 인구의 55.50%로 나타났다.

[표 3-34] 3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3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76,661	93949.727	98,052	55.50	34,750.000	36.99

[그림 3-54] 3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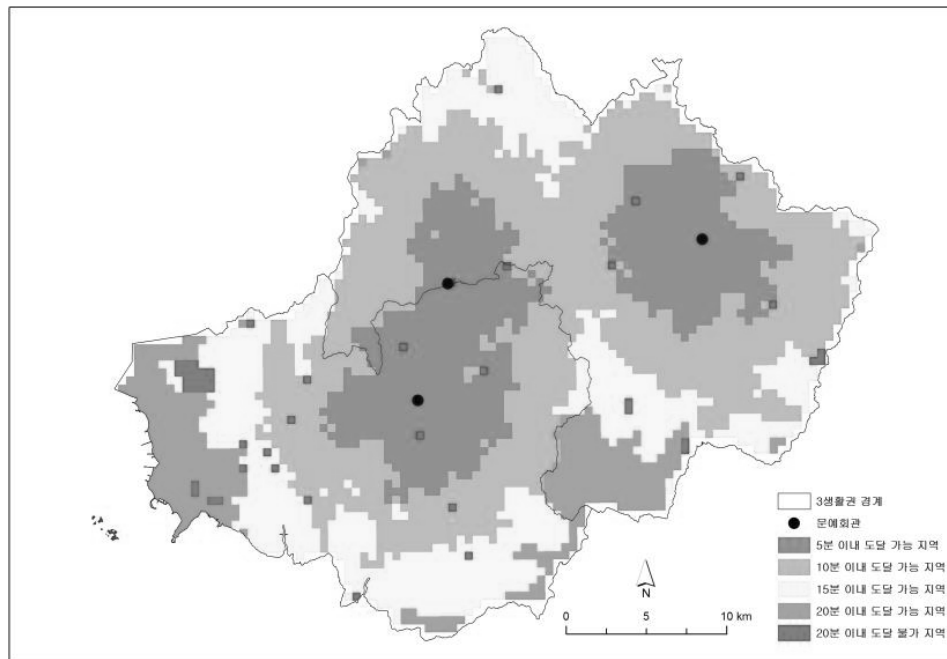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3생활권(홍성군, 예산군)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71,884.717ha로 전체 3생활권 면적의 76.51%를 차지한다. 또한 3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64,277명으로 3생활권 인구의 92.99%로 나타났다.

[표 3-35] 3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3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76,661	93949.727	164,277	92.99	71,884.717	76.51

[그림 3-55] 3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9) 4생활권(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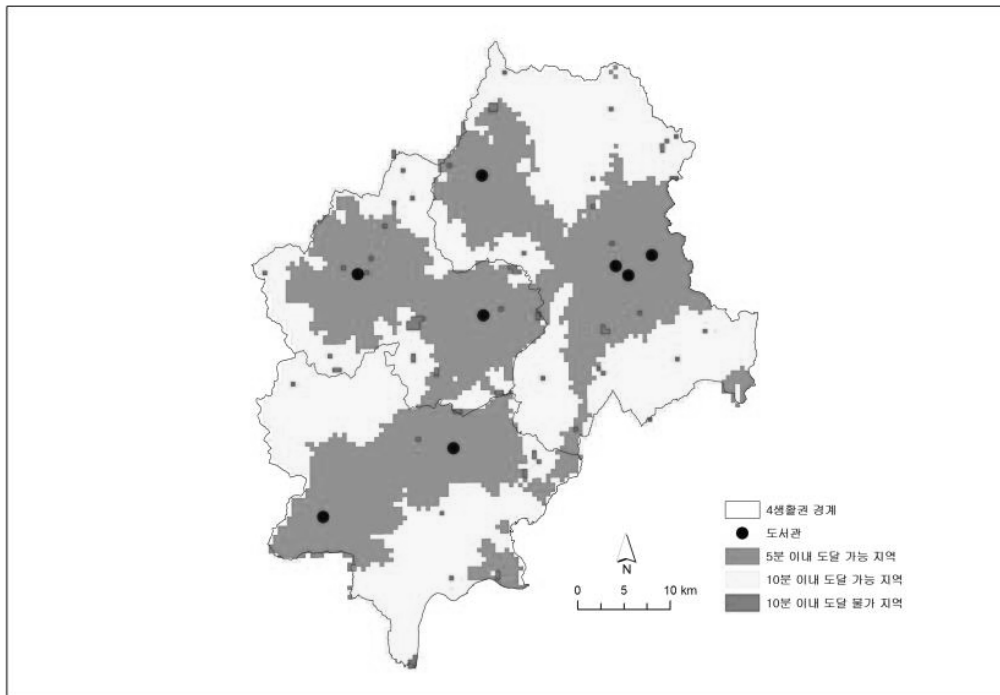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4생활권(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2,107.548ha로 전체 4생활권 면적의 26.37%를 차지한다. 또한 4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30,235명으로 4생활권 인구의 64.33%로 나타났다.

[표 3-36] 4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4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202,435	197,606.628	130,235	64.33	52,107.548	26.37

[그림 3-56] 4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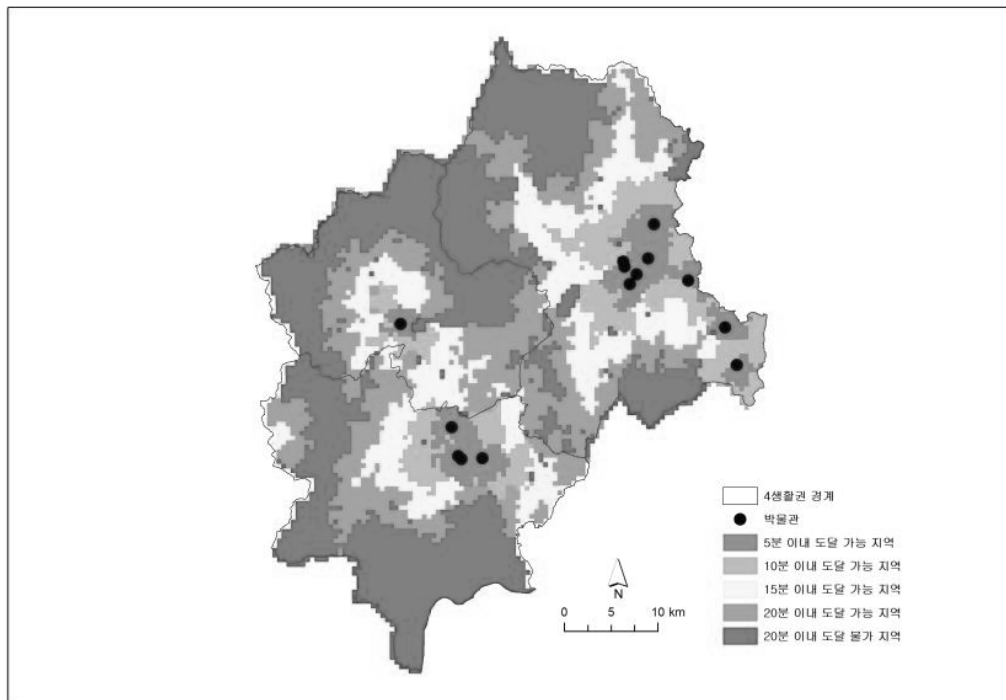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4생활권(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115,645.248 ha로 전체 4생활권 면적의 58.52%를 차지한다. 또한 4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65,629명으로 4생활권 인구의 81.82%로 나타났다.

[표 3-37] 4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4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02,435	197,606.628	165,629	81.82	115,645.248	58.52

[그림 3-57] 4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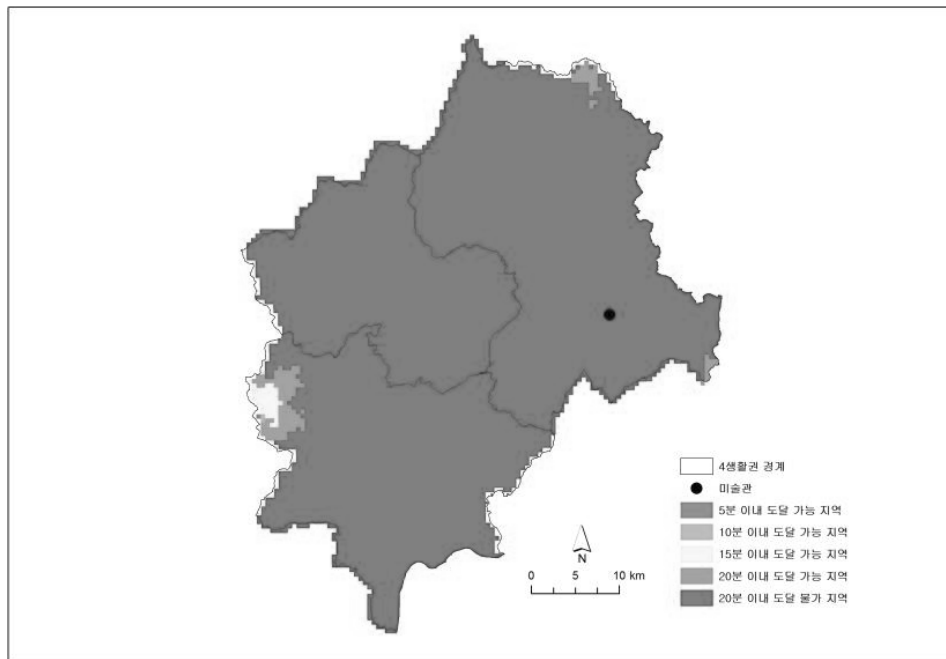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4생활권(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4,568.639ha로 전체 4생활권 면적의 2.31%를 차지한다. 또한 4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65,305명으로 4생활권 인구의 31.01%로 나타났다.

[표 3-38] 4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4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02,435	197,606.628	65,305	31.01	4,568.639	2.31

[그림 3-58] 4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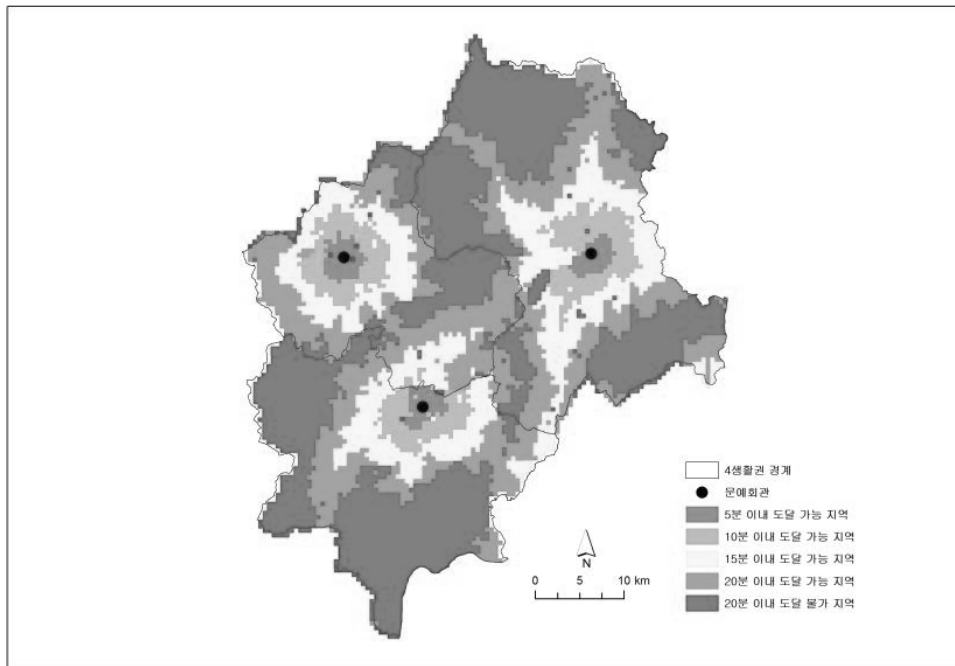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4생활권(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113,009.568ha로 전체 4생활권 면적의 57.19%를 차지한다. 또한 4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60,872명으로 4생활권 인구의 79.47%로 나타났다.

[표 3-39] 4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4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02,435	197,606.628	160,872	79.47	113,009.568	57.19

[그림 3-59] 4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0) 5생활권(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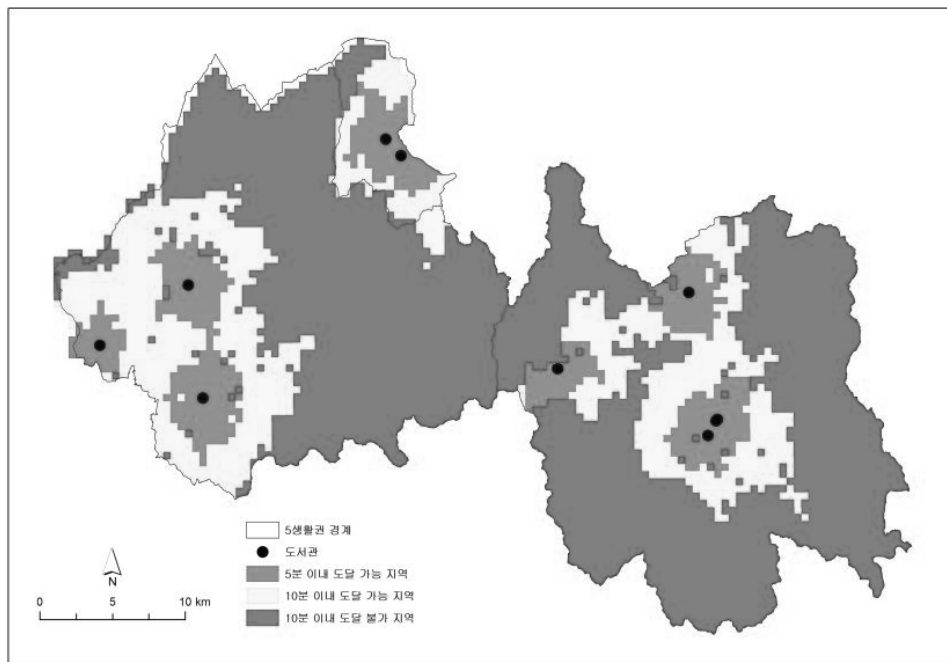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생활권(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42,756.731ha로 전체 5생활권 면적의 36.03%를 차지한다. 또한 5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71,099명으로 5생활권 인구의 81.25%로 나타났다.

[표 3-40] 5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5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210,592	118,673.203	171,099	81.25	42,756.731	36.03

[그림 3-60] 5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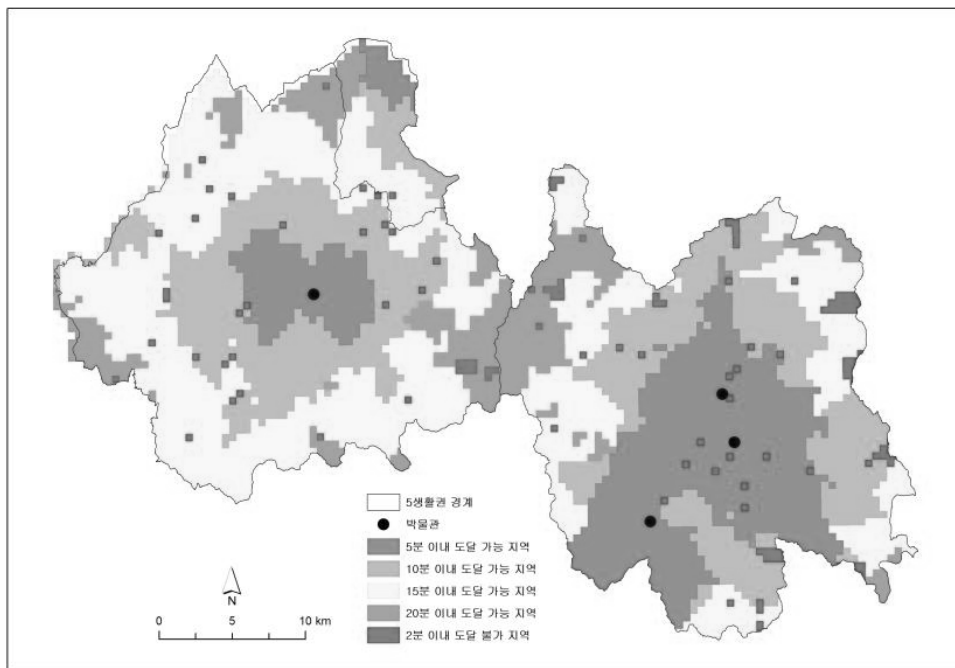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생활권(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68,208.182ha로 전체 5생활권 면적의 57.48%를 차지한다. 또한 5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71,923명으로 5생활권 인구의 81.64%로 나타났다.

[표 3-41] 5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5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10,592	118,673.203	171,923	81.64	68,208.182	57.48

[그림 3-61] 5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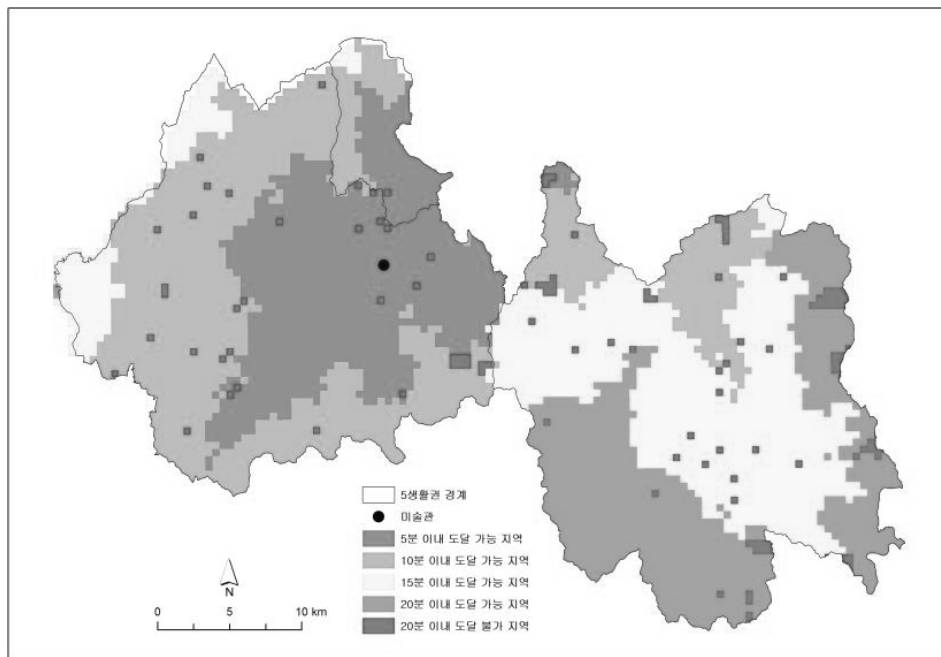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생활권(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26,354.073ha로 전체 5생활권 면적의 22.21%를 차지한다. 또한 5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65,305명으로 5생활권 인구의 31.01%로 나타났다.

[표 3-42] 5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5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10,592	118,673.203	65,305	31.01	26,354.073	22.21

[그림 3-62] 5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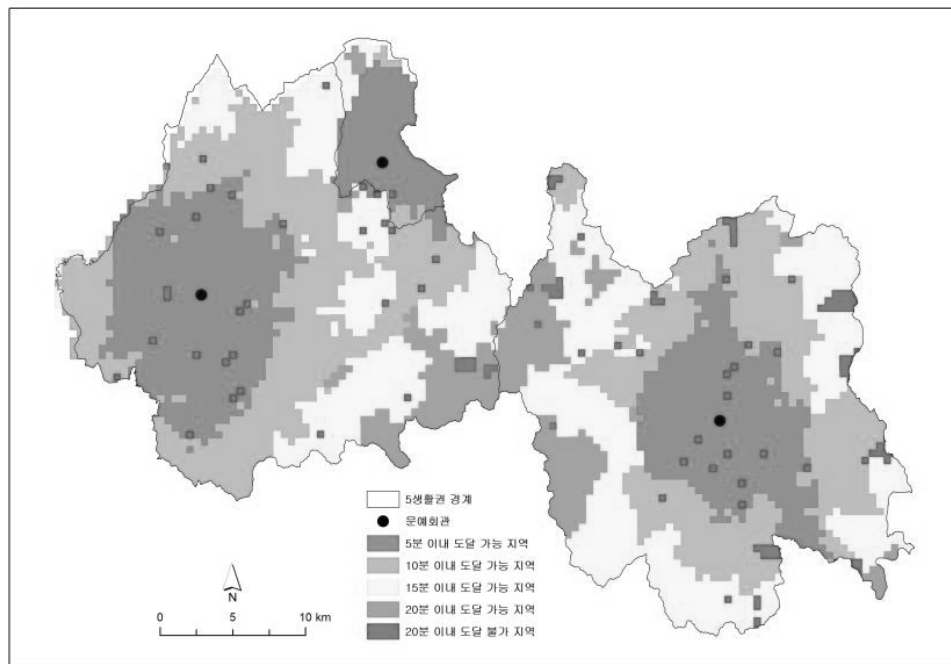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생활권(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75,494.782ha로 전체 5생활권 면적의 63.62%를 차지한다. 또한 5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92,994명으로 5생활권 인구의 91.64%로 나타났다.

[표 3-43] 5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5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210,592	118,673.203	192,994	91.64	75,494.782	63.62

[그림 3-63] 5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11) 6생활권(보령시, 서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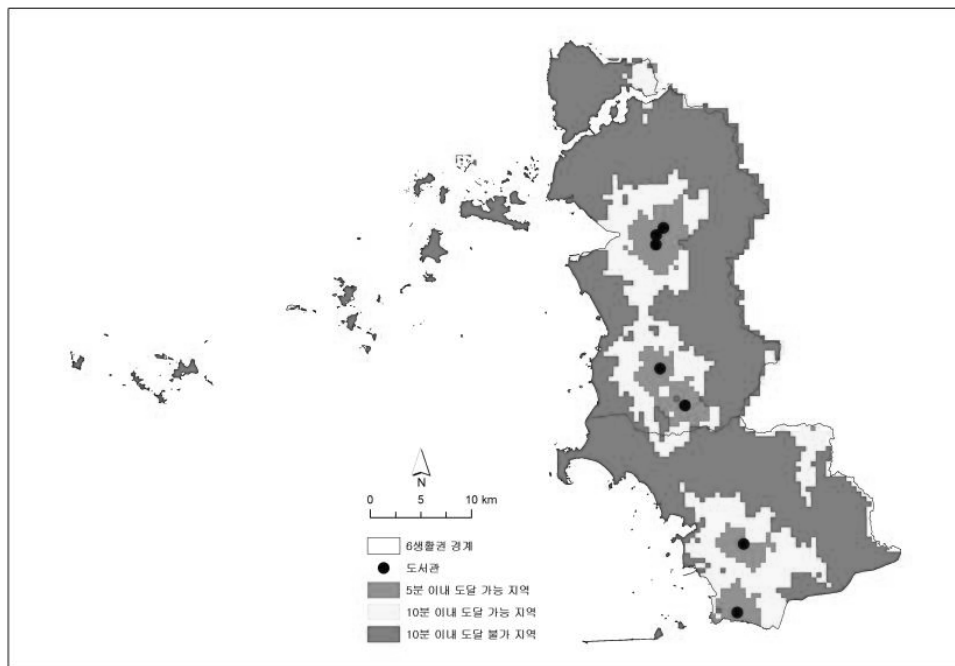
① 도서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도서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1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생활권(보령시, 서천군)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31,619.968ha로 전체 6생활권 면적의 32.91%를 차지한다. 또한 6생활권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04,387명으로 6생활권 인구의 68.19%로 나타났다.

[표 3-44] 6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6생활권		1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1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10분)	153,079	96,071.410	104,387	68.19	31,619.968	32.91

[그림 3-64] 6생활권 도서관 1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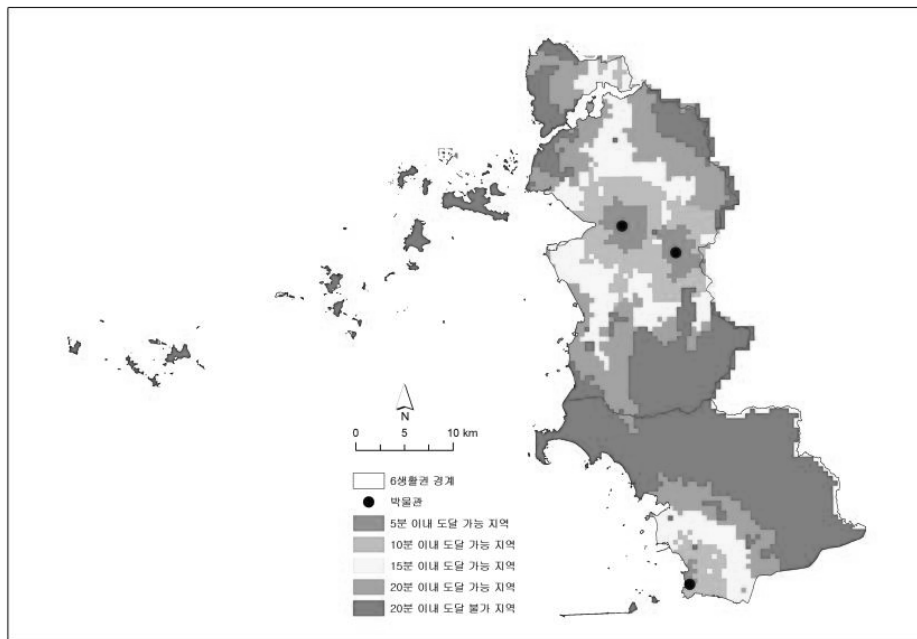
② 박물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박물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생활권(보령시, 서천군)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1,039.117ha로 전체 6생활권 면적의 53.13%를 차지한다. 또한 6생활권에서 박물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21,790명으로 6생활권 인구의 79.56%로 나타났다.

[표 3-45] 6생활권 박물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6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53,079	96,071.410	121,790	79.56	51,039.117	53.13

[그림 3-65] 6생활권 박물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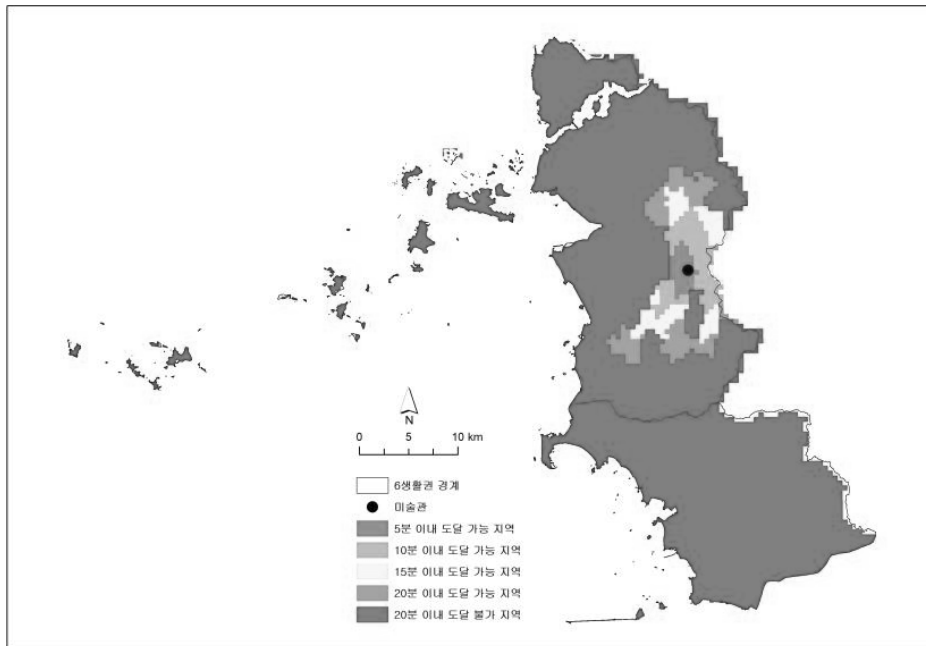
③ 미술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미술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생활권(보령시, 서천군)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11,625.000ha로 전체 6생활권 면적의 12.10%를 차지한다. 또한 6생활권에서 미술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8,691명으로 6생활권 인구의 5.68%로 나타났다.

[표 3-46] 6생활권 미술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6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53,079	96,071.410	8,691	5.68	11,625.000	12.10

[그림 3-66] 6생활권 미술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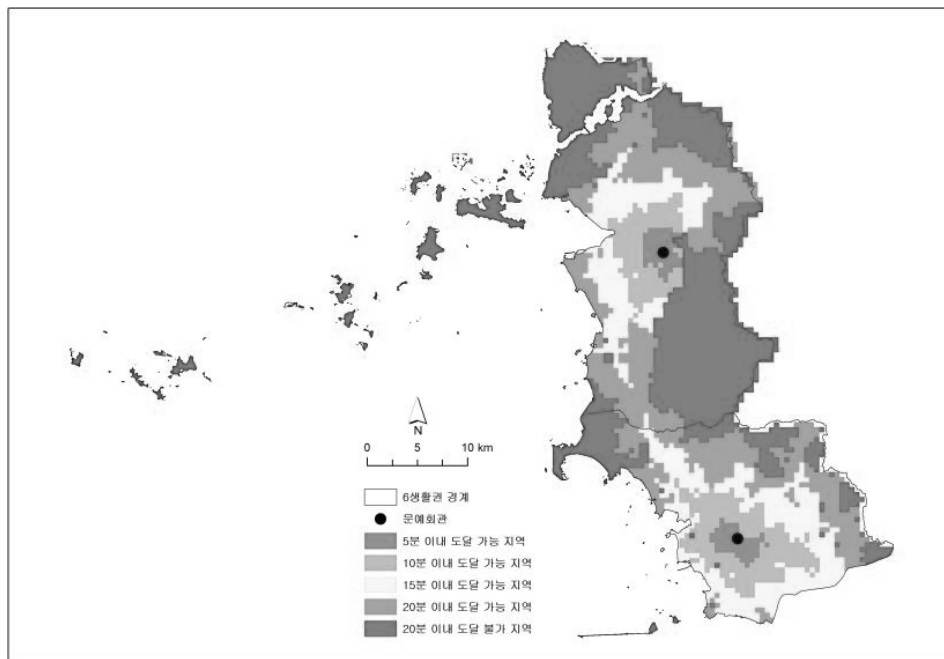
④ 문예회관 문화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충청남도 정밀도로망, 500×500격자 총인구, 문예회관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저기준인 차량 이동 2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생활권(보령시, 서천군)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면적은 57,066.450ha로 전체 6생활권 면적의 59.40%를 차지한다. 또한 6생활권에서 문예회관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는 129,964명으로 6생활권 인구의 84.90%로 나타났다.

[표 3-47] 6생활권 문예회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6생활권		20분 이내 접근 가능 총 인구		2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총 인구(명)	총 면적(ha)	인구(명)	비율(%)	면적(ha)	비율(%)
차량접근 (20분)	153,079	96,071.410	129,964	84.90	57,066.450	59.40

[그림 3-67] 6생활권 문예회관 20분 이내 접근가능 지역



5. 충남의 문화서비스 종합 진단¹²⁾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가구구조도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31.8%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나타났고, 수치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충남도민이 집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은 식당(17.4%)으로, 생활권 공간중심의 문화서비스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의 가구소득(경상소득)은 2017년 524만원으로 2011년 대비 145% 증가하였고,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여가비의 가계지출도 2018년 기준 11만 4천원으로 2016년 대비 123% 증가하였다.

2018년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는 160개소로, 시설의 성격에 상관없이 체험프로그램이나 강좌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기획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충남도민은 문화시설 공급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2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남의 문화기반 시설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문화기반시설의 불충분한 공급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도민의 연평균 문화행사 관람횟수는 0.69회로, 1인당 연간 1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영화'가 2.92회로 가장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는 평균 5.96점으로 '만족' 수준 인 것으로 보이며, '주말'의 '낮'시간(52.2%)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민의 관람 선택기준으로는 '관람 비용 적절성(2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20.9%)'가 문화행사 관람 시 어려운 부분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의 우선적인 보완 점으로도 '관람 비용을 낮춰야 한다(22.1%)'가 나타나, 도민들의 접근성을 위해 비용적

12) 충남의 문화서비스 종합 진단은 본 연구의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인 부분에 있어서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품질에서 서비스 유연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불만족한 사람들도 많은 영역이었다. 공공의 영역의 대부분의 경우 규정에 입각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접근의 편의성으로 입지와 주차시설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쾌적성 또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문화서비스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51.3%)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하는 시간에 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불만족이 48.7%로 나타나 서비스제공 시간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에게 접근성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28.2%로 나타났고, ‘원하는 문화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33.3%)’와 ‘문화소외계층에게 접근성을 높일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25.6%)’는 의견이 있어, 도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충남 문화서비스 참여경험자는 여성(59.7%)이 남성(40.3%)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40대(40.3%)와 30대(36.2%)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유 집단(79.1%)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았고, 가족 구성원 중 아동(만 6세~만 17세 이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시설 방문 목적은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40.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설을 이용할 때 중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며, 문화시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1.3분이고, 도서관(17.7분)의 이동 소요 시간이 가장 짧았다. 도민의 공공 문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는 ‘도움이 되는(70.1%)’이 가장 높았다. 문화서비스 우선 지원 필요 대상에 대해서도 ‘아동 및 청소년(26.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아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 문화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견으로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 좋은 문화

서비스를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은(89.1%)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 결정요인은 도서관만 나이가 어릴수록, 영유아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경우 개인적 특성과 가구 구성원 특성이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문화서비스 비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천안시에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부여군과 홍성군은 가장 적은 문화기반시설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모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박물관은 천안시, 아산시와 더불어 홍성군, 예산군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산시, 당진시는 박물관의 낮은 접근성을 보였다.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도 천안시, 아산시가 가장 높았으며, 보령시와 서천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은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홍성군, 예산군이 접근성이 높았고, 모두 비슷한 접근성을 보였으나,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이 다소 접근성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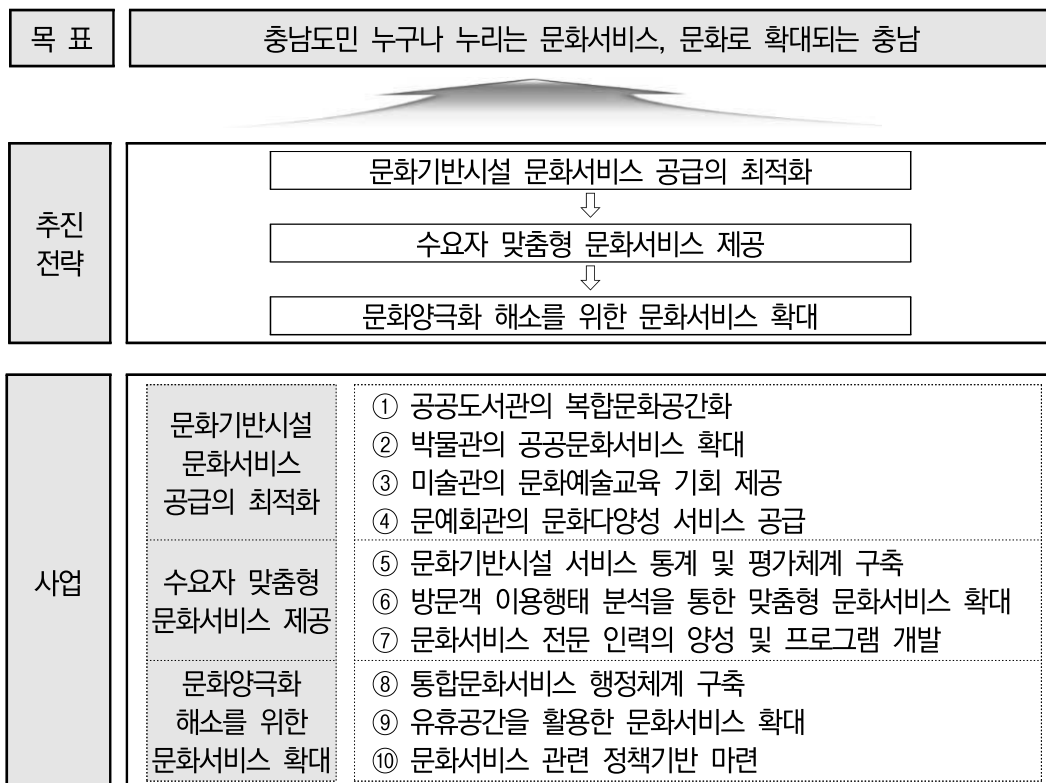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 진단하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중 도내에서 기준별 접근 면적이 가장 넓은 문화서비스 시설은 박물관이며, 접근 면적이 가장 좁은 문화서비스 시설은 미술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중 도내에서 기준별 접근 인구가 가장 많은 문화서비스 시설은 문예회관이며, 접근 인구가 가장 적은 문화서비스 시설은 미술관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네 가지 문화기반시설 중 미술관이 접근 가능 면적과 접근 가능 인구 모두 취약한 문화서비스 시설로 나타났다.

제4장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1.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추진 전략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도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서비스, 문화로 확대되는 충남’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로 도출하였다.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세부 사업인 ①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② 박물관의 공공문화서비스 확대, ③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④ 문예회관의 문화다양성 서비스 공급은 해당 기관에서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문화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2.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1)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① 배경 및 필요성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항에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를 주최하며, 평생교육 및 기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정지은 외, 2016).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총 1,096개소가 존재하는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가 약 47,287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4~5년간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봉사대상 인구 4.5만 명 당 1관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과 도보 15분~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을 권장하고 있어, 충남에서도 접근 규정을 참고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문화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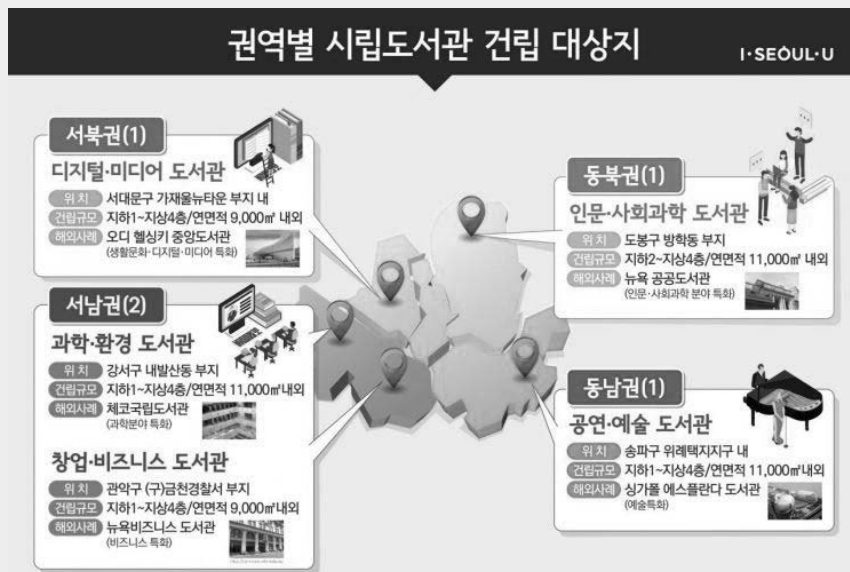
② 현황 및 사례

일본 내에 몇몇 필름 아카이브가 있지만 도서관 내 아카이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이 유일하며, 종합도서관 기본계획에 영상미디어센터가 포함되어 도서관 내에 영화 필름 전용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 이후 아시아의 필름 아카이브를 목표로 삼으며, 아시아영화, 고전명작, 후쿠오카국제영화제상영작, 일본영화, 기록영화,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후쿠오카시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여 귀중한 영상문화재로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집된 영상 자료들은 도서관 내의

상영 시설인 영상홀(시네라)과 미니 시어터에서 상설 상영되고 있다(정지은 외, 2018).

서울시가 총 31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서남권 2개소, 동북동남·서북권 각 1곳에 시립도서관 5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한다. 서울시는 단순히 책만 읽는 공부방이 아닌 주민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창작연구공간 역할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열린시민대학’을 통해 인문·예술·과학 등 분야별 평생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아시아경제, 2019.08.13.).

[그림 4-2]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지



자료 : 아시아경제(2019.08.13.).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1311395271200>.

또한 덴마크의 ‘Dokk1’ 도서관은 대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 방문 횟수가 높은 아이들 특성에 맞추어 도서관 자체를 거대한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유모차를 끌고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Dokk1’ 도서관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통로가 넓고 편리하여, 어린 연령대의 유아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충남의 공공도서관에서도 각 대상 방문객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만 유일하게 배치 기준을 인구 수 외에 입지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급을 권장하고 있다. 향후 충남 내 도서관을 건립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보 15분~20분(반경 1~1.5km) 내, 교통편의, 부지규모, 도민요구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 기본계획 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영화 필름 전용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충남 대표 권역별 디지털 도서관, 환경 도서관, 예술 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도서관 도시, 충남’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충남도서관 내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중인데, 향후 생애주기별 누구나 충남도서관에 방문해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충남도서관의 생애주기별 방문객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남 도민의 문화시설 이용 제약 조건으로 제기된 도서관 운영시간 개선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 충남도서관의 생애주기별 방문객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도서관 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영상홀, 미니시어터)을 통해 필름 전용 아카이브 구축
- 충남 대표 권역별 특성화(디지털 도서관, 환경 도서관, 예술 도서관 등) 지정 및 운영
- 충남 내 도서관의 운영시간 개선 모델 구축

[그림 4-3]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시네라와 미니시어터



자료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2018), 『공무국외여행보고서 : 후쿠오카현립사회교육종합센터 방문』.

④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충남 내 도서관 역할 재정립과 ‘도서관 도시, 충남’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충남 내 권역별 다양한 거점 도서관 구축을 통해 도민 누구나 함께 만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박물관의 공공문화서비스 확대

① 배경 및 필요성

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정지은 외, 2016).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총 873개소가 존재하는 박물관 1관 당 인구수가 약 58,903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인 인구 4만 명 당 1개소보다 미달하지만, 인구 5만 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대형인 10여개의 국립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원 중이며, 충남에서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현황 및 사례

독일에서는 미래 박물관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로 ‘museum4punkt0’라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을 통해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개별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박물관에서의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체험, 소규모 직원으로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museum4punkt0’ 프로젝트는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이 독일 내 5개의 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만들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3D 모델링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며,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발된 결과물은 독일의 모든 문화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과학 및 기술박물관(Deutschen Museums)의 가상현실 연구소의 방문객들이 오토 릴리엔탈의 첫 비행을 경험해보거나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독일 박물관 환경의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museum4punkt0’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방 문화·미디어부는 총 1,500만 유로(한화 약 197억 4,045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채혜원, 2019).

따라서 충남의 박물관에서도 디지털 문화유산 보전과 같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연구기관, 박물관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의 박물관에서도 방문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충남 내 박물관의 특성에 맞추어 3D 모델링,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최신 기술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야 하며, 박물관의 방문객들이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된 프로젝트의 자료들은 충청남도에서 프로젝트 보고서, 아카이빙 구축, 리소스 형태로 제작하여, 다른 박물관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 박물관 내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해 다문화꾸러미를 운영하여, 다른 나라의 언어와 역사, 자연 환경 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 ☐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디지털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 박물관의 문화유산 아카이빙 구축 및 문화서비스 제공
- ☐ 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문화다양성 서비스제공 확대

[그림 4-4] museum4punkt0 프로그램



자료 : museum4punkt0 홈페이지 <https://www.museum4punkt0.de/was-entsteht/>.

④ 기대효과

충남 내 박물관의 방문객들에게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서비스 경험을 확대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아카이빙 구축을 통해 박물관의 공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① 배경 및 필요성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서화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정지은 외, 2016).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총 251개소 존재하는 미술관 1관 당 인구수가 약 204,871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미술관 역시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인 인구 4만 명 당 1개소보다 미달하지만, 인구 5만 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립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미술관이 접근 가능 면적과 접근 가능 인구 모두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도립미술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공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현황 및 사례

최근 몇 년간 미술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미술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의 전시별 감상 가이드, PLAY MMCA 활동지, 도슨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에꼴 뒤 루브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청강수업도 개설되어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학 입문 수업 ‘주니어 클래스(Junior classes)’가 2018년 개설되었다. 이 수업은 클레르 바르비옹(Claire Barbillion) 루브르 박물관장이 개설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로, 현대 문화에 영향을 준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작품을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업의 일환이다. 수업 과정은 〈그리스 로마 신화〉, 〈역사와 일상의 위대한 인물들〉, 〈종교와 이미지〉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예술의 역사와 배경을 교육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나래, 2018).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에는 아직 미술관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기에, 충남 내 미술관에서 ‘주니어 클래스’를 운영하여 예술사적 작품을 어려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연대하여, 미술 전문가 및 박물관 큐레이터가 예비전문가를 양성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은 학적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충남도민이 문제로 제기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미술관 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를 운영하여, 미술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클래스(Junior classes) 운영
- ☐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연대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
- ☐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 투어 제공

④ 기대효과

충남의 미술관 내 ‘주니어 클래스’를 통해 청소년 예술교육에 있어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예술의 입문자인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들이 보다 심층 깊게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림 4-5]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료 : 김나래(2018). “청소년 예술학 입문 : École du Louvre Junior classes” 문화예술지식DB. 아키스브리핑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문예회관의 문화다양성 서비스 공급

① 배경 및 필요성

문예회관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을 지자체에서 건립하여 활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일반적인 예술 관람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이 확대되었다(정지은 외, 2016). 대도시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추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역할이 중요하여, 문예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예회관은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총 251개소, 충남에는 18개소가 존재하며, 충남의 인구 백만 명당 문예회관 수는 7.45개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소 당 지방 문예회관 건립비 국고지원은 약 20억 원 정도이다. 특히 충남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콘텐츠가 중요한 문예회관의 특화된 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② 현황 및 사례

충남 내 인근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운영되고 있는 문예회관은 공연장의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위에 다른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문예회관의 역할이 필요하다(양혜원 외, 2016). 2017년 조사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은 평균 158.7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공연장 외에 중규모 공연장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다.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는 이태리 밀라노 라스칼라극장, 프랑스 파리오페라극장, 영국 런던코벤트가 든로열오페라하우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오페라, 발레 등 세계 최고의 공연을 제작하여 각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기업 후원으로 만들어진 기업메세나의 모범사례이며, 오페라축제를 비롯해 뮤지컬페스티벌(DIMF) 등 국제규모의 예술축제를 통해 대구시를 공연예술의 메카로 변모시켰다(제민일보, 2019.03.12.).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문예회관은 약 2개에 불과하며, 충남 내 문예회관에서도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예회관을 설계하여 상시적으로 메세나 연계 공연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예회관에서 단순한 공연을 선보이는 것에 벗어나 신선한 창작물 및 기획물을 선보여 공연에 자원봉사의 개념을 결합하는 문화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서비스에서 나아가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 ☐ 충남 내 문예회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 ☐ 문예회관과 연계한 기업메세나 프로그램 확산
- ☐ 문예회관 창작품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제공

[그림 4-6]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사례



자료 : 내외뉴스통신(2019.10.08.).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16>.

④ 기대효과

공연장 기능이 특화된 충남의 문예회관으로 구축될 수 있으며, 특히 예술 활동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도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거버넌스가 형성될 것이다.

2)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1)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여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해당 시설 협회에 의한 보고통계 형태로 이루어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중 등록된 박물관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남 내 미등록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충남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있어 지속적 관리를 위해 현황, 서비스 제공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각 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로 별도 운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8년부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본 평가에는 도서관서비스(정보서비스, 독서·문화/정보격차해소)의 내용을 포함하며, 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시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운영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의 경우 2013년 ‘문예회관 운영평가’, 2014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등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양혜원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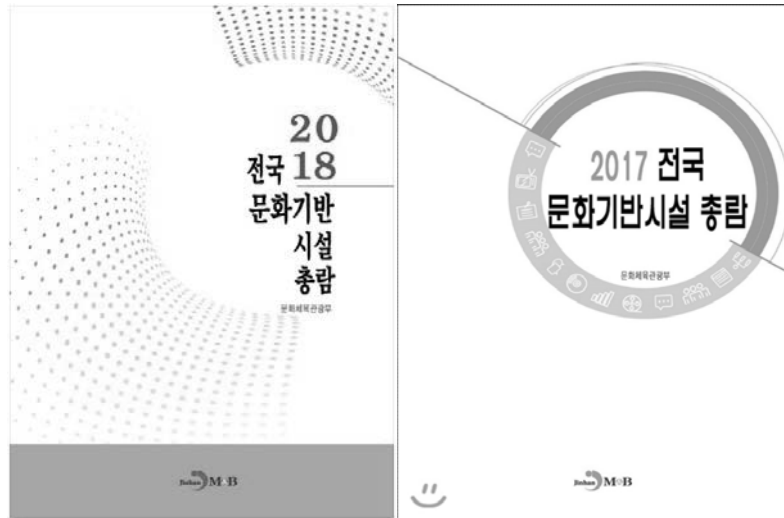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경향신문, 2019.06.24.).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체계적인 통계 축적을 위해 운영 현황, 서비스 제공 등 세부 항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자체 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평가인증제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 실시 및 통계시스템 구축
-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 평가체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그림 4-7] 2017~2018년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④ 기대효과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 및 각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평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향후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방문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① 배경 및 필요성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도민이 문화기반시설을 방문하고 싶어도, 퇴근 후 방문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장훈 외, 2018). 따라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행태 분석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충남의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 및 청소면 행복지구 사업 연계로 주 3일 6시간씩 책 읽어주는 선생님 활동을 통해 1~2학년 학생 및 토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청소 BBS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가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디트뉴스24, 2019.09.03.).

예술의 전당에서는 1996년부터 문화시설 내 보육공간인 ‘어린이 나라’를 운영해왔으며, 2010년 롯데기업의 후원을 통해 ‘키즈 라운지’를 운영하여, 어린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공연 관람에 집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키즈 라운지 내에는 전문교사 3명이 상주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따로 예약 시스템이 필요 없이 당일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의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연 시작 30분 전에 방문할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육아 계층 방문객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방문객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방문객의 이용 형태 및 조사를 선행하여,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최대의 고객 중 하나인 육아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에, 문화기반시설 내 키즈 라운지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 방문객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운영시간 확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문화기반시설의 방문객 이용 행태 조사 및 분석
-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키즈 라운지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효율적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 맞춤형 운영시간 확대

[그림 4-8]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



자료 :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http://www.sac.or.kr/>

④ 기대효과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및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문제로 야기된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제약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①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에서 도민들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문 인력 양성’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 전문 교육과 충남의 각 문화기반시설별 특화된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서비스 품질 향상은 단기적인 전략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 토대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서비스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훈 외, 2018).

공연장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인력교육’이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전국 51개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교육은 서비스 기본교육과 공연장 안전교육으로 이루어진 기본 실무과정 30회, 기본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실무과정 21회로 진행한다.

하우스매니저 5년 이상 경력의 전문 강사들이 직접 문예회관을 찾아가 공연장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객석 관리 및 안내, 관객요구 응대, 공연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등에 대한 대비를 실제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인력교육’은 서비스 전문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방 문예회관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무적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문예회관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이데일리, 2019.05.13.).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인력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교육의 내용에는 고객 응대 및 사례, 안전교육 등 서비스 기본 교육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서비스 인력 외에도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중요하다.

향후 충남 내 각 문화기반시설의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인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인력교육 실시
- ☐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충남형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시범운영

[그림 4-9] 찾아가는 서비스 점점인력교육



자료 : 경향매일신문(2019.09.16.), www.ksmnews.co.kr, 이데일리(2019.05.13.), www.edaily.co.kr

④ 기대효과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으로 문화기반시설 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문화서비스 지원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누리는 양질의 문화서비스와 문화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3)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1)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문화서비스의 이용은 개별 문화기반시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장훈 외, 2018). 그러나 현재 각 시설별 전달체계와 행정체계의 다름으로 인해 상호간 교차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남 내 각 시·군·별 도민의 문화향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충남 내 문화 시설의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현황 및 사례

러시아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포털사이트의 구독자가 2018년 한 해 동안 72%

증가하여 1,7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문화예술 포털사이트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문화예술 포털사이트는 콘텐츠의 풍부함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문화플랫폼으로 진화해나가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니즈에 부응하는 선행 사례로 꼽힌다.

2012년에 시작된 포털 Kultura.RF는 10,000개 이상의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러시아에 있는 80,000개 이상의 문화기관(박물관, 극장, 도서관, 콘서트 홀, 문화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ultura.RF는 전국적인 문화 행사인 ‘박물관의 밤’, ‘극장의 날’, ‘도서관의 밤’ 및 ‘예술의 밤’의 공식 정보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0,000개 이상의 이벤트에 관한 정보가 게시된 포털의 광고에 기반을 둔 ‘문화 달력’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이은경, 2019).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독립·예술영화유통지원센터(가칭)’을 새로 만들 예정이며, 독립·예술 영화들의 통합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상영관에 영화들을 연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충남에서도 다양한 문화 기관의 공연 및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합문화서비스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내 문화 기관(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센터 및 클럽 등)의 다양한 공연 및 문화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통합문화서비스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각 문화기반시설의 시스템은 따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방문하기 어려운 충남 내 문화 기관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방송하여 포털 구독자들이 라이브로 볼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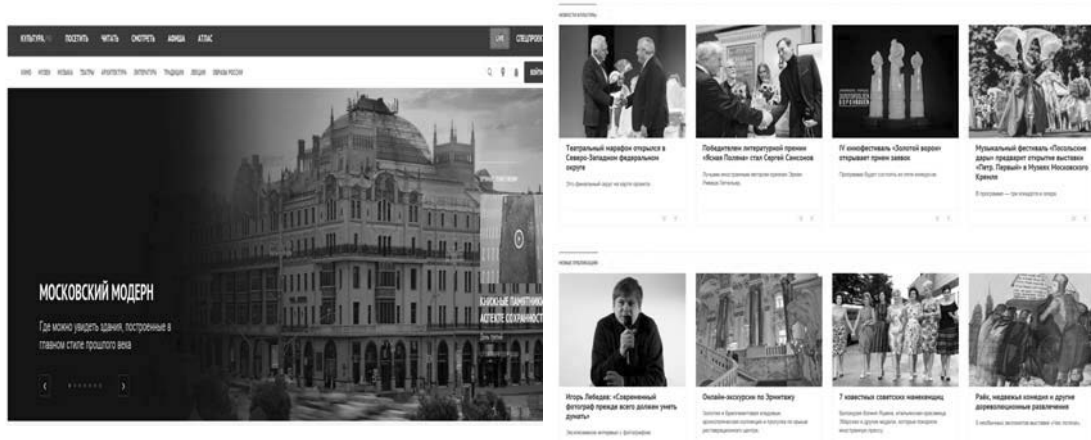
도민의 위치를 고려한 스마트 지도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인근 지역의 문화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 기관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중요하다.

□ 충남 문화예술 포털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충남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생중계 문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지도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그림 4-10] Kultura.RF 홈페이지



자료 : Kultura.RF 홈페이지 <https://www.culture.ru/>.

④ 기대효과

충남의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은 도민의 문화향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설별 프로그램의 중복에 대한 긍정적 대안이 될 것이다.

(2)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확대

① 배경 및 필요성

문화소비 시대를 맞아 시·군별로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문화시설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여 문화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수요에 맞춰 문화시설을 계속적으로 건립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시설의 행정 구역별 배분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존 문화시설 재조정, 문화 사각지역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전병태 외, 2014).

② 현황 및 사례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 방안 연구(2014)’에서는 충남 내 유휴시설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청양군 월촌마을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를 꼽았다.

월촌마을은 청양군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청양읍 교월 1리에 위치해 있으며, 1970년 마을주민에 의해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졌다. 어린이놀이터 유희화 원인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노후화, 시설물의 부식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로 어린이들의 이용 빈도가 감소한데 있다. 본 공간을 마을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층을 위한 문화 여가 활용 및 소통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시청각영상 체험 기능을 겸비한 문화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전병태 외, 2014).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민간 기업이 세운 방직공장이 있던 곳을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가나자와 시가 사들여 1996년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사용 가능한 공방으로 만든 사례이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총 네 개의 공방과 오픈스페이스, 마을 산의 집이 있고, 야마토 광장에는 퍼포밍 스퀘어가 있다. 각 공방에는 디렉터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고, 예술촌에서는 기획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 밖에도 공연과 강연, 전시 등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을 실시한다.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단계별 추진 절차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한다. 먼저 유희시설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실시하고, 이후 선정된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마지막 단계로 충남 내 유희시설의 공간 리모델링 실시 및 운영 후 진단과 컨설팅 중심의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결과는 비 활성화된 공간에 대한 컨설팅 및 향후 우수 공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내 화력발전소나 공장 같은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정신 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문화예술 하우스를 운영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돌봄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화·복지 측면에서 결합된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충남 내 유희시설의 현황 및 수요 파악

□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단 운영

- 충남 내 유희시설의 공간 리모델링 실시 및 모니터링 평가
- 충남의 문화예술 하우스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림 4-1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경



자료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 <https://www.artvillage.gr.jp/>.

④ 기대효과

충남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문화예술 하우스 조성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문화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남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기반 마련

① 배경 및 필요성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2019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20~2024)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충남에서도 지역문화진흥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데, 계획 내 문화서비스 확대 정책 발굴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자치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최근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있다(정지은 외, 2017). 따라서 충남 내 주요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에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주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확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양혜원 외, 2016).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같은 법정 계획 조례에 문화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문화진흥기본계획’과 같은 충남 내 주요한 문화예술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에 문화서비스 정책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같은 문화기반시설, 공연장의 조례에 문화서비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 ☐ 충남 문화예술 관련 계획 내 문화서비스 정책 발굴
-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문화서비스 내용 추가 개정
- ☐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④ 기대효과

향후 충남의 문화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책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의 주요한 계획, 조례에 문화서비스 정책내용을 포함한다면, 충남 도민 누구나 문화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문화예술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충남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시장이 실패한 영역과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현실과 수요자의 기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 문화서비스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장훈 외, 2018).

충남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확대가 강조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및 충청남도의 「민선7기」 흐름과 목표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문화서비스 현황과 충남의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충남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의 문화서비스 수요 및 공급 여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충남도민의 문화서비스 참여 경험 분석, 충남 문화서비스의 GIS 네트워크 분석 및 충남 문화서비스의 종합 진단을 통해 충남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충남 문화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 및 참여 경험, GIS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충남 문화서비스 종합 진단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도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서비스, 문화로 확대되는 충남’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로 구축하였다.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박물관의 공공문화서비스 확대’,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문예회관의 문화다양성 서비스 공급’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공도서관 사업은 ‘충남도서관의 생애주기별 방문객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서관 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영상홀, 미니 시어터)을 통해 필름 전용 아카이브 구축’, ‘충남 대표 권역별 특성화(디지털 도서관, 환경 도서관, 예술 도서관 등) 지정 및 운영’, ‘충남 내 도서관의 운영시간 개선 모델 구축’ 등이다.

공공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디지털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박물관의 문화유산 아카이빙 구축 및 문화서비스 제공’, ‘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문화다양성 서비스제공 확대’ 등이다.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관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클래스(Junior classes) 운영’,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연대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 투어 제공’ 등이다.

문화다양성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예회관 사업은 ‘충남 내 문예회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문예회관과 연계한 기업메세나 프로그램 확산’, ‘문예회관 창작품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제공’ 등이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는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방문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서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 실시 및 통계시스템 구축',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인증제 도입', '평가체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이다.

방문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의 방문객 이용 행태 조사 및 분석',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키즈 라운지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적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 맞춤형 운영시간 확대' 등이다.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인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인력교육 실시', '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충남형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시범 운영' 등이다.

셋째,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정책과제는 '통합문화서비스 행정 체계 구축',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기반 마련' 등이다.

통합문화서비스 행정체계 구축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포털사이트 개설 및 운영', '충남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생중계 문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위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지도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이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은 '충남 내 유휴시설의 현황 및 수요 파악',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단 운영', '충남 내 유휴시설의 공간 리모델링 실시 및 모니터링 평가', '충남의 문화예술 하우스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문화서비스 정책기반 마련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관련 계획 내 문화서비스 정책 발굴',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문화서비스 내용 추가 개정',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기반시설 수요 및 공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과 연구들이 주를 이룬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로, 도민의 수요조사를 다양한 기반시설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충남의 각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문화서비스 현황 사례 분석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속가능한 충남 문화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나래 (2018). “청소년 예술학 입문 : École du Louvre Junior classes” 문화예술 지식DB. 아키스브리핑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상조·김동근·이선용·강우석(201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연구』, 국토연구원.
- 김영표·임은선(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혜안·김연산·정보람(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기성(2011). 『2015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 _____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_____ (2018b).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 _____ (2018c).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_____ (2019a).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_____ (2019b).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박철화·김양중·조소잔·신선하(2018). 『2018 충청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충남 문화재단.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2018). 『공무국외여행보고서 : 후쿠오카현립사회교육종합센터 방문』.
- 양혜원·변태근·홍하연·노수동(2016).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용준·임준홍·임형빈·김형철(2016).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 이은경(2019). “러시아 문화예술 포털사이트의 전략과 온라인 문화 플랫폼으로의 진화”.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0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훈·김홍규 정보람·손동기(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김미옥·오현아·김수경·유상숙(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지은(2015). 『지역예술축제의 서비스품질과 스토리텔링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예술축제 브랜드 자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박철화·백운성·오용준·이제아·최돈정·최웅산·서수만·정인선(2018).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____·이인배·서재승(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 ____·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 충남연구원.
- 조아영(2019).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연구 :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혜원(2019). “독일의 박물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museum4punkt0’ ”. 문화예술 지식정보시스템. 해외자료브리핑 제4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충청남도(2019), 『2019년 주요업무계획』.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____ (2019), 『장래인구추계: 2017~2047년』.

〈보도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 <https://www.artvillage.gr.jp/>.
- 경상매일신문(2019.09.16.). 포항문화재단, 찾아가는 서비스 점점인력교육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2580&part_idx=264에서 2019.10.20. 인출
- 경향신문(2019.06.24.). 2023년까지 박물관 미술관 186곳 추가 건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41150001&code=960205에서 2019.10.20. 인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molit.go.kr>.
- 내외뉴스통신(2019.10.08.). 대구오페라하우스 우리 오페라의 강력한 리더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16>에서 2019.10.20. 인출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zoe87/220845199237>.
- 다문화꾸러기 홈페이지. <https://www.artvillage.gr.jp/>.
- 동양일보(2019.01.27.). 풍향계/ 워라벨과 소확행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751>에서 2019.10.20. 인출
- 디트뉴스24(2019.09.03.). 보령 청소초, 배움의 샘 ‘원천’ 방과후학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328>에서 2019.10.20. 인출
- 머니투데이(2019.04.22.). [기자수첩] 대동사회, 워라벨 그리고 경기도의 기본소득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42208598088192>에서 2019.10.20.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 브런치(2016.04.20.). 장애인을 배려한 접근성이 좋은 판압베 미술관
<https://brunch.co.kr/@neddaland/68>에서 2019.10.20. 인출
- 아르떼365(2018.01.08.). 도서관, 문화예술작품이 되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도서관
<http://arte365.kr/?p=63529>에서 2019.10.20. 인출

- _____(2018.08.07.). 박물관에서 나를 만나다 치매 노인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http://arte365.kr/?p=60546>에서 2019.10.20. 인출
- 아시아경제(2019.08.13.). ‘도서관 도시, 서울 만든다’ 시립도서관 5개 건립…3100억 투입 (종합)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1311395271200>에서 2019.10.20. 인출
- 예술경영웹진(2014.10.30.). 연중무휴 24시간 예술을 창조하는 곳 [해외동행]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http://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1409&page=7&c_idx=88&searchString=&c_idx_2=에서 2019.10.20. 인출
- 예술경영웹진(2014.10.30.). 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는 시민들 [이.상.공간] 전주동문예술거리 전주시민놀이터
http://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1413&page=7&c_idx=88&searchString=&c_idx_2=에서 2019.10.20. 인출
-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http://www.sac.or.kr/>.
- 이데일리(2019.05.13.). 한문연, 찾아가는 서비스 점점인력교육 실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8&aid=0004376637>에서 2019.10.20. 인출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main/index>.
- 제민일보(2019.03.12.). [시론 답론] 오페라하우스와 제주문화도시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946>에서 2019.10.20. 인출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main.do?cate=1>.
- Kultura.RF 홈페이지. <https://www.culture.ru/>.
- museum4punkt0 홈페이지 <https://www.museum4punkt0.de/was-entsteht/>.

[부록1] 자문의견

① 자문회의 개요

- 일시: 2019년 05월 07일
- 대상/방법: 자문위원 2인 / 사전자문회의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문 위원	•[연구목적의 명확화]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 보다 미시적 관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중앙정부 및 충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와 맞는 키워드로 연구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에 포용, 공공서비스, 친화적 공간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야 함 •[연구범위의 한정] 본 연구의 범위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꼽을 수 있음. 먼저 공급자의 연구 범위는 문화기반시설 중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본 연구 예산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1차 대상으로 보는 것을 추천하고, 특히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급적 측면의 연구범위로 가장 적합함. 또한 수요자는 타겟팅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일반대상보다 문화적 소외계층(유아, 노인)의 문화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 방법] 본 과제의 예산에 맞추어 연구 방법론을 진행해야 함. 문화기반시설 방문자의 경험추출(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 : 미시적 관점 연구에 적합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예산이 많이 들, 거시적 관점 연구에 적합함)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함. 또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타 중앙정책 및 사례 검토] 선행 중앙정책 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통계조사 및 개념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선행 사례를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 향후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을 때 연계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착수연심회 자문의견

① 착수연심회 개요

- 일시: 2019년 05월 09일
- 대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1인, 충남연구원 4인, 자문위원 2인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문 위원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과제로 생각되며, 특히 충남 여건에 맞는 문화서비스 정책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함. 큰 의미에서 충남의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길 필요가 있음. 또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명확해야 하며, 구체화시켜야 함 •[연구의 방법] ① 중앙정부 통계자료(문화향유실태조사, 국민여가 활동조사) 등의 자료와 ‘2018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실시된 공급수요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연구 예산의 범위에서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부분이 더 적합해보임 ② 연구대상을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관된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위주로 볼 것인지, 시군별 문화향유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기관(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결과] 공급 부분에서는 충남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 부분에서 연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문화서비스가 누구(보편적 대상·취약계층 대상)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문화서비스의 공급량 외에도 품질(Quality)에 대한 내용도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존재함
반영 사항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충남 문화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도출함. 또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진행된 자료(문화기반시설 총람,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문화서비스 대상을 보편적 대상과 취약계층 대상 모두를 고려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도출함

□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① 최종연심회 개요

- 일시: 2019년 11월 4일
- 대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1인, 충남연구원 4인, 자문위원 2인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문 위원	•[연구의 흐름체계] 본 연구는 문화서비스 개념과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며, 특히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문화서비스 방안들을 도출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음. 향후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양하게 진행한 연구 방법(GIS 네트워크 분석,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 •[연구의 단어 및 사업 보완] 본 연구에서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는 부분에서 단어들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유희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충남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임.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서비스 사업 내용들을 추가 및 강조하는 것을 권장함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예산과 기간의 한계로 인해, 연구 목적을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길 바람
반영 사항	•[연구의 맥락 수정]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공급 분석·참여경험 분석(설문)·GIS 네트워크분석 등의 결과를 보완하여 정리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 맥락을 적절하게 수정함 •[연구의 후속 과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방안들을 도출하였는데,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각 사군별 문화서비스 현황 사례 분석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을 제안함

[부록2] 전문가 세미나

가. 개요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0:30 ~ 12:00	
장소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참석자	발제자(2인)	장훈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창섭 교수(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진행(1인)	정지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좌장(1인)	여운영 의원(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토론자(13인)	김연 위원장, 김옥수 의원, 김기영 의원, 김한태 의원,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박은영 주무관, 이유정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승화 책임연구원(충남문화산업진흥원), 허창덕 문화산업팀장, 강병락 관광진흥팀장(충남도청)

나. 내용

▶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주제 1: 지역의 문화서비스 개선 방향

오늘 발제할 내용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부 유동인구도 관련이 있지만 문화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화서비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서비스의 개념은 언뜻 많이 들어본 용어이지만 한편으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도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문화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도 이 개념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 교육이 있지만 왜 안 썼을까하는 생각과 써도 될 텐데 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복지, 요양, 돌봄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문화서비스와

그 개념에서 다릅니다. 연령이 몇 세 이하, 이상으로 특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수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계획이 정해져있고,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문화서비스는 지역민 모두이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불특정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과 수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정확하지 않다보니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입니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주요 문화시설로 포함이 되는데 이 공간이 주민, 시민에게 공공재로서 문화적인 것을 전달하는 수단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스 개념이 정책화 되지 못한 것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389개 미술관 70여개에서도 공급계획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요구는 현장에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서비스는 중요한 개념, 중요한 이유가 삶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필수재로서의 삶의 방식에서 결핍의 시대를 지나오고 그 위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결핍에서 벗어나서 자기 색을 입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최근 워라벨 현상과 일맥상통합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예전과 다른 삶의 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찌 보면 놀기 위해 일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들의 가치는 절대적 빈곤,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서비스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10년 동안 28%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 방문객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하니까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전반적 문화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문화서비스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해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서비스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작년에 문화서비스 수요자가 누구이고, 이 수요자들의 참여단계를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베이스로 하여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갈지 말지 결정할 것이고, 결정한 후엔 모르는 곳이라면 정보탐색을 할 것입니다. 구글 맵

등을 통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위치, 운영시간 정보 등을 정보를 탐색합니다. 후에 접근하기 위해 차를 탈지, 버스 탈 것인지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이용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혹은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품질에 합당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정책 분들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콘텐츠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제공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러 갔다가 책을 보는 것이 아닌 책을 먼저 보러 갔다가 차를 마셔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배경으로 깔리면 안 되는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이용단계에서 신규서비스 진입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정책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보니 접근이 안 됩니다. 기능이 먼저고 수요자, 시민, 주민들은 이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각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어렵 짐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제약 사항들을 작년에 연구해왔습니다.

진단해보니 미술관, 박물관 종사자분들이 속상하실 수 있지만 현재로선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서비스에서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도서관이 리더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참여특성 또한 따릅니다. 도서관은 매일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방문자가 40~50%입니다. 미술관은 분기당 1회, 반기 1년, 분기 1회 미만 방문객이 80~90%입니다. 수요 자체가 하나는 일상적 수요, 다른 하나는 간헐적 혹은 이벤트성 수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술관 방문객은 이벤트성 수요이기 때문에 그 배경적 역할을 살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성은 박물관, 미술관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1차적인 목적이 아닌 2차적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단위의 방문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가서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육구인식, 의사 참여 부분은 문화향유 특징에서도 나타나는데, 문화서비스에서도 애석하게도 핵심적 수요층이 1%가 안 됩니다. 핵심적 수요층은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핵심적 수요층이 핵심적 기능과 연결이 된다면, 핵심적 기능보다 다른 이유에서라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고려하고 신경써주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체감하는 제약은 시간의 비대칭입니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도서관은 22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연다면 대략 2천만 직장인들은 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의 비대칭이 심한데 아무도 이 점에 대해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야간연장으로 운영하고, 또 주말에 이용하라는 것인데 이점도 당연한 것처럼 보기보다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최근 52시간이 되면서 저녁시간 활용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저녁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면대면 서비스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오고 무인서비스화 되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그 전보다 이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공간 사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면대면 서비스가 주는 탁월한 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4차 산업 이후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이성적인 부분은 기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기술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역량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점이 면대면 서비스이며, 이것을 통해서 면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환경품질도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클린화장실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어느 곳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편안함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서는 관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무조건 정숙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험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하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점 외에도 심리적인 면에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대안적으로 카페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수요자 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요하고 있는 분들과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 이용의 의향이 있는 분들, 향후에도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방시간과 관련된 연구를 봐도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높습니다. 교체 휴관일을 정해서 같은 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월요일

에 하루 휴관하면, 다른 곳은 화요일에 휴무하는 등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휴관일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를 보았더니 도서관도 주당 평균 72시간 정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개방시간인 68시간보다 많이 개방하고 있고, 수치를 보면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자발적 개방 연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는 미술관은 주당 48시간 박물관은 주당 52시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이 깁니다. 휴관을 잘 안합니다. 개관 평균 314일 대비 10일 더 서비스하는 342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하려고 자료를 살펴보니, 충남 지역은 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개방 하여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수요자의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상적 수요를 하고 있는 분들은 비용부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부분입니다. 수요자들은 문예회관에 높은 수준의 공연을 요구하며, 공연의 가격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수준은 높아져 있고 서비스품질은 그것을 못 따라가면 괴리가 발생해서 공연장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연장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점이지만 지역에서도 서울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용적 부담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환경을 친숙하게 개선하는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전략을 세워왔고,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시면 수요자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자와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적합성으로 수요, 공급의 적합성, 매칭입니다. 먼저 시간 적합성을 제안합니다. 이 연구에서도 시간의 불일치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가장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연구를 해 보았더니 17시~21시가 이용시간 최적의 서비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9시~18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의 경우 22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는 귀가 하는 차편의 문제 등으로 이용자 수가 떨어집니다. 이곳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21시까지 하고 나머지 4시간의 주말로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주말의 수요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량을 정하고 수요에 맞게 조율하는 등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 적합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민간의 서비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민간 수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력의 재교육, 인력 충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용은 크게 문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물관 미술관 이용자는 야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면 4천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구구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노령화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 정책 수립자들이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기존의 시설만 늘리면 된다는 점에서는 탈피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설이 늘리는 점도 필요하지만 적합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점 두 가지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충남도에 보조금 사업이 많을 텐데 서비스 전달에 있어 심플해져야 합니다. 문화 기반 시설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전달체계가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은 평균 4명 정도 근무하면서 22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위주로 브랜딩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민에게 체감이 크고 브랜드화 될 수 있습니다.

포용성 확대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시간, 공간이 늘어나도 이곳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생활권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술치료 등이 필요한 분들, 이것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면 부담되지만,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포용성 부분에서 문화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록3] 충남의 공공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충남의 공공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전략과제인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현황 및 확대방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연구의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충남의 공공문화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연구의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9. 10.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일반현황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주 소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 (세부주소)
	지번	(시·군·구) (읍면동) (세부주소)
설문지 장소	① 충남도서관 ② 국립공주박물관 ③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④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문1. 아래의 귀하의 가구원에 관한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은 지난 1년간 생계를 같이 한 가족 구성을 말합니다.

가구원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어져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유학, 군복무(군인), 임원, 요양(노인 등), 해외 및 지방근무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등) 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입주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가구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모든 가구원 수는 응답자를 포함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1-1 영유아(만5세 이하) 가구원수	명	1-2 노인(만65세 이상) 가구원수	명
1-3 아동(만6세~만17세 이하) 가구원수	명	1-4 등록 장애인 가구원수	명

문2. 귀댁의 가구유형은 어떻게 유형입니까? 다음 보기 중 응답해 주십시오.

- ①(한)조부모+부모+자녀 ②(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③부부+자녀
 ④한부모+자녀 ⑤조부모+손자녀(조손가정) ⑥부부
 ⑦친인척+친인척 아동 ⑧1인 가구 ⑨기타(기재:)

문3. 귀댁 가구의 생애주기(해당되는 시점)는 어떻게 됩니까? 가구주를 기준으로 다음 보기 중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미혼 ②첫 자녀 출생전 ③첫 자녀 출생~초등학교 입학전
 ④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⑤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⑥첫 자녀 대학 교육기
 ⑦비경제 활동 자녀 동거기 ⑧경제활동 자녀동거기 ⑨노인(노부부, 사별, 이혼 노인)가구

문4. 귀 닻은 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시요.

	귀 닻의 상황	예	아니오	모름	비해당
4-1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원이 된 사람이 있다(다문화 가족)	①	②	③	④
4-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급 대상 가구다	①	②	③	④

문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농/임/어업(문5-1) ② 자영업(문5-1) ③ 판매/영업/서비스직(문5-1)
 ④ 생산/기능/노무직(문5-1) ⑤ 사무/관리/전문직(문5-1) ⑥ 주부(문6)
 ⑦ 학생(문6) ⑧ 무직/퇴직/기타(문6)

문5-1. (문5의 1~5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의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르바이트 ② 임금·봉급 근로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 고용원 없는 자영업

문5-3. (문5의 1~5번 응답자만)귀하의 사업장(직장) 규모는 무엇입니까?

- ① 1,000인 이상 ② 300~1,000인 미만 ③ 100~300인 미만
 ④ 50~100인 미만 ⑤ 20~50인 미만 ⑥ 5~20인 미만
 ⑦ 5인 이하 미만

문6. (모든 응답자) 귀하의 지난 1년 동안(2018년 11월 1일 ~ 2019년 10월 31일)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6-1	본인 소득	6-2	가구 전체소득
-----	-------	-----	---------

- ① 소득 없음 ② 월평균 1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월평균 400만원~500만원 미만
 ⑦ 월평균 500만원~600만원 미만 ⑧ 월평균 600만원~700만원 미만 ⑨ 월평균 700만원~800만원 미만
 ⑩ 월평균 800만원~900만원 미만 ⑪ 월평균 900만원~1000만원 미만 ⑫ 월평균 1000만원 이상

B. 문화서비스 이용 경험

※ 문화서비스 시설이란?

- 문화서비스시설은 문화·인문·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문화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응답입니다.

문1. 다음에 제시된 문화서비스 시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2018년 11월 1일 ~ 2019년 10월 31일) 문화서비스·문화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이용한 시설에 대해 각각의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1. 방문 경험	해당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만			
		1-2. 주 이동수단	1-3. 이동소요시간	1-4. 방문빈도	1-5. 방문빈도 (우선순위)
	① 있다 ② 없다	① 도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④ 기관차량(셔틀) ⑤ 자전거/오토바이 ⑥ 기타()	응답하신 교통수단으로 평균 몇 분(편도) 소요 됩니까?	① 매일(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몇 달에 1번 ⑥ 기타()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 문화서비스 시설의 방문빈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1. 도서관			_____분		순위
2. 박물관			_____분		순위
3. 미술관			_____분		순위
4. 문예회관			_____분		순위

문2. 귀하가 위에서 답변하신 문화서비스 시설에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3순위까지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② 휴식 및 안정을 위해	③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④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⑤ 대인관계 및 교제를 위해	⑥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⑦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⑧ 문화예술이 좋아서	⑨ 기타()

C. 문화서비스 인식 및 니즈(공통)

문1. (인지) 귀하는 공공(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 ②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함
- ③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 ④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문2.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생각나는대로 가까운 쪽에 v 표시해주시요.

	← 중간 →								
① 유쾌한	☐	☐	☐	☐	☐	☐	☐	☐	불쾌한
② 친숙한	☐	☐	☐	☐	☐	☐	☐	☐	어색한
③ 혁신적인	☐	☐	☐	☐	☐	☐	☐	☐	진부한
④ 민감한	☐	☐	☐	☐	☐	☐	☐	☐	둔감한
⑤ 깨끗한	☐	☐	☐	☐	☐	☐	☐	☐	불결한
⑥ 편안한	☐	☐	☐	☐	☐	☐	☐	☐	불편한
⑦ 도움이 되는	☐	☐	☐	☐	☐	☐	☐	☐	도움이 안 되는
⑧ 공정한	☐	☐	☐	☐	☐	☐	☐	☐	불공정한
⑨ 가까운	☐	☐	☐	☐	☐	☐	☐	☐	멀리 있는
⑩ 열려있는	☐	☐	☐	☐	☐	☐	☐	☐	닫혀있는
⑪ 품질 좋은	☐	☐	☐	☐	☐	☐	☐	☐	품질 나쁜

문3. (필요성/공급주체) 아래는 문화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급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서비스를 정부에서 전담해서 제공하는 방식 또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여 사용하는 방식 중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필요하지 않다	필요/정부가 전담	필요/민간이 전담	필요/정부-민간이 분담
3-1. 문화서비스	①	②	③	④

측 정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2. 품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	☐

3-3. 정부에서 문화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장애인	② 빈곤계층	③ 노년층
④ 육아계층	⑤ 아동 및 청소년	⑥ 청년층
⑦ 다문화가정	⑧ 직장인	⑨ 기타()

문4. 만일 향후 월평균 문화서비스 비용이 아래와 같이 오른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자녀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10% 미만 상승	10~20% 상승	20~30% 상승	30%이상 상승
이용 의향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①있음 ②없음

D. 문화서비스 욕구 및 이용 제약(공통)

문1. (여건) 아래 질문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측 정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① 내 삶에 문화여가생활은 필요하지 않다.	☐	☐	☐	☐	☐
② 여건이 허락하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지 않다.	☐	☐	☐	☐	☐
③ 나는 지속적으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고 싶지 않다.	☐	☐	☐	☐	☐
④ 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없다.	☐	☐	☐	☐	☐
⑤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다.	☐	☐	☐	☐	☐
⑥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	☐	☐	☐
⑦ 나는 문화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	☐	☐	☐	☐	☐
⑧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은 신체적, 언어적 제약 등으로 문화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	☐	☐	☐
⑨ 생활권 내의 문화서비스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	☐	☐	☐	☐
⑩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다.	☐	☐	☐	☐	☐
⑪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이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이용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문화서비스 제공 시설(공간)의 수는 충분하지 않다.	☐	☐	☐	☐	☐

D. 문화서비스 수용성(이용자)

문4. (수용성) 아래 질문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문화서비스 이용자)

측 정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	☐	☐
2. 내가 원하는 만큼(횟수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	☐	☐
3.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서는 내가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콘텐츠)을 제공하고 있다.	☐	☐	☐	☐	☐
4.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	☐	☐
5. 내가 제공받은 문화서비스는 나에게 유익하다.	☐	☐	☐	☐	☐

측 정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6.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	☐	☐	☐	☐	☐	☐	☐	
7.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주변의 평판이 좋다.	☐	☐	☐	☐	☐	☐	☐	☐	
8.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이용방법(과정)이 편리하다.	☐	☐	☐	☐	☐	☐	☐	☐	
9.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이용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	☐	☐	☐	☐	☐	☐	☐	
10.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	☐	☐	☐	
11.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모두(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에게 서비스(시설)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12.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직원들은 친절하다.	☐	☐	☐	☐	☐	☐	☐	☐	
13.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직원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	☐	☐	☐	☐	☐	☐	
14. 내가 원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	☐	☐	☐	☐	☐	☐	☐	
15. 내가 원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다.	☐	☐	☐	☐	☐	☐	☐	☐	
16.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공간)은 쾌적하게 여유 있다.	☐	☐	☐	☐	☐	☐	☐	☐	
17.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편안하고, 휴게 및 휴식 공간이 충분하다.	☐	☐	☐	☐	☐	☐	☐	☐	
18.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식음료공간(매점, 카페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	☐	☐	☐	☐	☐	☐	☐	☐	
19.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자녀를 동반하기에 적절하다(모유시설, 어린이 공간 등)	☐	☐	☐	☐	☐	☐	☐	☐	
20.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의 프로그램은 체험할 가치가 있다.	☐	☐	☐	☐	☐	☐	☐	☐	
21.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은 특별한 이미지가 있다.	☐	☐	☐	☐	☐	☐	☐	☐	
22.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경험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	☐	☐	☐	☐	☐	☐	☐	
23.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했다.	☐	☐	☐	☐	☐	☐	☐	☐	
24.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	☐	☐	☐	☐	☐	☐	☐	
25.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	☐	☐	☐	☐	
26.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에 재방문하고 싶다.	☐	☐	☐	☐	☐	☐	☐	☐	
27. 내가 이용하는 문화서비스 시설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	☐	☐	☐	☐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돈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유무상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임자문 · 김춘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외부참여 · 오신희 홍익대학교 석사과정

전략연구 2019-21 ·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현황 및 확대 방안

글쓴이 · 정지은·오용준·최돈정·유무상

발행자 · 윤 항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9년 12월 31일 / 발행 · 201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5(지역도시·문화연구실), 041-840-1114(대표)/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09-8-03350

<http://www.cni.re.kr>

© 2019.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